노란 옷의 왕

The King in Yellow

로버트 W. 체임버스 (Robert W. Chambers) (1865–1933)

189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로버트 W. 체임버스 (Robert W. Chambers), "The King in Yellow" (F. Tennyson Neely 1895)

저자

로버트 W. 체임버스 (Robert W. Chambers) (1865–1933)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8492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W. 체임버스

1895년 초판 발행

목차

명성을 수선하는 자

가면

용의 궁전

노란 표식

이스의 공주

예언자들의 낙원

사풍의 거리

첫 번째 조개껍질의 거리

들의 성모 거리

루 바레

해안선을 따라 구름의 물결이 부서진다. 두 개의 태양이 호수 뒤로 가라앉는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카르코사에서.

검은 별들이 떠오르는 밤은 기이하다. 달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도 낯설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묘한 것은, 잃어버린 카르코사다.

하이아데스가 부를 노래들이 왕의 찢어진 옷조각들이 나부끼는 곳에서 들리지 못한 채 카르코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하리라.

내 영혼의 노래여, 나의 목소리는 이미 죽었도다. 너도 노래되지 못한 채 죽으라. 눈물처럼, 흐르지 못한 채 마르고 사라져 버리리니, 잃어버린 카르코사에서.

「노란 옷의 왕」 제1막 제2장, 카실다의 노래

명성을 수선하는 자

"미친 자들을 조롱하지 말라. 그들의 광기는 우리의 것보다 더 오래 간다. 그뿐이 전부다."

1920년 말, 미국 정부는 윈스롭 대통령 임기 말에 채택한 계획을 거의 완수했다. 국가는 겉보기에 평온했다. 관세 문제와 노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

독일이 사모아 제도를 점령하면서 일어난 대독 전쟁은 공화국에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 침략군에 의한 노퍽의 일시적 점령도, 이후 뉴저지 주에서 폰 가르텐라우베 장군의 부대가 겪은 우스꽝스러운 곤경도, 거듭되는 해군 승리의 기쁨 속에 잊혔다.

쿠바와 하와이 투자는 100%의 수익을 올렸고, 사모아 영토는 석탄 보급기지로서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했다. 국가는 완벽한 방어 태세에 있었다. 연안 도시마다 육상 요새가 잘 갖춰졌고, 프로이센식 체계로 조직되어 총참모부의 어버이 같은 보살핌 아래 있던 군대는 30만 명으로 증강되었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향토 예비군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한 순양함과 전함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여섯 함대가 항해 가능한 바다의 여섯 기지를 순찰하고 있었고, 본토 해역을 통제하기에 충분한 증기 예비함대도 확보되어 있었다.

서부 출신 의원들도 마침내 외교관 양성 대학이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교만큼이나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애국자들에 의해 해외에서 대표되지 않게 되었다.

국가는 번영했다. 두 번째 대화재로 잠시 마비되었던 시카고는 폐허에서 일어나, 백색이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1893년 그 도시의 장난감으로 지어졌던 백색 도시보다 더 아름답게 되살아났다. 곳곳에서 나쁜 건축이 좋은 건축으로 대체되었고, 뉴욕조차도 갑자기 찾아온 단정함에 대한 갈망으로 기존의 흉물스러운 구조물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거리는 넓어지고, 제대로 포장되었으며, 조명이 설치되었다. 나무가 심기고 광장이 조성되었으며, 고가 구조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하도로가 건설되었다.

새로운 정부 청사와 병영은 훌륭한 건축물들이었고, 섬을 완전히 둘러싼 긴 석재 부두는 주민들에게 천혜의 선물이 된 공원으로 탈바꿈했

다. 주립 극장과 오페라에 대한 보조금은 그 자체로 보답을 가져왔다. 미국 국립 미술 아카데미는 유럽의 유사한 기관들과 매우 흡사했다. 누구도 미술부 장관의 각료 직위나 그의 소관 직무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산림 및 야생동물 보호부 장관은 새로운 국립 기마 경찰 체계 덕분에 훨씬 수월한 임기를 보냈다.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과의 최신 조약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다. 자구책으로서 외국 태생 유대인의 배제, 새로운 독립 흑인 국가 스아니의 정립, 이민 통제, 새로운 귀화법, 그리고 행정부 권력의 점진적 중앙집권화는 모두 국가의 평온과 번영에 기여했다.

정부가 인디언 문제를 해결하고, 원주민 복장을 한 인디언 기마 정찰병 부대가 이전 전쟁부 장관이 해골 같은 연대 뒤에 붙여놓은 가련한 조직들을 대체했을 때, 국민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대한 종교 회의 이후, 편견과 불관용이 무덤에 묻히고 자비와 자선이 다투던 종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은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인 신세계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자기 보존은 최우선의 법칙이었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가 아나키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무력한 슬픔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카프카스에서 지켜보던 러시아는 그들을 하나씩 꺾고 묶어갔다.

1899년 뉴욕의 여름은 고가 철도가 해체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1900년의 여름은 뉴욕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 해 도지 동상이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겨울, 자살을 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움직임은 1920년 4월, 워싱턴 스퀘어에 첫 번째 정부 사멸실이 문을 열면서 결실을 맺었다.

그날 나는 매디슨 애비뉴에 있는 아처 박사의 집에서부터 걸어 내려왔다. 그곳에서의 진찰은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었다.

사 년 전, 말에서 떨어진 이래로 나는 가끔 머리 뒷부분과 목에 통증을 겪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그 통증이 사라졌고, 아처 박사는 그날, 더 이상 내게서 고칠 병이 없다며 나를 돌려보냈다.

그런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가 받은 진료비를 낼 가치는 거의 없었다. 나 스스로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속상했던 것은 그가 처음에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다.

내가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자비로이 내 말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주었다. 나는 그 상태로 아처 박사에게 옮겨졌고, 그는 내 뇌에 손상이 생겼다고 단정하여, 자신의 사설 정신병원에 나를 수용했고, 나는 그곳에서 정신이상자 치료를 견뎌야 했다.

마침내 그는 내가 완치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나는 내 정신이 늘 그의 정신만큼 건전했으며, 어쩌면 그보다 더 건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농담처럼 '수업료'라고 부르던 것을 지불하고 그곳을 떠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실수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박사는 크게 웃으며 가끔 들르라고 권했다. 나는 계산을 매듭짓기 위한 기회를 노리며 그를 찾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말에서 떨어진 사고는 다행히도 해로운 결과를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내 성격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도회지의 나태한 청년이었던 나는, 활동적이고, 정력적이며, 절제할 줄 알며, 그리고 무엇보다도—아, 그 무엇보다도—야심에 찬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내 불안함을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회복기 동안 나는 <노란 옷의 왕>을 사서 처음으로 읽었다. 첫 막을 다 읽고 나자, 그만 멈추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벌떡 일어나 책을 벽난로에 던졌다. 책은 철창 난간에 부딪힌 뒤 불빛이 비치는 난로 바닥에 펼쳐진 채 떨어졌다. 만약 내가 두 번째 막의 첫 구절을 흘끗 보지 못했다면, 결코 그것을 끝까지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우려 몸을 굽혔을 때, 내 시선은 펼쳐진 페이지에 못 박혔고, 공포의 비명을—아니, 어쩌면 신경 마디마디가 고통스러울 만큼 격렬했던 환희의 비명을—지르며, 나는 그것을 잉걸불 속에

서 낚아채어 떨리는 몸을 이끌고 침실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따금 나를 덮쳐오는 공포에 떨기도 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검은 별들이 하늘에 매달려 있고, 쌍둥이 태양이 할리 호수 속으로 가라앉는 오후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그 카르코사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영원토록 창백한 가면의 기억을 짊어질 것이다. 그 작가가 — 그 단순함 속에서도 끔찍하고 그 진실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 이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창조물로, 다시 말해 이제 노란 옷의 왕 앞에서 떨고 있는 세계로 세상을 저주했듯이, 나는 신께서 그 작가를 저주하시기를 기도한다.

프랑스 정부가 막 파리에 도착한 번역본들을 압수하자, 런던은 당연히 그것을 읽으려는 열의에 휩싸였다. 이 책이 전염병처럼 도시에서 도시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나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는 금지되고, 저기서는 압수되었으며, 언론과 강단에서 규탄받았고, 가장 진보적인 문학적 아나키스트들조차도 이를 견책했다. 그 사악한 페이지들에서 어떠한 명확한 원칙도 위반되지 않았고, 어떠한 교리도 선포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신념도 짓밟히지 않았다. 그것은 알려진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란 옷의 왕>에서 예술의 지고한 음이 울려 퍼졌다는 점은 인정되었음에도, 모든 이는 인간 본성이 그 부담을 견딜 수도, 가장 순수한 독의 정수가 도사린 그 말들 속에서 번성할 수도 없다고 느꼈다. 첫 막의 너무도 진부하고 무해한

성격은 오히려 이후의 타격이 더욱 끔찍한 효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1920년 4월 13일이었다. 그날 워싱턴 스퀘어 남쪽, 우스터 가와 사우스 피프스 애비뉴 사이에 최초의 정부 죽음의 방이 설치되었다.

이 일대는 본래 외국인들을 위한 카페와 식당으로 쓰이던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으나, 1898년 겨울에 정부가 그 땅을 매입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카페와 식당들은 헐려 나갔고, 블록 전체는 금박을 입힌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여 잔디와 꽃과 분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고 흰 건물 하나가 서 있었는데, 건축 양식은 엄격한 고전주의를 따랐고, 사방은 꽃덤불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섯 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지붕을 떠받쳤고, 단 하나뿐인 문은 청동이었다.

문 앞에는 '운명의 여신들'이라는 빼어난 대리석 군상이 서 있었는데, 이는 스물세 살의 젊은 나이로 파리에서 숨진 미국 조각가 보리스 이바인의 작품이었다.

내가 유니버시티 플레이스를 건너 광장으로 들어설 때, 개관 의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모여든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으나, 4번가에서 경찰의 저지선에 막혔다. 미합중국 창기병 한 연대가 죽음의 방을 둘러싸고 공동방진을 이루고 있었다.

워싱턴 파크를 향한 높은 단상에는 뉴욕 주지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뉴욕·브루클린 시장, 경찰총감, 주군(州軍) 사령관, 미합중국 대통령의 군사 보좌관 리빙스턴 대령, 거버너스 아일랜드 주둔 사령관 블라운트 장군, 뉴욕·브루클린 수비대 사령관 해밀턴 소장, 노스 강 함대의 버피 제독, 공중보건총감 랜스포드, 국립 자유병원 직원단, 뉴욕 주 상원의원 와이즈와 프랭클린, 그리고 공공사업위원이 늘어서 있었다. 단상 주위는 주방위군의 후사르 한 기병중대가 에워싸고 있었다.

주지사는 공중보건총감의 짧은 연설에 대한 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자살을 금지하고 자해 시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던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절망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삶을 끝낼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회에서 거두어들임으로써 공동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래로 미합중국의 자살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나라의 모든 도시와 읍과 마을에 죽음의 방을 설치하기로 결심한바, 매일 새로운 자살 희생자가 나오는 그 절망에 잠긴 부류의 인간들이 이렇게 마련된 안식을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더니, 하얀 죽음의 방을 향해 몸을 돌렸다. 거리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곳에는 이 삶의 슬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를 위해 고통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자라면, 그곳에서 죽음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더니 그는 재빨리 대통령 막료의 군사 보좌관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죽음의 방의 개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대한 군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뉴욕 시민, 그리고 미합중국 시민 여러분, 저를 통하여 정부는 죽음의 방의 개방을 선포합니다."

엄숙한 정적은 날카로운 호령 소리에 깨졌다. 후사르 기병중대는 주지사의 마차를 뒤따라 행진했고, 창기병들은 방향을 틀어 수비대 사령관을 기다리기 위해 피프스 애비뉴를 따라 정렬했으며, 기마경찰이 그 뒤를 이었다. 나는 하얀 대리석 죽음의 방을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군중을 뒤로한 채, 사우스 피프스 애비뉴를 건너 그 대로의 서쪽 면을 따라 블리커 스트리트까지 걸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과 같은 간판이 걸린 음침한 가게 앞에 멈춰 섰다.

호버크, 갑주 장인.

나는 문간으로 흘낏 들여다보았고, 복도 끝의 작은 가게에서 한창 일에 몰두해 있는 호버크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발견하더니 깊고 호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들어오시오, 카스테인 군!"

내가 문턱을 넘자, 그의 딸 콘스탄스가 나를 맞으러 일어서며 예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뺨에 떠오른 실망의 홍조를 보았

고, 그녀가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카스테인, 곧 내 사촌 루이였음을 알아챘다. 나는 그녀의 당황함에 미소 지으며, 채색 도판을 보고 자수하던 깃발에 찬사를 보냈다.

늙은 호버크는 어떤 고대 갑옷 한 벌의 닳아 해진 정강이 보호구에 리벳을 박느라 정신이 없었고, 작은 망치의 '땅, 땅, 땅!' 소리가 기묘한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렸다. 잠시 후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작은 렌치를 가지고 한동안 만지작거렸다. 사슬 갑옷이 부드럽게 부딪치는 소리가 내게 쾌감의 전율을 보냈다.

나는 강철이 강철에 스치는 음악, 망치가 넓적다리 보호구에 부드럽게 닿는 묵직한 소리, 사슬 갑옷의 쩔렁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다. 바로 그것이 호버크를 찾아간 유일한 이유였다. 호버크라는 사람 자체가 흥미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고, 콘스탄스 역시 그녀가 루이를 사랑한다는 사실 외에는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사실, 즉 그녀가 루이를 사랑한다는 점은 내 주의를 끌었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것을, 그리고 친절한 의사 존 아처의 미래를 내가 정리해 줄 작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미래도 내가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말했듯이, 그 영롱한 망치 소리가 내게 그토록 강렬한 매혹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그때 굳이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듣고 또 들었고, 한 줄기 햇살이 상감(象嵌)된 강철에 부딪칠 때면, 그 감각이 거의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예리했다. 나의 눈은 한 점에 고정된 채, 모든 신경을 거의 끊어질

듯 팽팽히 당기는 쾌감으로 동공이 확장되었다. 마침내 노 갑옷 장인의 어떤 움직임이 그 햇살을 가리면, 나는 여전히 남몰래 떨면서 등을 기댄 채, 다시 광택용 헝겊이 '쓱, 쓱' 리벳에서 녹을 닦아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콘스탄스는 무릎 위에 놓인 자수를 놓고 일하고 있었다. 가끔 멈춰서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컬러 판화에서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곤 했다.

"누구한테 쓰는 거야?" 내가 물었다.

호버크는 자신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갑옷 담당으로 임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애호가들의 여러 소장품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강이 보호구는 어느 유명한 갑옷 한 벌에서 빠진 부분으로, 그의 한 의뢰인이 파리 케 도르세의 작은 가게까지 그 행방을 추적해 낸 것이었다. 호버크 자신이 협상에 나서서 그 정강이 보호구를 확보했고, 이제야 비로소 갑옷 한 벌이 완전해진 것이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그 갑옷의 내력을 읽어 주었다. 1450년부터 주인에서 주인으로 손이 바뀌어 내려오다가 마침내 토머스 스테인브리지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의 빼어난 소장품이 매각될 때 호버크의 이 의뢰인이 갑옷을 사들였고, 그 뒤로 잃어버린 정강이 보호구를 찾는 수색이 줄곧 계속되다가, 거의 우연에 가깝게 파리에서 그 소재가 확인되었던 것이다.

"정강이 보호구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는 어떤 확신도 없이 그토록 끈질기게 수색을 계속했단 말이오?" 내가 다그쳐 물었다.

"물론이지." 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때야말로 나는 처음으로 호버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에게도 그만한 가치는 있었겠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을 발견한 기쁨 자체가 나의 보상이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없소?" 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제 유일한 소원은 세계 최고의 갑옷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콘스탄스가 내게 죽음의 방에서 열린 의식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녀 자신도 그날 아침 브로드웨이를 지나가는 기병대를 보고는 개관식을 직접 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깃발을 마저 완성하기를 원했기에 그의 부탁대로 가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거기서 사촌이신 카스테인 씨를 보셨나요?" 그녀가 부드러운 속눈썹을 살짝 떨면서 물었다.

"아니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루이의 부대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훈련 중이거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와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또 위층의 미친놈 보러 올라가나?" 노 호버크가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가 내가 '미친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았다면, 내 앞에서는 결코 그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내 안에서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차분하게 그에게 대답했다. "와일드 씨를 잠시 뵙고 올까 합니다."

"불쌍한 분이지요." 콘스탄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해마다 가난하고 다리도 못 쓰고 거의 정신마저 나간 채로 혼자 사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자주 찾아뵙다니, 카스테인 씨, 정말 갸륵하세요."

"그자는 사악한 인간이오." 호버크가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며 말했다. 나는 정강이 보호구의 판 위에서 울리는 황금빛 쟁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일을 마치자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사악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금도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경이의 방이며, 그는 그 안에서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어 할 보물들을 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호버크가 웃었다.

나는 약간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의 탐구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의 기억은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이 있다는 사실이 만약 뉴욕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그를 아무리 떠받들어도 모자라다고 여길 것입니다."

"헛소리." 호버크가 떨어진 리벳을 찾아 바닥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헛소리라고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가 말하길, 흔히 '왕자의 문장'이라 불리는 에나멜 갑옷의 타셋과 큐사르가, 펠 스트리트의 다락방에 쌓인 녹슨 연극 소품들과 부서진 난로들, 그리고 헌옷 수거인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게 헛소리란 말입니까?"

호버크의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망치를 주워 들고는, 놀랍도록 평정된 어조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왕자의 문장'에서 타셋과 왼쪽 큐사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말이다.

그것은 며칠 전 와일드 씨가 말해 줄 때까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들은 펠 스트리트 998번지의 다락방에 있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가 외쳤지만, 나는 그의 손이 가죽 앞치마 아래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나는 가볍게 물었다. "와일드 씨가 당신을 아브셔 후작이라 부르고, 콘스턴스 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것 역시 헛소리란 말입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컨스턴스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호버크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죽 앞치마를 다듬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가 말했다. "와일드 씨가 아주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갑옷 같은 것들, 그리고 '왕자의 문장' 같은 것 말씀이시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네," 그가 천천히 이어 말했다. "갑옷에 관해서도 그럴지 모르지만, 아븐셔 후작에 관해서는 잘못 알고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그 후작은 수년 전 아내를 비방한 자를 죽이고 호주로 떠났고, 아내가 죽은 뒤로 오래 살지 못했지."

"와일드 씨는 잘못됐어요." 콘스탄스가 속삭였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지만, 목소리는 달콤하고 차분했다.

"한 가지 일에서는 와일드 씨가 잘못됐다고, 당신과 동의합시다." 내가 말했다.

II

나는 이미 수없이 올랐던, 무너져가는 세 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복도 끝의 작은 문을 두드렸다. 와일드 씨가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두 번 잠그고 무거운 궤를 문 앞에 밀어붙인 뒤, 그는 내 곁으로 와 앉았다. 작고 옅은 색의 눈으로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코와 뺨에는 새로운 긁힌 자국이 여섯 군데나 나 있었고, 인공 귀를 지탱하던 은선도 어긋나 있었다. 나는 그가 이토록 끔찍하게 매혹적인 모습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귀가 없었다. 지금 가느다란 철사에서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는 인공 귀들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것들은 밀랍으로 만들어져 조개껍데기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의 왼손에는 인공 손가락이라도 호사스럽게 갖추는 편이 더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 불편도 주지 않는 듯했고, 그는 자신의 밀랍 귀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작아서 열 살 난 아이보다 별로 크지 않았지만, 팔은 훌륭하게 발달해 있었고 허벅지는 어떤 운동선수 못지않게 굵었다. 그럼에도 와일드 씨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토록 경이로운 지능과 지식을 지닌 사람이 그런 머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머리는 평평하고 뾰족했는데, 이는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갇힌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머리와 비슷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가 나만큼이나 제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기이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 고양이를 기르며, 고양이가 악마처럼 그의 얼굴을 향해 덤벼들 때까지 약 올리던 그의 집착은 분명 기이한 것이었다. 나는 그가 왜 그 짐승을 길렀는지, 그 성질 사납

고 흉포한 짐승과 단둘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데서 무슨 즐거움을 찾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번은 수지 양초 불빛 아래에서 원고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와일드 씨가 등받이 높은 의자에 꼼짝도 않고 웅크려 앉아 흥분으로 눈을 활활 태우고 있었고, 난로 앞 제자리에서 일어선 고양이가 곧장 그를 향해 바닥을 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고양이는 배를 바닥에 납작 붙이고 몸을 웅크리더니, 부르르 떨다가 그의 얼굴을 향해 뛰어올랐다.

둘은 울부짖고 거품을 물며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고, 서로 할퀴고 발톱을 세우다가, 마침내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찬장 밑으로 도망쳤다. 와일드 씨는 등을 대고 벌렁 누웠고, 그의 사지는 죽어가는 거미의 다리처럼 오그라들며 말려 들어갔다.

그는 _정말로_ 기이했다.

와일드 씨는 높은 의자에 올라탔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유심히 살펴본 뒤, 구겨진 장부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다.

"헨리 B. 매슈스," 그가 읽었다. "휘솟·휘솟 상회의 부기 담당. 교회 장식품 취급. 4월 3일 방문. 경마장에서 평판이 손상됨. 내기 빚을 떼먹는 자로 알려짐. 8월 1일까지 평판을 회복할 것. 착수금 5달러."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가락 없는 마디로 빽빽이 적힌 열을 따라 훑어 내려갔다.

"P. 그린 듀젠베리, 복음 목사, 뉴저지주 페어비치. 바워리에서 평판이 손상됨.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할 것. 착수금 100달러."

그는 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4월 6일 방문."

"그렇다면 당신, 와일드 씨, 돈이 필요하지 않은 셈이군요?" 내가 물었다.

"들어라." 그가 다시 기침을 했다.

"뉴욕 시 체스터 파크에 사는 C. 해밀턴 체스터 부인. 4월 7일 방문. 프랑스 디에프에서 평판이 손상됨. 10월 1일까지 회복 예정. 착수금 500달러."

"참고——C. 해밀턴 체스터, 미 해군 함정 '애벌란치'호의 함장. 10월 1일자로 남양 함대에서 본국으로 귀환 명령을 받음."

"음," 내가 말했다. "평판 수선사라는 직업은 꽤 짭짤하군요."

그의 빛깔 없는 눈이 내 눈을 찾았다.

"나는 단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오. 당신은 평판 수선사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지요. 설령 몇몇 사례에서 성공한다 해도, 그 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나는 오백 명의 사람을 부리고 있소. 그들은 박봉이지만, 어쩌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를 열정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지.

이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과 등급에 침투해 있소. 어떤 자들은 가장 배타적인 사교계의 기둥이고, 어떤 자들은 금융계의 버팀목이자 자랑거리이며, 또 다른 자들은 '유흥계와 재인계'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패권을 휘두르고 있지. 나는 내 광고에 응한 자들 중에서 한가할 때 골라 잡는다오. 쉬운 일이지. 그들은 모두 겁쟁이니까. 원한다면 스무 날 안에 그 수를 세 배로 늘릴 수도 있소.

그러니 보시오. 동포들의 평판을 손에 쥔 자들을, 내가 봉급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잘려 나간 귀의 자리를 엄지로 문지르며, 밀랍으로 된 대용 귀를 매만져 바로잡았다.

"아니, 그러진 않을 거요." 그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나는 채찍을 들 일이 거의 없고, 들더라도 단 한 번뿐이지. 게다가 그들은 자기 급료를 좋아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나?" 내가 물었다.

그의 얼굴은 한순간 보기에도 끔찍해졌다. 그의 눈은 한 쌍의 녹색 불꽃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들이 와서 잠깐 이야기나 나누도록 초대할 거야."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고, 그의 얼굴은 다시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다.

"누구냐?" 그가 물었다.

"스타일레트 씨입니다."

"내일 오시오." 와일드 씨가 대답했다.

"말도 안 돼." 다른 한 사람이 입을 열었지만, 와일드 씨가 짖어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를 막아섰다.

"내일 오라." 그는 다시 말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 발걸음이 계단 옆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놀드 스타일레트. 뉴욕의 대규모 일간지의 소유주이자 편집장이오."

그는 손가락 없는 손으로 장부를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다. "그에게는 아주 박한 보수를 주지만, 그는 그것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오."

"아놀드 스타일레트!" 나는 놀라며 되뇌었다.

"그렇소." 와일드 씨가 자기만족에 찬 기침과 함께 대답했다.

그가 말을 마칠 무렵,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머뭇거리더니 그를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 짐승을 품에 안고 어루만졌다. 고양이는 으르렁거림을 멈추더니, 곧 큰 소리로 그르렁거리기 시작했고, 그가 쓰다듬자 그 음색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듯했다.

"메모는 어디에 있소?" 내가 물었다.

그가 책상을 가리켰고, 나는 백 번째로 그 원고 뭉치를 집어 들었다. 제목은 이러했다——

"아메리카의 황제 왕조."

나는 그 낡은 페이지들을 한 장씩 살펴보았다. 오직 내 손길로만 닳아 있는 페이지들이었다. 비록 '카르코사로부터, 히아데스, 하스투르, 그리고 알데바란으로부터'라는 첫 구절부터 '1877년 12월 19일 출생한 루이 드 칼바도스'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지만, 나는 열성적이고 황홀한 주의로 그것을 읽어 내려갔고, 군데군데 멈추어 일부 구절을 소리 내어 되풀이했으며, 특히 '힐드레드 카스테인과 에디스 랜디스 카스테인의 외아들이자 계승 서열 1위인 힐드레드 드 칼바도스' 운운하는 대목에 오래 머물렀다.

내가 다 읽자, 와일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침을 했다.

"당신의 정당한 야망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말했다. "콘스탄스와 루이는 잘 지내고 있소?"

"그녀는 그를 사랑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무릎에 앉아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눈을 향해 덤볐다. 그는 고양이를 쫓아내고 내 맞은편 의자에 올라탔다.

"그리고 아처 박사! 하지만 그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야." 그가 덧붙였다.

"네," 내가 대답했다. "아처 박사는 기다릴 수 있지만, 이제 사촌 루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군요."

"시간이 왔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다른 장부 한 권을 들어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보았다.

"우리는 지금 만 명의 남자와 교신 중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첫 이십팔 시간 안에는 십만 명을 기대할 수 있고, 사십팔 시간 안에는 주 전체가 일제히 봉기할 거야. 국가는 주를 따르겠지. 그리고 그 따르지 않을 부분을 말이지,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같은 곳들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게 나았을 거야. 나는 그들에게 노란 표식을 보내지 않을 거야."

피가 머리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새빗자루가 가장 깨끗하게 쓸린다."

와일드 씨가 말했다.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의 야망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각들까지 조종하기 전에는 결코 안식하지 못했던 그 야망 앞에서 빛이 바랜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노란 옷의 왕이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는 제왕들이 신하로 섬겨온 왕이다.

"저는 그를 섬기는 데 만족합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와일드 씨는 불구인 손으로 귀를 문지르고 있었다.

"콘스탄스가 그를 사랑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내가 답하려던 순간, 아래 거리에서 갑작스레 군악대가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에서 주둔하던 제20용기병연대가 웨스트체스터 군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이스트 워싱턴 스퀘어의 새 병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 연대는 내 사촌의 부대였다. 그들은 훌륭한 병사들이었다. 옅은 파란색의 딱 맞는 제복, 경쾌한 부스비(모자), 그리고 이중의 노란 줄이 들어간 흰색 승마용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그 옷감에 꼭 맞게 빚어진 듯했다.

한 중대 걸러 하나씩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창의 금속 끝에는 노란색과 흰색의 작은 깃발이 나부꼈다. 악대가 연대 행진곡을 연주하며 지나가자, 이어 대령과 참모진이 나타났다. 말들이 서로 부딪히고 발굽으로 땅을 구르며 지나갔다. 말들의 머리는 한결같이 흔들렸고, 창 끝의 깃발은 바람에 펄럭였다.

아름다운 영국식 자세로 말을 탄 병사들은 웨스트체스터의 농가들 사이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훈련만 했음에도, 얼굴은 베리처럼 탔다. 내게는 그들의 군도가 등자에 부딪히는 소리, 박차와 카빈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너무도 달게 들렸다.

루이가 자신의 중대와 함께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지금껏 본 어떤 장교 못지않게 잘생긴 장교였다. 창문 옆 의자에 올라앉아 있던 와일드 씨도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이가 지나갈 때 뒤를 돌아 하버크의 가게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탔던 뺨에 홍조가 진 것이 보였다. 콘스탄스가 아마 창가에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병사들의 발굽 소리가 사라지고, 마지막 깃발이 사우스 피프스 애비뉴 끝으로 사라지자, 와일드 씨는 의자에서 내려와 문 앞의 상자를 밀어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이제 네 사촌 루이스를 만나볼 때야."

그는 문을 열어 주었고, 나는 모자와 지팡이를 챙겨 복도로 나섰다. 계단은 캄캄했다. 어둠을 더듬으며 발을 내딛었는데,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내 발에 닿았다. 그것이 으르렁거리며 침을 뱉었다. 나는 그 고양이에게 살기 어린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지팡이는 난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짐승은 재빠르게 도망쳐 다시 와일드 씨의 방 안으로 사라졌다.

하버크의 집 앞을 다시 지나칠 때, 그는 여전히 갑옷 수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블리커 거리로 나서, 우스터 거리까지 따라갔다. 레탈 챔버의 부지 옆을 스쳐 지나 워싱턴 공원을 건너, 바로 베네딕트 아파트의 내 방으로 향했다.

여기서 나는 편안하게 점심을 먹고, 《헤럴드》와 《미티어》지를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의 강철 금고로 가서 시간 조합 숫자를 맞췄다. 시간 잠금장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3분 45초는 나에게 황금 같은 순간이다. 조합을 맞춘 그 순간부터, 단단한 강철 문을 잡고 돌려 열기 직전까지, 나는 기대감에 취해 살았다.

그 순간들은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을 것이다. 시간 제한이 끝나는 순간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나는 안다. 그 거대한 금고가 나만을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안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섬세한 즐거움은, 금고가 열리고 벨벳 받침 위에서 순금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는 왕관을 들어올릴 때조차 거의 더해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이 일을 반복하지만, 기다리는 기쁨과 마침내 다시 그 왕관을 만나는 기쁨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다. 그것은 왕

중의 왕, 황제 중의 황제에게 어울리는 왕관이다. 노란 옷의 왕이 그것을 업신여길지라도, 그것은 그의 왕실 하인이 착용할 것이다.

그것을 품에 안고 있자, 금고의 알람이 거친 소리로 울려 퍼졌다. 나는 부드럽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강철 문을 닫았다.

나는 워싱턴 스퀘어를 바라보는 내 서재로 천천히 돌아와 창틀에 기댔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공원의 느릅나무와 단풍나무 가지들이 새순과 연한 잎사귀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비둘기 떼가 기념비 교회 탑 주위를 맴돌았다. 때로는 보라색 타일 지붕에 내려앉기도 하고, 때로는 대리석 아치 앞의 연꽃 분수로 내려가 선회했다. 정원사들은 분수 주변의 화단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새로 갈아엎은 흙에서는 달콤하고 매운 냄새가 풍겨 나왔다.

뚱뚱한 흰 말이 끄는 잔디 깎는 기계가 푸른 잔디밭 위를 지나며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고, 물마차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분무기를 뿌리듯 물을 쏟아부었다.

1897년에 가리발디를 대표한다고 여겨졌던 괴상한 동상이 사라지고 세워진 피터 스투이베상트의 동상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봄 햇살 속에서 놀고 있었다. 유모들은 창백한 얼굴의 아기들을 태운 정교한 유모차를 무모할 정도로 내몰았는데, 이는 아마도 벤치에 나른하게 기대 앉아 있는 단정한 차림의 용기병 여섯 명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나무 사이로 워싱턴 기념 아치가 햇살 속에서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너머, 광장의 동쪽 끝에는 용기병의 회색 돌 병영과 흰 화강암으로 지은 포병 마구간이 색채와 움직임으로 생기를 띠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 광장 구석에 있는 '레탈 챔버'를 바라보았다. 금도금된 철제 난간 주변에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었지만, 정문 안쪽의 길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분수에서 물결이 일고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참새들은 이미 이 새로운 목욕터를 발견하고 있었다. 분수대 바닥에는 먼지가 낀 깃털을 가진 작은 새들이 뒤덮여 있었다.

흰 공작 두세 마리가 잔디밭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한 마리 회색 비둘기가 '운명의 여신상' 중 하나의 팔 위에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조각된 돌의 일부인 듯 보였다.

내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문 주변에 모여들었던 군중 사이에서 미세한 소동이 일었다. 한 청년이 나타나자, 그는 초조한 발걸음으로 자갈길을 따라 걸어가며 청동 문으로 이어지는 길, 즉 ‘치명적 방실’의 입구로 향했다.

그는 ‘운명의 여신상’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신비로운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조각상 위에 앉아 있던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잠시 공중을 맴돌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사라졌다.

청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동작으로 대리석 계단을 힘차게 올라갔다. 청동 문이 그의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반 시간 뒤, 군중은 하나둘 흩어졌다. 놀란 비둘기는 다시 운명의 여신상 품으로 돌아와 자리로 돌아갔다.

모자를 쓰고 저녁 식사 전 공원 산책을 나섰다. 중앙 보도를 건너던 중, 한 무리의 장교들이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부르며 "안녕, 힐드레드"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 사람은 내 사촌 루이스였다. 그는 미소를 띠고, 박차가 달린 발뒤꿈치를 채찍으로 툭툭 치며 서 있었다.

“웨스트체스터에서 막 돌아왔네. 시골 풍경을 구경하느라 유유자적했지. 우유와 커드, 햇빛 아래 모자를 쓴 젖소 치는 아가씨들. 네가 예쁘다고 말하면 ‘하에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라고 답하는 그런 여자들 말이야. 델모니코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어 죽겠어. 무슨 소문 있어?”

“없습니다.” 나는 쾌활하게 답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의 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와일드 씨의 창문 안에 있더군.”

“젠장!” 그가 재촉하듯 말했다.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다! 대체 왜 당신이—”

그는 이 폭발적인 언사에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보았다. 그리고는 내게 사죄를 청했다.

"정말, 친구야." 그가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도대체 그대 와일드 씨와 네가 무슨 공통점을 찾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그럽게 말해서 그는 예의가 부족하고, 외모는 끔찍하게 기형적이다. 머리는 정신병자의 그것과도 같다. 그대 자신도 알다시피, 그는 이미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도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루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려 주었다.

"당신은 완전히 나았소."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를 막았다.

"당신은 내가 정신 나간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거, 그게 내가 말하려던 거였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웃음이 억지라는 것을 알기에 그 웃음이 싫었다. 하지만 나는 상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루이는 이제 브로드웨이에 거의 다다른 다른 장교들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브런즈윅 칵테일을 시음할 생각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하버크를 만나러 가는 핑계를 찾고 있었어요. 같이 가요. 제가 핑계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늙은 하버크가 깔끔한 새봄 정장 차림으로 가게 문 앞에 서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저녁 식사 전에 콘스탄스와 산책 좀 하려고 했어요." 루이의 성급한 질문 폭탄에 그가 답했다. "노스 리버를 따라 공원 테라스를 걷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때 콘스탄스가 나타나, 루이가 그녀의 작고 장갑 낀 손가락 위로 몸을 굽히는 사이 번갈아 창백해졌다 붉어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시내 북쪽에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루이와 콘스탄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남아 노(老) 하버크의 말상대를 맡아 주는 역할이 내게 기대되고 있음을 알아챘다. 어쨌든 루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편이 차라리 나으리라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스프링 스트리트의 마차 전차를 불러 세웠을 때,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 올라타 무기 장인 옆자리에 앉았다.

북강을 따라 늘어선 부두 위로 우뚝 솟은 아름다운 공원들과 화강암 테라스는 1910년에 착공해 1917년 가을에 완공되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터리에서 190번가까지 이어진 이 길은 장엄한 강을 내려다보며, 맞은편의 저지 해변과 하이랜즈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절경을 선사했다.

나무들 사이사이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다. 매주 이틀은 요새의 군악대가 성벽 위에 세워진 키오스크에서 연주를 펼쳤다.

우리는 쉐리던 장군의 동상 아래 벤치에 앉았다. 해가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콘스탄스가 햇빛 가리개를 눈 위로 살짝 기울이며 눈을 가렸다. 그녀와 루이가 속삭이듯 대화를 시작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오래된 하버크는 상아 손잡이 지팡이에 기대어 훌륭한 시가를 피웠다. 그는 나에게도 한 대를 권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하버크는 아무것도 없는 앞을 향해 미소 지었다.

해는 스태튼아일랜드의 숲 너머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의 돛은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그 반사광이 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브리그선, 스쿠너, 요트, 갑판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둔중한 페리선들, 갈색·청색·흰색 화물칸을 줄줄이 실은 철도 수송선, 위풍당당한 롱아일랜드 사운드 항로 증기선들, 격이 떨어지는 부정기 화물 증기선들, 연안 운반선, 준설선, 평저 거룻배, 그리고 만 전체를 휘젓듯 사방을 들쑤시며 뻔뻔스레 김을 내뿜고 거만한 듯 기적을 울려대는 작은 예인선들—이 모든 배가 시야가 닿는 데까지 햇빛 받는 물결을 거품으로 흩뜨리고 있었다. 그 분주한 범선들과 증기선들의 부산함과는 차분히 대조를 이루며, 흰 군함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의 함대가 강 한복판에 소리 없이 멈춰 있었다.

콘스탄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나의 몽상을 깨웠다.

"뭘 그렇게 응시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루이가 우리에게 그 배들이 어떤 함정인지 일러주었다. 그는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있는 옛 레드 포트(붉은 요새)를 기준 삼아 각 배의 상대 위치를 일일이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 작은 시가 모양의 배가 어뢰정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바로 옆에 네 척이 더 모여 있죠. 타르폰, 팰컨, 시 폭스, 그리고 옥토퍼스입니다. 그 바로 위쪽에 있는 포함들은 프린스턴, 챔플레인, 스틸 워터, 그리고 에리고요. 그 옆에 정박한 것이 순양함 파라굿과 로스앤젤레스, 그 위쪽이 전함 캘리포니아와 다코타, 그리고 기함 워싱턴입니다. 캐슬 윌리엄 앞바다에 닻을 내린 저 땅딸막해 보이는 두 덩어리 금속이 이중 포탑 모니터함 테리블과 매그니피센트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충각함 오시올라입니다."

콘스탄스가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깊이 찬찬히 바라보았다.

"군인이라니, 그대가 아는 게 참으로 많군요."

그녀가 말하자, 이어진 웃음소리에 우리 모두 함께 웃었다.

루이가 일어나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콘스탄스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사라졌다. 호버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와일드 씨가 맞았어요." 그가 말했다. "'왕자의 문장' 갑옷의 누락된 타셋과 왼쪽 큐사르를 펠 스트리트의 지저분한 낡은 다락방에서 찾아냈습니다."

"998번?"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와일드 씨는 매우 지적인 분이군요." 내가 말했다.

"이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한 공로는 그에게 돌려야 합니다." 호버크가 계속 말했다. "그가 이 업적으로 명성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걸로 감사해하진 않을 거요."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아나?" 호버크가 물었다.

"아니, 오십 달러쯤 될까."

"이 부속만 해도 오백 달러 값어치는 됩니다. 그런데 '프린스의 문장' 갑옷의 소유주는 자신의 갑옷 한 벌을 온전히 완성해 주는 사람에

게 이천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지요. 그 보상 또한 와일드 씨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는 원치 않아요! 거절합니다!" 나는 분에 차 대답했다. "와일드 씨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부자입니다—아니, 곧 부자가 될 겁니다—나 말고는 이 세상 그 어떤 살아 있는 사람보다도 부유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돈 따위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그와 내가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그때가—"

"무엇을?" 호버크가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보게 될 거야." 내가 다시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가 날 날카롭게 내려다봤다. 아처 박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바로 그때 '미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오." 나는 그의 말하지 않은 생각에 대답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와일드 씨의 마음만큼이나 건강하죠. 지금 당장 제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금, 은, 보석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줄 투자입니다. 그것은 한 대륙, 아니 반구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호버크가 말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것은 온 세상의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와일드 씨의 그것들도 함께?"

"맞아요." 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어조 때문에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캐스틴 씨, 책과 공부는 포기하고 어딘가 산속을 떠돌아다니는 건 어때요? 당신은 예전에 낚시를 좋아했잖아요. 랭글리에서 송어를 몇 번 낚아보세요."

"이제 낚시는 더 이상 싫어." 나는 목소리에 조금의 짜증도 실지 않게 대답했다.

"너는 예전엔 모든 걸 좋아했지." 그가 이어서 말했다. "육상 경기, 요트, 사격, 승마 같은 것들 말이야."

"그 이후론 타는 게 싫어졌소."

"아, 그래, 네가 떨어진 일이지."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런 헛소리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화를 다시 와일드 씨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내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나를 몹시 불쾌하게 했다.

"와일드 씨," 그가 되뇌었다. "그가 오늘 오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계단을 내려와 제 방 옆 현관문 위에 표식을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표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성을 수리하는 와일드 씨. 세 번째 종소리."

"대체 '명성을 수리하는 자'라는 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네는 아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아," 그가 다시 말했다.

루이와 콘스탄스가 산책하며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함께 가지 않겠느냐 물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하버크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캐슬 윌리엄의 포대 총안에서 한 줄기 연기가 솟구쳤고, 일몰을 알리는 포성이 수면 위를 굴러가 맞은편 하이랜즈에서 메아리쳐 돌아왔다. 깃대에서 깃발이 스르륵 내려왔고, 군함들의 흰 갑판 위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저지 해변에서는 첫 번째 전등이 반짝이며 빛을 밝혔다.

하버크와 함께 시내로 들어서던 중, 나는 콘스탄스가 루이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루이는 "내 사랑"이라고 속삭이며 답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광장을 지나며 앞장서서 걸었는데, 이때 나는 "달콤한 사랑"과 "내 유일한 콘스탄스"라는 속삭임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내 사촌 루이와 나눌 시간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았다.

3

5월 초 어느 아침, 나는 침실의 강철 금고 앞에 서서 보석이 박힌 황금 왕관을 머리에 올려 보고 있었다.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불꽃처럼 타올랐고, 두텁게 두드려 만든 황금이 내 머리 주위에 후광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나는 카밀라의 고통에 찬 비명, 그리고 카르코사의 어스름한 거리를 메우던 끔찍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제1막의 마지막 대사였다.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봄볕이 내리쬐는 내 방 안에서, 익숙한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거리의 부산스러운 소음과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있는데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독이 든 말들은 임종의 식은땀이 시트 위에 떨어져 스며들 듯, 천천히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떨며 왕관을 머리에서 벗어 이마를 닦았다. 하지만 나는 하스터와 나의 정당한 야망을 떠올렸고,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와일드 씨의 모습—악마의 짐승의 발톱에 찢겨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 그리고 그가 했던 말—아,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금고 속의 경보 벨이 거친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빛나는 왕관을 다시 머리에 얹고 반항하듯 거울을 돌아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내 눈에 번지는 변화하는 표정에 깊이 빠져 있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내 얼굴과 닮았지만, 더 창백했고 너무 야위어서 나는 그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동안에도 나는 꽉 다문 치아 사이로 "때가 왔다! 때가 왔다!"를 거듭 되뇌었다. 그러는 사이 금고의 경보는 요란하게 울려댔고, 다이아몬드는 내 이마 위에서 반짝이며 타올랐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울에 두 개의 얼굴이 비쳐 보였을 때—내 어깨 너머로 또 다른 얼굴이 떠오르고, 또 다른 두 눈이 내 눈을 마주쳤을 때야 비로소 알아챘다.

나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화장대 위의 긴 칼을 집어 들었다. 사촌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힐드레드! 제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 손이 내려가자 그가 말했다.

"나야, 루이스. 나를 모르겠어?"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목숨이 걸렸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다가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이게 대체 뭐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몸이 안 좋니?"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내 말을 들었는지는 의문이다.

"자, 자, 친구." 그가 외쳤다. "그 황동 왕관 좀 벗고 서재로 들어가자. 가장 무도회에라도 가는 거야? 도대체 이 무대용 장식은 다 뭐냐?"

그가 이 관이 황동과 모조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를 달래주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그가 내 손에서 이 관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화려한 왕관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아 쥐고, 미소를 띠며 내게로 돌아섰다.

"오십 센이라니 비싼데." 그가 말했다. "무엇에 쓰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서 그 관을 받아들고 금고 속에 넣은 뒤 무거운 강철 문을 닫았다. 순간 지옥 같은 경보 소리가 멎었다.

그는 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경보가 갑자기 멈춘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다만 그는 금고를 두고 '비스킷 상자'라고 부르며 이야기했다. 그가 조합 번호를 살펴볼까 두려워 나는 앞장서서 서재로 들어갔다.

루이스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늘 들고 다니는 승마용 채찍으로 파리를 쳐냈다. 그는 금줄이 달린 재킷과 경쾌한 모자가 갖춰진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나는 그의 승마화가 온통 붉은 진흙으로 튀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있었소?" 내가 물었다.

"저지에서 진흙 개천을 뛰어넘다 왔어." 그가 말했다. "아직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 너를 좀 급히 만나러 왔거든. 한 잔 줄 거 없니? 죽을 만큼 지쳤어. 스물네 시간을 말 안장 위에 있었거든."

나는 약품 상자에서 브랜디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것을 마셨다.

"정말 썩은 물이군." 그가 말했다. "진짜 브랜디를 파는 곳을 알려주마."

"내 필요에는 충분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슴을 문지르는 데 쓰거든."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또 한 마리의 파리를 쳐냈다.

"여기 좀 봐, 친구." 그가 입을 열었다.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벌써 4년째 너는 올빼미처럼 이 집에 틀어박혀 있어. 밖으로 나가는 법도, 건강을 위한 운동도, 그리고 벽난로 위에 쌓아 둔 책들만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그가 책장의 책들을 죽 훑어보았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나폴레옹!"

그가 읽었다.

"맙소사, 너는 거기에 나폴레옹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금박으로 제본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잠깐, 맞다. 다른 책이 하나 더 있군. 『노란 옷의 왕』." 나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너는 그걸 읽어본 적이 없니?" 내가 물었다.

"나? 천만다행이다. 미쳐버리고 싶지 않아."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친놈'이라는 단어보다 더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미쳤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을 억누르고 그에게 물었다. 왜 그가 <노란 옷의 왕>을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했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 책이 불러일으킨 격분과, 강단과 신문에서 쏟아진 비난들만 기억나네요. 그 괴작을 세상에 내놓은 뒤 작가가 자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내가 알기로는 그는 아직 살아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가 중얼거렸다. "총알로는 저런 악마를 죽일 수 없지."

"그건 위대한 진리가 담긴 책이야."

"네," 그가 대답했다. "사람들을 광기 속으로 내모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진실'들에 관해서 말이야. 그것이 말하길 예술의

가장 높은 본질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것을 쓴 것은 범죄야.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그 페이지를 열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네가 오게 된 이유야?" 내가 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 온 거야."

잠시 동안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래." 그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와 결혼한다네."

"콘스탄스 호버크," 나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나도 지난 4월 어느 저녁, 저녁 식사 전 강변을 거닐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소."

"언제 열리나요?" 내가 물었다.

"다음 9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1시간 전, 우리 연대가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지디오로 이동하라는 전보가 도착했지. 내일 정오에 출정해. 내일," 그가 되뇌었다. "생각해 봐, 힐드레드. 내일이면 나는 이 즐거운 세상에서 숨 쉬는 자 중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야. 콘스탄스가 나를 따라올 테니까."

나는 축하의 의미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정말로 사람 좋은 바보인 양—혹은 그렇게 보이려 가장하는 양—내 손을 와락 붙잡아 흔들었다.

"결혼 선물로 내가 지휘할 기병중대를 받게 될 거야." 그가 신나게 떠들었다. "루이스 카스테인 대위와 그의 부인, 그래, 어떻게 들리니, 힐드레드?"

그러고 나서 그는 결혼식이 어디서 열릴지, 누가 올지 말해 주면서 내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약속하게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의 소년 같은 수다를 들으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에 찬 박차를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나직이 말했다.

"말해 봐. 약속했잖아."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 십오 분간 이야기하러 만나자."

"물론 원하시면요," 그가 말했다.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어디로?"

"어디든 좋소. 공원 안이면요."

"몇 시에, 힐드레드?"

"자정."

"도대체 무슨—" 그가 말을 시작하다 멈추더니 웃으며 동의했다. 나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사브르가 걸음마다 쾅쾅 부딪쳤다. 그가 블리커 거리로 꺾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콘스탄스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 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십 분을 기다린 뒤,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과 노란 표식이 수놓인 비단 가운을 챙겨 그의 발자취를 뒤따랐다. 블리커 거리로 꺾어 들어가, 다음과 같은 간판이 걸린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와일드 씨, 평판 수리공. 세 번째 벨.

나는 가게 안에서 노인 하버크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응접실에서는 콘스탄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을 모두 피해 떨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 와일드 씨의 아파트로 갔다. 나는 격식 없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와일드 씨는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갈가리 찢겨 있었다. 카펫 위에는 핏방울이 흩어져 있었고, 카펫 역시 방금 일어난 듯한 격렬한 싸움으로 찢기고 헤져 있었다.

"저 저주받은 고양이 때문이야." 그는 신음하는 것을 멈추고 창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잠든 사이 그녀가 나를 습격했어. 결국 나를 죽일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료품 저장실에서 도끼를 하나 집어 들고, 저 지옥 같은 짐승을 찾아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려 했다.

하지만 내 수색은 헛수고였다. 한참 뒤 나는 포기하고 돌아왔다. 와일드 씨는 책상 옆 높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옷도 갈아입은 상태였다. 고양이 발톱이 그의 얼굴에 새겨 놓은 깊은 골은 콜로디온으로 메워졌고, 목의 상처는 헝겊으로 가려져 있었다.

내가 고양이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저으며 앞에 펼쳐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평판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나갔다. 그가 모은 돈의 액수는 놀라울 정도였다.

“가끔씩 나사를 조여주곤 했어요.” 그가 설명했다.

“언젠가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을 암살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는 잘려나간 귀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와 논쟁해 봐야 소용이 없었기에, 나는 '미합중국 황조'라는 제목의 원고를 선반에서 내렸다. 와일드 씨의 서재에서 그 원고를 내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 나는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며 환희에 떨었다. 다 읽고 나자 와일드 씨는 원고를 받아 들고, 자기 서재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 쪽으로 몸을 돌리며 큰 소리로 '밴스.' 하고 외쳤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림자 속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고양이를 찾는 동안 어떻게 그를 못 보고 지나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밴스, 들어와." 와일드 씨가 외쳤다.

그 형체가 일어나 우리 쪽으로 기어왔다. 창문에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얼굴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밴스, 이쪽이 카스타뉴 씨일세.' 와일드 씨가 말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테이블 앞 바닥에 몸을 내던지며 울부짖고 헐떡였다. '오, 하나님! 오, 맙소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 카스타뉴 씨, 저 사람을 제게서 떼어 놓아 주세요. 설마,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지요! 당신은 다르잖아요—저를 구해 주세요! 저는 무너졌어요—저는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모든 일이 막 제자리를 찾아 가는데—제가 그 왕을, 노란 옷의 왕을 잊고 지내던 참인데—그런데—저는 다시 미칠 거예요—다시 미치고 말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캑캑거리는 거친 숨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와일드 씨가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남자의 목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밴스가 바닥에 풀썩 쓰러지자, 와일드 씨는 다시 민첩하게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가, 절단된 손의 그루터기로 짓이겨진 귀를 문지르며 나를 돌아보고는 원장(元帳)을 달라고 했다. 나는 선반에서 그것을 내려 건넸고, 그가 책을 펼쳤다. 아름다운 필체로 쓰인 페이지들을 잠시 뒤지더니, 그는 만족한 듯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밴스'라는 이름을 가리켰다.

'밴스,' 그가 큰 소리로 읽었다. '오스굿 오스왈드 밴스.' 자기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바닥에 엎드린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경련이 이는 얼굴을 와일드 씨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다. '4월 28일 호출됨,' 와일드 씨가 계속했다. '직업, 시포스 국립은행 출납계원. 싱싱 교도소에서 위조죄로 형기를 마쳤으며, 그곳에서 범죄 정신병자 수용소로 이감됨. 뉴욕 주지사의 사면을 받아 1918년 1월 19일 수용소에서 출소함. 시프스헤드 베이에서 평판이 손상됨. 수입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평판은 즉시 회복할 것. 착수금 1,500달러.'

'참고.—1919년 3월 20일 이후 총 3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함. 가문은 훌륭하며, 삼촌의 영향력으로 현 직위를 얻었음. 아버지는 시포스 은행의 행장(行長)임.'

나는 바닥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다.

'일어나게, 밴스.' 와일드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밴스는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일어섰다.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요.' 와일드 씨가 말하고는, 원고를 펼쳐 미합중국 황조의 역사 전부를 읽어 내려갔다. 이어 다정하고 다독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중요한 대목들을 밴스와 함께 짚어 보았는데, 밴스는 망연자실한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두 눈이 너무도 텅 비고 멍해 보여서, 나는 그가 반쯤 정신이 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여 와일드 씨에게 그 말을 했다. 그러자 와일드 씨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우리는 무척 끈기 있게 밴스에게 이 일에서 그가 맡을 몫이 무엇인지를 일러 주었고, 그는 얼

마쯤 지나자 알아듣는 듯했다. 와일드 씨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문장학(紋章學) 책 몇 권을 동원해 원고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카르코사에서 황조가 세워진 일과, 하스터와 알데바란을 잇는 호수들, 그리고 히아데스의 신비를 언급했다. 그는 카실다와 카밀라를 말했고, 뎀헤의 안개 자욱한 심연과 할리 호의 깊이를 측심하듯 더듬어 보였다. '노란 옷의 왕의 너덜너덜한 가리비 무늬 누더기가 이틸을 영원히 가려야 한다,' 그는 중얼거렸으나, 밴스가 그 말을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차 밴스를 황실 가문의 여러 갈래로 이끌어 갔다—우오트와 탈레로, 나오탈바와 진리의 환영을 거쳐 알도네스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음 원고와 메모를 한쪽으로 내던지고는 마지막 왕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매혹되어 전율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혔고, 긴 두 팔을 자긍심과 권능의 장엄한 몸짓으로 뻗었으며, 두 눈은 움푹한 눈구멍 속에서 에메랄드 두 알처럼 타올랐다. 밴스는 얼이 빠진 채 듣고 있었다. 나로 말하자면, 마침내 와일드 씨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를 가리키며 '왕의 사촌!' 하고 외쳤을 때, 흥분으로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억누른 뒤, 밴스에게 말했다. 왜 내가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왜 사촌이 추방되거나 죽어야 하는지 설명하며. 사촌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뒤에도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히 아본셔 후작의 딸과 결혼해 영국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그에게 깨닫게 했다.

와일드 씨가 작성한 수천 명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내가 보여줬다. 그 목록에 이름이 오른 모든 남자는 노란 표식을 받았다. 살아있는 인

간 중 그 표식을 무시할 용기를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도시도, 주(州)도, 온 땅도 모두 창백한 가면 앞에 떨며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때가 왔다. 사람들은 하스터의 아들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이 카르코사 하늘에 걸린 검은 별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

밴스는 책상에 기대어 고개를 두 손에 파묻은 채 가만히 있었다. 와일드 씨는 어제 자 _헤럴드_지 여백에 연필조각으로 대충 스케치를 하나 그렸다. 그것은 호버크의 방을 그린 평면도였다.

그가 명령서를 적어 완성하고 인장을 찍자, 나는 마비된 사람처럼 온몸이 떨렸다. 그 떨리는 손으로 '힐드레드-렉스'라는 이름을 적어, 첫 집행 영장에 서명했다.

와일드 씨는 바닥으로 기어 내려와 캐비닛의 자물쇠를 열고 첫 번째 선반에서 길고 네모난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로 가져와 열었다. 안에는 새 칼 한 자루가 박엽지에 싸여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칼을 집어 들고 명령서와 호버크의 아파트 평면도와 함께 밴스에게 건넸다. 그러자 와일드 씨는 밴스에게 이제 가도 좋다고 말했고, 밴스는 빈민가의 부랑자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떠나갔다.

나는 잠시 동안 주드슨 기념교회의 네모난 탑 뒤로 지는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원고와 노트를 챙겨 모자를 쓰고 문쪽으로 향했다.

와일드 씨는 침묵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현관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와일드 씨의 작은 눈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쪽,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그림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후 나는 문을 닫고 어두워지는 거리로 나섰다.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거리 건너편의 '레탈 챔버'를 바라보며 서 있던, 불쌍하고 반쯤 굶주린 한 생물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 불행한 사연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에게 돈을 건넸고, 그는 감사의 인사조차 없이 사라졌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쫓겨난 자가 다가와 투덜거리며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건넸다. 그 위에는 노란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더니, 불확실한 시선으로 나를 훑었다. 그리고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종이를 접어 자신의 가슴에 넣었다.

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빛나고, 그 아래로 레탈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광장에서 기다리는 일은 지루했다. 나는 마블 아치에서 대포병 창고까지 거닐다가 다시 로토스 분수로 돌아왔다. 꽃들과 풀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분수에서 물줄기가 달빛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리치는 소리는 하버크의 가게에서 들었던 사슬 갑옷의 딸랑거림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리 매혹적이지 않았다. 물 위에 번지는 달빛의 둔탁한 반짝임도, 하버크의 무릎 위에서 빛나던 흉갑의 광

택이 비추던 햇살 아래서 느꼈던 그 절묘한 쾌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분수 연못 위를 오가며 날아다니는 박쥐들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빠르고 경련처럼 튀는 비행은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나는 다시 그곳을 떠나, 나무들 사이를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며 거닐었다.

포병 마구간은 어두웠지만, 기병 막사의 장교 숙소 창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통용문에는 작업복 차림의 기병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었다. 그들은 짚과 마구(馬具), 그리고 양철 그릇이 가득 담긴 바구니들을 나르고 있었다.

내가 아스팔트 보도를 오가는 동안 정문의 기마 보초는 두 차례 교대되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막사의 불은 하나씩 꺼졌고, 빗장이 채워진 정문이 닫혔으며, 일이 분마다 한 명씩 장교가 옆쪽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장구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박차가 짤랑이는 소리를 밤공기에 남겼다. 광장은 매우 고요해졌다. 마지막 남은 노숙자마저 회색 외투를 입은 공원 경찰관에게 쫓겨났고, 우스터 거리를 따라 깔린 전차 선로 위에도 인적이 끊겼다. 정적을 깨는 것은 오로지 보초가 탄 말이 발굽을 구르는 소리와 그의 사브르가 안장 머리에 부딪쳐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막사 안 장교들의 숙소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군 당번병들이 출창(出窓) 앞을 오갔다.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의 새 첨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그 슬픈 음색의 종이 마지막으로 타종되는 순간, 한 인영이 내리닫이 격자문 옆의

쪽문을 빠져나와 보초의 경례에 답례하고는 거리를 건너 광장으로 들어와 베네딕 아파트 쪽으로 다가왔다.

"루이," 내가 불렀다.

그 남자는 박차가 달린 발꿈치로 빙그르르 몸을 돌려 곧장 나를 향해 다가왔다.

'자넨가, 힐드레드?'

"네, 당신은 제시간에 도착했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레탈 챔버를 향해 산책하듯 걸음을 옮겼다.

그는 결혼 이야기와 콘스탄스의 매력, 그리고 장래의 비전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대위 견장과 소매와 약모(略帽)에 새겨진 세 겹의 금색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그의 소년 같은 수다에 귀를 기울인 만큼이나 그의 박차와 사브르가 울리는 음악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듯하다. 마침내 우리는 사형실(Lethal Chamber) 맞은편 광장의 4번가 모퉁이에 있는 느릅나무들 아래에 섰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나에게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를 전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옆에 앉았다. 그는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의사들에게서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탐색하는 시선이었다. 나는 그 시선의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나는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래, 친구." 그가 물었다. "무엇을 도와줄까?"

나는 주머니에서 '아메리카 제국 왕조'의 원고와 메모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말해주마. 군인으로서의 네 맹세를 걸고, 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질문 한 마디 없이 읽겠다고 약속해라. 같은 방식으로 이 메모도 읽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해줘."

"네가 원한다면 약속하겠소."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종이를 주시오, 힐드레드."

그가 읽기 시작했다. 의아하고 변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올렸는데, 그 모습은 억눌린 분노로 내 몸을 떨게 했다. 읽어 나아갈수록 그의 눈썹은 좁혀졌고, 그의 입술은 '헛소리'라는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살짝 지루해 보였지만, 나를 위해 관심 있는 척하며 읽었고, 곧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는 빽빽이 적힌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자 움찔했고, 내 이름에 이르렀을 때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고 다시 읽기를 이어갔으며, 나는 그의 입가에 반쯤 형성된 질문이 답을 듣지 못한 채 사라지도록 두었다. 그가 끝에 다다라 와일드 씨의 서명을 읽었을 때,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나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메모를 건넸고, 그는 다시 의자에 기대 앉아 학교 시절 내가 그토록 잘 기억하던 소년 같은 몸짓으로 약모를 이마 위로 밀어 올

렸다. 나는 그가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을 주시했고, 다 읽었을 때 원고와 함께 메모를 거두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노란 표식이 그려진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는 그 표식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고, 나는 다소 날카롭게 그의 주의를 그 표식으로 돌렸다.

"그래, 내가 봤어. 그게 뭐야?"

"노란 표식이다." 나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게 답이군요." 루이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아처 박사가 나에게 쓰던, 나를 달래고 칭찬하는 어조였다. 만약 내가 그의 일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다시 그런 목소리를 사용했을 것이다.

나는 분노를 꾹 참으며, 가능한 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들어라. 너는 자신의 말을 지켰느냐?"

"듣고 있소, 친구." 그가 달래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아처 박사는 어떤 수단을 통해 제국 계승의 비밀을 알게 된 뒤, 내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4년 전 내가 말에서 떨어진 일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겼다고 주장했지요. 그는 감히 자기 집에 나를 가두어,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독살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를 찾아갔고, 그 만남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루이는 얼굴이 확 창백해졌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와일드 씨와 나를 위해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셋 있다. 내 사촌 루이, 호버크 씨, 그리고 그의 딸 콘스탄스다.”

루이가 벌떡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났고, 노란 표식이 적힌 종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아니, 내가 말하려는 바를 전하기 위해 그런 게 필요하진 않아.” 나는 승리의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너는 왕관을 내게 버려야 해. 들렸지? 내게.”

루이가 놀란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물론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지?”

“관(冠)이다.” 나는 격분하며 말했다.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네. 자, 친구, 네 방까지 같이 가주마.”

“의사들의 그 속임수를 내게 쓰지 마!” 나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무슨 헛소리야.” 그가 말했다. “자, 늦었어, 힐드레드.”

“아니,” 내가 외쳤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너는 결혼할 수 없어. 내가 금지한다. 들리는가? 내가 금지한다고. 너는 왕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너에게 추방을 허락한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격분했고, 긴 칼을 빼들며 그의 길을 막아섰다.

그때 나는 그에게, 그들이 지하실에서 목이 베인 채 아처 박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와 그 칼, 그리고 내가 서명한 명령을 생각하자,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 당신은 왕이오." 내가 외쳤다. "하지만 나도 왕이 될 것이오. 당신은 무엇이 되어 전 지구에 제국을 세우는 나를 막으려 하시오! 나는 왕의 사촌으로 태어났소. 하지만 나는 왕이 될 것이오!"

루이는 내 앞에 하얗게 질려 굳어 섰다. 그때 한 남자가 4번가를 달려 올라와 사형 신전(Lethal Temple)의 문을 들어서서는 청동 문까지 이어진 길을 전속력으로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친 자의 외침을 지르며 사형실(死刑室)로 몸을 던졌다. 나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다. 그 남자가 밴스임을 알아채고, 호버크와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내 길을 막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라!" 나는 루이를 향해 외쳤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너는 콘스탄스와 결혼할 수 없을 것이며, 망명지에서 다른 누구와 결혼한다면, 어젯밤 의사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찾아가리라. 와일드 씨가 내일 너를 맡을 것이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사우스 5번가로 뛰어들었고, 공포의 외침을 지르며 루이는 자신의 벨트와 사브르를 떨어

뜨린 채 바람처럼 나를 뒤쫓았다. 블리커 가(Bleecker Street) 모퉁이에서 그가 내 바로 뒤까지 따라온 소리가 들렸고, 나는 호버크의 간판 아래 문간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멈춰라, 안 그러면 쏜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내가 호버크의 가게를 아래에 두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본 그는 나를 두고 떠났고, 나는 그가 죽은 자를 깨우려는 듯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와일드 씨의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외치며 들어갔다. "끝났다, 끝났다! 열방이여 일어나 자신들의 왕을 보라!" 그러나 와일드 씨가 보이지 않아 나는 장식장으로 가서 그 상자에서 화려한 관을 꺼냈다. 그리고 노란 표식이 자수된 흰 실크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관을 얹었다. 마침내 나는 왕이 되었다. 하스터에서의 내 권리에 의한 왕, 하이아데스의 신비를 알기에 왕, 내 마음이 할리 호수의 깊이를 측량했기에 왕이었다. 나는 왕이었다! 새벽의 첫 회색빛 줄긋기가 두 반구(半球)를 뒤흔들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모든 신경이 최고조의 긴장에 놓인 채 내 생각의 기쁨과 광채에 어지러워하며 서 있을 때, 바깥 어두운 복도에서 한 남자의 신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양초를 집어 들고 문으로 뛰었다. 고양이가 악마처럼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양초는 꺼졌지만, 내 긴 칼은 그녀보다 더 빠르게 날아들었다. 나는 그녀의 비명을 들었고, 내 칼이 그녀를 맞혔음을 알았다. 잠시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구르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광란이 멈추자 나는 등불을 켜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와일드 씨가 목이 찢긴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지만, 보고 있는 사이 그의 움푹 들어간 눈에 녹색 불꽃이 떠올랐고, 절단된 손

이 떨리더니, 경련이 그의 입을 귀에서 귀까지 늘어뜨렸다. 잠시 나의 공포와 절망은 희망에 자리를 내주었으나, 내가 그에게 몸을 굽히자 그의 안구가 머릿속에서 한 바퀴 빙 돌더니, 그는 죽었다. 그러자 나는 분노와 절망에 못 박힌 채 서서, 내 왕관과 제국, 모든 희망과 야망, 그리고 내 생명 자체가 죽은 주인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_그들_이 다가와 뒤에서 나를 붙잡았고, 정맥이 밧줄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나를 묶었으며, 내 광적인 비명의 발작으로 목소리는 끊겨 버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피를 흘리며 그들 사이에서 분노에 차 있었고, 한 명 이상의 경찰관이 내 날카로운 이빨을 느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늙은 호버크를 보았고, 그 뒤로 사촌 루이의 끔찍한 얼굴을, 그리고 더 멀리 구석에서 한 여인, 콘스탄스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이제야 알겠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그대는 왕좌와 제국을 손아귀에 넣었군. 저주라니, 저주라니! 노란 옷의 왕의 관을 쓴 자여, 그대에게 재앙이 닥치리라!”

[편집자 주 — 카스티야뉴 씨는 어제 범죄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다.]

가면

카밀라: 선생, 당신은 가면을 벗으셔야 합니다.

"정말이오?"

카실다: “정말 시간이 됐소. 우리 모두 가면을 벗었지만, 당신만은 여전히 그걸 쓰고 있군요.”

"나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카밀라: (겁에 질려 카실다에게 속삭인다.) 가면이 없어? 가면이 없어!

노란 옷의 왕, 제1막 제2장

나는 화학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다.

그가 제네비브가 그날 아침 노트르담에서 가져온 백합 한 송이를 들어 물그릇에 떨어뜨렸다. 순식간에 액체는 결정처럼 맑던 투명함을 잃었다. 백합은 순백의 거품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품은 사라지고 액체는 오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표면에는 주황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며 춤을 추었다. 그러자 백합이 떠 있는 바닥에서 순수한 햇살 한 줄기가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손을 물그릇에 집어넣어 꽃을 건져 올렸다.

“위험은 없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올바른 순간을 고르면 말입니다. 그 황금빛 줄기가 신호입니다.”

그가 백합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백합은 돌로 변해 있었다. 가장 순수한 대리석으로 말이다.

“보시오,” 그가 말했다. “이것은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이를 재현할 수 있겠소?”

대리석은 눈처럼 희었다.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는 백합의 잎맥이 가장 옅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중심부 깊은 곳에는 희미한 홍조가 남아 있었다.

"그 이유를 묻지 말게." 그는 내 의아한 눈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왜 맥과 중심부가 늘 색이 드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항상 그렇다네. 어제 제네비브의 금붕어 한 마리를 시험 삼아 담가 봤지. 여기 있네."

그 물고기는 대리석으로 새긴 듯 보였다. 하지만 빛에 비추어 보니 돌 표면에는 옅은 푸른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흐르고 있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팔석 안에 잠든 분홍빛 같은 은은한 빛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나는 대야를 들여다보았다. 다시금 그것은 가장 맑은 수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지금 내가 그것을 만진다면?” 내가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은 햇살이 어디에서 비쳤는지입니다.”

“정확히 햇살처럼 보였지.” 그가 말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살아있는 것을 물에 담그면 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했다.

"아마도…… 아마도 그것은 생명체의 생기가 빠져나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라."

그가 조롱하는 기색을 보이자, 나는 완목봉(화가가 손을 받치는 막대)으로 그를 위협하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을 뿐, 화제를 돌렸다.

점심 식사라도 하세요. 제네비브가 곧 도착할 겁니다.

"그녀가 새벽 미사에 가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백합꽃처럼 상쾌하고 달콤해 보였죠. 당신이 그 꽃을 망치기 전의 모습처럼."

"내가 그것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나?" 보리스가 진지하게 물었다.

"망가졌는지, 보존되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완성되지 않은 '운명신' 군상 작업 근처, 스튜디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몸을 기댄 채, 조각가의 끌을 손끝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작업에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 "그 오래된 아카데미식 '아리아드네'를 다 마무리했어. 이제 살롱에 보내야겠지. 올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마돈나'가 가져다준 성공을 생각하면 이런 작품을 보내는 게 창피하군."

‘마돈나’는 제네비브가 모델로 서서 탄생한, 걸작 같은 대리석 조각이었다. 그 작품은 작년 살롱 전시에 출품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나는 아리아드네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기술적 완성도는 훌륭했지만, 보리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그에게 더 나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등 뒤 대리석에 반쯤 가려진 그 장엄하면서도 끔찍한 군상, ‘파르카(운명의 여신들)’를 완성해 그 살롱에 출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파르카’는 미룰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보리스 이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이었지만,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그를 우리 편이라 여겼고 그도 우리를 자기 편이라 여겼다. 보자르(에콜 데 보자르)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그저 ‘보리스’라고 불렀다. 그런데도 그가 똑같이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다. 잭 스콧과 나였다.

아마도 내가 제네비브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와 나의 친밀함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비록 우리 사이에서 그 사실이 언제든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정리되고, 그녀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는 보리스라고 말한 뒤,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축하했다. 그 만남이 지닌 완벽한 친근함은 우리 둘 다 속이지 못했다고 나는 믿는다. 비록 적어도 한쪽에는 큰 위안이 되었을지라도.

나에게는 보리스와 제네비브가 이 일을 서로에게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보리스는 알고 있었다.

제네비브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모 마리아 같은 순결함이 감돌았는데, 그 순수함은 구노의 미사곡에 나오는 '산투스'에서 영감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런 분위기를 거두고 우리가 부르던 '4월의 기습'으로 태도를 바꿀 때면 늘 안도했다. 그녀의 기질은 4월의 날씨처럼 자주 변덕스러웠다. 아침에는 진지하고 위엄 있으며 달콤했다. 정오에는 웃고,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렸다. 저녁이 되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의 성모 같은 고요함보다, 그토록 변덕스러운 그녀를 더 좋아했다. 그 고요함은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네비브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다.

"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알렉?"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내가 무얼 하겠어요? 그저 제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뿐입니다. 비밀은 저와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조각 예술에겐 큰 타격이 될 텐데. 사진술이 발전하면 화가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

보리스는 끌 끝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새로운 악의 발견이 예술계를 부패시킬 것이다. 절대,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겠소.”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물론, 나는 실리카가 포화 상태에 이른 온천수 때문에 그 안에 빠진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돌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리카가 식물성 물질을 하나하나의 원자 단위로 대체하여 돌로 된 복제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대의 화석들은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보리스는 혐오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주제를 조사했고, 우연히도 침수된 대상을 공격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용액을 발견했다. 이 용액은 몇 년이 걸릴 일을 단 한순간에 해냈다. 이것이 그가 방금 나에게 말한 기묘한 이야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생각하면, 나는 거의 공포에 질린다. 이 발견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미쳐버릴 것이다. 그것 또한 매우 단순했다. 스스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 공식과, 금속성 조각으로 침전된 그 새로운 원소를 생각하면—

"새로운 원소라니?"

“아니, 내가 이름을 지어줄 생각은 없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세상에는 이미 목을 베고도 남을 만큼의 귀금속이 넘쳐나니까.”

귀가 쫑긋 섰다. “금광을 찾았나, 보리스?”

“아니, 더 낫군. 하지만 봐, 알렉!” 그가 벌떡 일어나며 웃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잖아. 아, 벌써부터 너는 얼마나 음흉하고 탐욕스럽게 보이는지!”

나도 함께 웃으며, 내가 금에 대한 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네비브가 곧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연금술에 등을 돌린 뒤였다.

제네비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회색 옷을 입었다. 그녀가 보리스에게 고개를 돌릴 때, 부드러운 금발 곡선 위로 빛이 번쩍였다. 그러자 그녀가 나를 보고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예전에는 항상 하얀 손가락 끝으로 나에게 키스를 날려 주곤 했다. 나는 그 누락을 곧장 불평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내 손에 닿기도 전에 거의 떨어졌다. 그러자 그녀는 보리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렉에게 점심 식사에 머물러 달라고 해.” 이것도 새로운 일이었다. 오늘까지 그녀는 늘 직접 나에게 청해 왔으니까.

"이미 청했어." 보리스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승낙했죠? 그러길 바라요." 그녀가 나를 향해 매력적이지만 형식적인 미소를 띠며 물었다. 나는 마치 그저께 막 인사를 튼 면식 정도의 사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영광이었습니다, 마담." 하지만 그녀가 평소의 장난스러운 어조를 받아 주지 않고, 의례적인 환대의 말을 중얼거린 채 사라져 버리자, 보리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렇지?” 내가 물었다.

"낸들 알겠나."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나의 퇴장이 현명한지 논의하던 중, 제네비브가 모자를 벗은 채 문간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얼굴빛이 지나치게 깊었고 사랑스러운 눈동자는 너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내게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점심 준비됐어요. 제가 좀 성가셨나요, 알렉?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보리스, 여기 와요.”

그녀는 다른 팔로 보리스의 팔을 감싸 안았다.

“알렉은 당신 다음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소외감을 느껴도, 그건 그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 참 잘됐군!" 내가 외쳤다. "4월에는 뇌우가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

“준비됐니?” 보리스가 외쳤다.

“응, 준비됐어.”

우리는 팔을 끼고 식탁으로 달려갔다. 하인들은 깜짝 놀라 경악했다. 하지만 우리를 탓할 일도 많지 않았다. 제네비브는 열여덟, 보리스는 스물세, 나는 스물한 살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II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종종 꿈에서 노란 옷을 입은 인물을 보았다. 그는 항상 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만이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아는 눈이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눈빛에 끌려갔다.

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는 항상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을 뒤지고, 고서점을 돌며, 그 연극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연극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연극을 다시 보기를 원했다. 나는 그 노란 옷을 입은 인물을 다시 보고 싶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 연극을 다시 보기 위해, 다시 그 극장에 갔다. 하지만 극장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극장 앞에서 서성였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연극을 볼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 노란 옷을 입은 인물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종종 꿈에서 그 인물을 보았다. 그는 항상 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만이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눈빛에 끌려갔다. 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침묵을 지켰다.

이 무렵 제네비브의 규방 장식을 위해 내가 진행 중이던 작업 덕분에, 나는 생트세실 거리의 그 아담한 작은 저택에 줄곧 머무르게 되었다. 그 시절 보리스와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즉 변덕스럽게 일했고, 우리 셋은 잭 스콧과 함께 자주 어울려 빈둥거리곤 했다.

한적한 오후, 나는 집 안을 혼자 거닐며 이색적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구석구석 기묘한 곳까지 파고들며 숨겨진 사탕과 시가를 꺼내던 나는, 마침내 목욕실로 발걸음을 멈췄다.

흙투성이가 된 보리스가 그곳에 서서 손을 씻고 있었다.

방은 바닥을 제외하고 모두 장미빛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바닥은 장미빛과 회색 돌로 정교하게 깔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바닥보다 낮은 곳에 네모난 연못이 파여 있었다. 계단이 연못 속으로 내려갔고, 조각된 기둥들이 벽화 장식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방 윗쪽 끝의 받침대 위에는 사랑스러운 대리석 큐피드가 내려앉은 듯 보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은 보리스와 내가 함께 만든 것이었다. 보리스는 흰색 작업복을 입은 채, 손에서 점토와 붉은 색 모델링 왁스 자국을 닦아내며 뒤돌아보고는 큐피드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를 보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는지 너는 알고 있다, 작은 속임수쟁이!"

이 대화에서 큐피드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은 늘 내 몫이었다.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보리스가 내 팔을 붙잡아 연못 쪽으로 끌어당기며, 나를 물에 빠뜨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내 팔을 놓아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그가 말했다. "연못에 용액이 가득 차 있다는 걸 깜빡했군!"

나는 오한이 살짝 일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귀중한 액체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라고 냉정하게 충고했다.

“하느님 이름으로, 어째서 그런 끔찍한 것이 여기, 이 장소에 작은 호수처럼 남아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나는 무언가 거대한 것을 가지고 실험해 보고 싶어.” 그가 대답했다.

“나에게, 예를 들어?”

“아, 그건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 가까운 이야기였군. 하지만 나는 그 용액이 더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어. 저기 흰 토끼가 있잖아.” 그가 나를 따라 작업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잭 스콧이 페인트 자국이 묻은 재킷을 입은 채 어슬렁어슬렁 들어와, 손 닿는 데 있던 동양식 사탕을 모조리 챙기고 담뱃갑까지 털어가더니, 결국 보리스와 함께 뤽상부르 미술관으로 사라졌다. 그곳에서는 로댕의 새 은빛 청동상과 모네의 풍경화 한 점이 프랑스 예술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업실로 돌아가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제네비브의 규방을 위해 보리스가 내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르네상스풍 가리개였다. 그러나 마지못해 여러 자세를 취하며 시간을 끌던 어린 소년이, 오늘은 얌전히 있어 달라는 어떤 뇌물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순간도 같은 자세로 머물지 않았고, 5분 만에 나는 그 어린 녀석의 윤곽선만 다섯 가지나 그려야 했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건가, 친구?" 내가 물었다.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나는 그날은 그를 돌려보냈고, 물론 전체 시간만큼의 급료를 지불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델들을 응석받이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어린 악귀가 사라진 뒤, 나는 허투로 붓을 몇 번 휘둘러 보았지만 기분이 완전히 상해 있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데 오후 내내 걸렸다. 결국 팔레트를 긁어내고, 붓을 검은 비누가 담긴 그릇에 꽂아 넣은 채, 담배방으로 나갔다.

제네비브의 거실을 제외하면, 이 집 어디보다도 이 방은 담배 냄새가 덜했다. 이곳은 기이하게도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린 곳으로, 닳아빠진 태피스트리가 벽을 덮고 있었다. 창가 근처에는 소리가 달콤한 오래된 스피넷이 잘 손질된 채 놓여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인도와 터키식 갑옷이 화환처럼 걸려 있었고, 구식이고 무딘 무기들과 새롭고 빛나는 무기들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다. 몇 점의 훌륭한 그림과 파이프 거치대도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흡연의 쾌감을 찾곤 했다. 그 거치대에는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파이프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파이프 하나를 고르면 우리는 곧장 다른 곳으로 가져가 피웠다. 이 방은 집안 다른 곳보다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오후의 황혼은 매우 달콤했다. 바닥에 깔린 러그와 가죽들은 갈색으로 물들어 보드랍고 졸린 느낌을 주었다. 큰 소파에는 베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파이프를 찾아 소파에 몸을 말아, 담배방에서 드물게 담배를 피웠다. 나는 긴 유연한 줄이 달린 파이프를 고르고, 불을 붙이자 곧 몽롱해졌다.

잠시 후 파이프가 꺼졌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곧 잠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슬픈 음악을 듣게 되었다. 방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는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없었다. 달빛 한 줄기가 오래된 스피넷의 한 모서리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광택이 난 나무는 마치 상자의 샌달우드 향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듯, 소향을 내뿜는 것 같았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일어나 조용히 울며 사라져 갔고, 나는 바보처럼 "제네비브!"라고 외쳤다.

내 목소리에 그녀는 풀썩 주저앉았고, 나는 불을 켜고 그녀를 바닥에서 일으키려는 사이 스스로를 저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몸을 움츠리며 피했다. 그녀는 매우 조용했고, 보리스를 찾아 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긴 의자로 옮긴 뒤 그를 찾으러 나갔지만, 그는 집에 없었고 하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다.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서둘러 제네비브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내가 두고 간 그대로 누워 있었고, 얼굴빛이 매우 창백했다.

"보리스도, 하인들 중 누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알아요." 그녀가 희미하게 대답했다. "보리스는 스콧 씨와 함께 엡트로 갔어요. 방금 당신을 그를 찾으러 보낼 때는 그 사실을 깜빡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친구는 내일 오후 전에는 돌아올 수 없겠군요. 그런데—다치셨어요? 제가 놀라게 해서 넘어지신 건가요? 정말 한심한 놈이군요. 하지만 저는 반쯤 잠에 취해 있었어요."

"보리스는 당신이 저녁 식사 전에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여기서 머물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낮잠을 잤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나 깊이 잠들었는지, 나를 향해 다가오는 형체를 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도 내가 아직 잠에 잠겨 있는 건지 깨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오래된 스피넷을 만져 보셨나요? 아주 조용하게 치셨던 모양이군요."

그녀의 얼굴에 찾아온 안도의 미소를 보기 위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거짓말을 천 번쯤은 지어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랑스럽게 웃으며, 평소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렉, 그 늑대 머리 때문에 발을 헛디뎠어.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아. 마리를 불러주고, 그다음에는 집으로 가줘."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하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를 그곳에 두고 나왔다.

III

나는 카밀라와 함께 카르코사를 보았다.

다음 날 정오에 내가 찾아갔을 때, 보리스는 자기 작업실 안을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제네비브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발목 염좌는 별일 아니지만, 왜 이렇게 열이 높을까요? 의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혹은 설명하려 하지 않는지도요." 그가 중얼거렸다.

"제네비브에 열이 난다니?" 내가 물었다.

"그야 당연하지. 그녀는 밤새 간간이 어지러움을 호소했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세상사에 근심 하나 없는 유쾌한 제네비브가, 자기는 마음이 찢어졌다고, 죽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니!"

내 심장도 멈춰 섰다.

보리스는 작업실 문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숙였다. 손은 주머니에 쑤셔 넣고,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웠던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입가의 선이 곱게 그려진 자리에 새로운 근심의 주름이 지어졌다. '웃음의 흔적 위에'.

게네비브의 눈이 뜨자마자 그를 부르라는 지시를 하녀에게 내린 상태였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러나 보리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모델링 왁스와 붉은 점토를 만지며 안절부절못했다.

그가 갑자기 옆 방으로 향했다.

"와서 내 장미빛 목욕탕에 가득 찬 죽음을 봐!" 그가 외쳤다.

"죽음인가요?" 나는 그의 기분을 달래 주려 물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이르겠지." 그가 대답했다. 말을 하면서 그는 유리 구슬 안에서 몸부림치는 금붕어 한 마리를 꺼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자.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열광적인 흥분이 담겨 있었다.

그를 따라 분홍빛 빛깔이 감도는 맑은 수정 연못가로 갈 때, 나는 온몸과 뇌리에 무거운 열기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생물을 물속에 떨어뜨렸다.

물이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금붕어의 비늘은 분노에 찬 몸짓으로 뜨거운 오렌지빛 광채를 뿜어냈다. 물에 닿는 즉시 그 몸은 굳어 버렸고,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표면에는 찬란한 색채들이 퍼져 나갔다. 그러자 무한한 심연에서 순수하고 고요한 빛의 기둥이 뚫고 올라왔다.

보리스는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손에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을 꺼냈다. 푸른 맥이 흐르고, 장미빛이 감돌며, 오팔빛 방울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 장난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지친 눈빛으로, 그리고 간절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라도 있는 양.

하지만 잭 스콧이 들어와 '게임'이라 부르던 것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지금 당장 그 흰 토끼로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보리스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았지만, 나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기를 잃는 것을 보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거절했다.

무작위로 책을 한 권 집어 들고, 나는 작업실에 앉아 독서에 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_노란 옷의 왕_을 손에 쥐고 말았다. 몇 순간이 지나갔다. 그 순간들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신경질적인 전율과 함께 책을 치우려 했다.

그때 보리스와 잭이 대리석 토끼를 들고 들어왔다. 동시에 위층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병실에서는 비명이 들려왔다. 보리스는 번개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곧이어 그가 외쳤다.

"잭, 의사 좀 부르러 가. 데려와. 알렉, 여기 와."

나는 그녀의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놀란 하녀가 급히 나와서 무언가를 가져오러 달아났다.

제네비에브는 곧추 앉아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뺨과 빛나는 눈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중얼거렸고, 보리스의 다정한 제지를 뿌리쳤다. 그가 나를 도와달라고 부른 것이다.

내가 처음 손을 댔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뒤로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그리고는—우리가 여전히 그녀 위에 몸을 굽힌 채 서 있을 때, 그녀는 눈을 다시 떴다. 그리고 보리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불쌍한 열병에 미친 소녀여!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의 삶은 새로운 강물로 흘러들었다. 우리를 오랫동안 묶어왔던 끈은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끈이 만들어졌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열병이 그녀를 괴롭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숨겨둔 슬픔의 짐을 쏟아냈다.

놀람과 경악에 휩싸인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살아 있는 숯처럼 타올랐고, 귀에는 피가 밀려들었다. 그 굉음에 나는 멍해졌다.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채, 나는 수치심과 슬픔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열병 같은 말을 들었다.

나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보리스를 바라볼 수도 없었다.

그때 내 어깨에 한 팔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보리스가 창백해진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네 탓이 아니야, 알렉.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면 슬퍼하지 마라—"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의사가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오며 "아, 고열이군!"이라고 말했다. 나는 잭 스콧을 붙잡아 거리로 재촉했다. "보리스는 혼자 있고 싶어 하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거리를 건너 우리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도 곧 병들 것임을 느낀 잭은

다시 의사를 부르러 나갔다. 내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잭이 외치는 소리였다. “하느님, 도대체 저게 무슨 병이길래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요?” 그때 나는 《노란 옷의 왕》과 창백한 가면을 떠올렸다.

나는 심하게 아팠다. 그 운명적인 5월 아침 이후로 내가 견뎌낸 두 해의 긴장이 마침내 나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날 제네비브는 속삭였다. “사랑해요. 하지만 보리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여 왔다.

밤마다 내면의 전쟁은 격렬하게 치열했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보리스에 대한 불충실함과 제네비브의 품에 어울리지 않는 반역적인 생각들을 품은 자신을 저주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항상 안도감이 찾아왔다. 밤의 폭풍우에 마음이 씻겨 나간 채, 나는 다시 제네비브와 사랑하는 보리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나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자아 기만의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밤이 깊어지면 가면이 벗겨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나뿐이었다. 해가 뜨자 가면은 제 힘으로 다시 얼굴을 덮었다.

병상에 누워 난 이런 생각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백색의 생물들, 돌처럼 무거운 그것들이 보리스의 세숫대야를 기어 다니는 환상들과 엉켜 있었다. 양탄자 위의 늑대 머리도 보였다. 그것은 거품을 흘리며 제네비에브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제네비에브는 그 옆에 누워 미소 짓고 있었다.

또 노란 옷의 왕이 생각났다. 너덜너덜한 망토의 기묘한 색감에 싸인 채로. 그리고 카실다의 그 쓰디쓴 외침, "우리에게는 마소서, 오 왕이여, 우리에게는!"

열에 들뜬 채 나는 그 환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할리의 호수가 보였다. 얇고 텅 빈, 물결 하나, 바람 하나 없는 호수. 그리고 달 뒤로 카르코사의 탑들이 보였다. 알데바란, 히아데스, 알라르, 하스터가 구름 틈을 지나갔다. 구름은 스쳐 지나갈 때마다 펄럭이며 노란 옷의 왕의 가리비처럼 잘린 너덜너덜한 조각들처럼 나부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이성적인 생각은 견고하게 남아 있었다.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보리스와 제네비에브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보호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큰 위기를 견뎌내는 지지처럼 보였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무게는 오직 나에게만 지워졌다. 나는 병들거나 약해져도, 온 영혼을 다해 그 요구에 응답했다.

내 주변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지만, 몇몇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보리스도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안다. 적어도 한 번은 그가 내 위로 몸을 굽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손길이었고, 그의 목소리의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러자 안개가 다시 내 의식을 덮었고, 나는 그를 놓아버렸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적어도 한 번은 거기 서서 내 위로 몸을 굽혔다.

드디어 어느 아침, 나는 깨어났다. 햇살이 내 침대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잭 스콧이 내 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목소리를 내어 말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생각할 여유도, 더구나 기억해 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잭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나는 연약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간절하게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냐?"

"네…… 보리스."

그렇게 속삭일 수 있었다. 잭은 내 머리맡으로 다가와 베개를 고쳐 주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기다려야 해, 알렉. 너는 보리스를 볼 만큼 힘이 나지 않아."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면 나는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 사이 나는 생각에 잠겼고 기억을 더듬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되살아난 순

간부터, 나는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보리스도 자기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결심을 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오직 나만의 문제라면, 그 또한 내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볼 것임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왜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는지 묻지도 않았다. 일주일 내내 그곳에 누워 기다리며 회복해 가는 동안, 그들의 이름이 한 번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은 이유 또한 묻지 않았다.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내 안의 고뇌와, 약하지만 결연하게 절망과 맞서는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잭이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내가 미쳐 날뛰며 그들을 만나겠다고 고집할까 봐 말을 아끼는 것이라 그저 받아들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거듭 물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시작될 때, 과연 어떨까? 우리는 제네비에브가 아파하기 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리라. 보리스와 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볼 것이다. 그 시선에는 원한도, 비겁함도, 불신도 없으리라. 나는 잠시 동안, 그들의 집이 주는 친밀함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런 핑계나 설명 없이,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보리스는 알 것이다. 제네비에브는—유일한 위안은 그녀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내내 느껴왔던 그 의무감의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았다. 그래서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나는 잭을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잭, 보리스를 당장 불러오게. 그리고 제네비에브에게 내 깊은 안부를 전해주게……"

드디어 그가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내게 깨닫게 했을 때, 나는 광란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 분노는 간신히 회복되려던 나의 체력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 버렸다.

나는 헛소리를 하며 자신을 저주했고, 그 결과 병은 다시 재발했다. 몇 주 후, 나는 기어 나와 일어섰다. 스물한 살의 소년이었지만, 나는 내 청춘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잭이 내게 편지와 보리스의 집 열쇠를 건넸다. 나는 떨림 하나 없이 그것을 받아 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잔인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잭은 지친 듯 가느다란 손에 기대어, 다시 한번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가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알렉, 내가 모르는 어떤 단서가 너에게 없는 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 역시 나만큼이나 설명하지 못할 거야.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리라는 건 짐작하지만, 너는 알아야만 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었겠지. 신만이 아시지, 나라도 이걸 말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짧게 말하겠네.

"그날, 의사의 보살핌 아래 너를 두고 내가 보리스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운명' 조각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가 말하기를, 제네비에브는 약

물의 영향으로 잠들어 있다고 했어. 그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다고도 했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작업에만 매달렸고, 나는 그를 지켜보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군상의 세 번째 형상—정면을 응시하며 세상을 향해 내다보는 그 형상—이 그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지. 그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 이건 내가 꼭 설명을 찾고 싶은 한 가지이지만, 결코 찾지 못할 거야.

"그는 일했고, 나는 침묵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자정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이어서 옆방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보리스가 문간으로 뛰쳐나왔고, 나도 뒤를 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두 손은 가슴 위에 얹힌 채였다. 그러자 보리스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총을 쏘았다."

잭이 말을 멈췄다. 그의 눈 밑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가는 볼살이 경련처럼 떨렸다.

"나는 보리스를 그의 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지옥 같은 액체를 연못에서 빼냈다. 그리고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 대리석에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냈다. 마침내 내가 계단을 내려갈 용기를 냈을 때, 그녀는 눈처럼 하얗게 변한 채 그곳에 누워 있었다.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 뒤, 나는 실험실로 들어갔다. 먼저 세척대에 있던 용액을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그 뒤로는 모든 병과 항아리의 내용물을 차례로 따라 넣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있었기에 불을 피우고, 보리

스의 캐비닛 자물쇠를 부수어 안의 모든 서류와 노트, 편지를 태웠다. 작업실의 망치로 빈 병들을 모두 산산조각 낸 뒤, 석탄통에 담아 지하실로 가져가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의 바닥에 던져 넣었다. 여섯 번이나 그 길을 오갔다. 마침내 보리스가 찾아낸 공식을 다시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의사를 부를 용기를 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하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시골로 보냈다. 그곳에서는 늙은 로지에가 보리스와 제네비에브가 머나먼 땅을 여행 중이며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보리스를 세브르의 작은 묘지에 안장했다. 의사는 자비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를 언제 동정해야 하는지 아는 이였다. 그는 심장병 진단서를 써주었고, 나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

"편지를 열어라, 앨릭. 우리 둘 다의 편지니까."

나는 봉투를 찢어 열었다. 안에는 보리스가 1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제네비브에게 물려주었다. 만약 그녀가 자손 없이 죽는다면, 나는 생테세실 거리(Rue Sainte-Cécile)의 저택을 관리하고, 잭 스콧은 엡트(Ept)의 경영을 맡게 되어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이 죽은 뒤에는 재산이 모두 러시아에 있는 그의 모친 쪽 친족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그가 직접 제작한 조각 대리석들은 예외였다. 그것들은 나에게 유증되었다.

페이지가 눈앞에서 흐려졌다. 잭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는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기 두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그윽한 단순함과 온화함으로 말을 건넸다.

제네비브가 대리석 방에서 마돈나 앞에 누워 있다. 마돈나가 그녀 위로 다정하게 몸을 굽혀 내밀고, 제네비브는 그 차분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얼굴은 오직 그녀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용기를 가져라, 알렉."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엡트로 떠났다.

IV

그날 저녁, 나는 열쇠를 들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침묵은 끔찍할 정도였다. 나는 대리석 방 문 앞을 두 번이나 지나쳤지만, 결국 그 안으로 들어서는 힘을 낼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나는 흡연실로 들어가 스피넷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는 작은 레이스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나는 숨이 막혀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과 창문, 그리고 앞뒤의 세 개 문을 모두 잠그고 그 집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알시드가 내 짐을 쌌다. 그는 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나는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탔다. 동방을 떠돌던 2년 동안, 처음에는 편지에서 우리는 제네비브와 보리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이름이 편지 속에 스며들었다. 잭의 편지 중 하나를 기억한다.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는데, 그중 한 구절이 특히 선명하게 떠오른다—

"보리스가 네가 앓아눕는 동안 네 위에 굽어앉아 있고, 그의 손길이 네 얼굴을 더듬으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것은, 물론 나를 불안하게 한다. 네가 묘사한 그 일은 그가 죽은 지 보름쯤 뒤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네가 꿈꿨던 것일 뿐, 혼수 상태의 일부였다고 말하지만, 그 설명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네가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인도에 있는 내게 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편지여서, 나는 즉시 파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쓴 내용은 이랬다.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돈이 필요 없는 화가들이 하듯 그림을 모두 팔고 있다. 내게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걱정거리가 있는

것보다 더 초조하다. 너에 대한 묘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숨 막히는 기다림에 가깝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나는 그저 이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밤이면 늘 너와 보리스의 꿈을 꾼다. 그 후로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리고 낮 내내 그 흥분이 고조되어, 밤이 되면 다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며 잠이 든다. 나는 이로 인해 완전히 지쳐 버렸고, 이 병적인 상태를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너를 만나야 한다. 봄베이로 갈까, 아니면 네가 파리로 올까?"

나는 다음 증기선으로 도착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그에게 전보를 쳤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고집했다. 다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우리는 앉아 아직 우리 앞에 놓인 삶에 대해 수다를 떨며, 밝은 봄날에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느꼈다.

우리는 파리에서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 엡트(Ept)에 갔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세브르(Sèvres)의 묘지로 갔다. 보리스가 거기에 묻혀 있었다.

"그 위 작은 숲에 '운명'들을 모실까요?" 잭이 물었다. 내가 답했다.

"보리스의 무덤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마돈나'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귀환은 잭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가장 미미한 윤곽조차 기억해 내지 못했던 꿈들을 꾸곤 했다. 때로 그는 숨이 턱 막힐 듯한 긴장감이 그를 짓누른다고 말했다.

"보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오. 이로운 일은 하나도 없소. 저 없이 어디 좀 다녀보시오."

그는 혼자 채널 제도를 거닐러 떠났다. 나는 파리로 돌아왔다.

돌아온 뒤로 보리스의 집, 이제 내 집이 된 그곳에 들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잭이 집안을 잘 정리해 두었고, 하인들도 있었기에, 나는 내 아파트를 비우고 그곳으로 이사해 살기로 했다.

내가 두려워했던 동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평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나는 집 안의 모든 방을 돌아다녔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제네비브가 누워 있는 대리석 방에는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곁에 무릎 꿇고 앉아보고 싶은 갈망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어느 사월 오후, 나는 흡연실 바닥에 누워 몽롱한 꿈에 빠져 있었다. 정확히 이 년 전과 같은 자세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황토빛 동양식 카펫을 훑어보며 늑대 가죽을 찾았다.

마침내 나는 뾰족한 귀와 평평하고 잔인한 머리를 알아보았다. 그때 나는 그 가죽 곁에 제네비브가 누워 있던 꿈을 떠올렸다.

벽에는 여전히 투구들이 걸려 있었다. 낡아빠진 태피스트리 사이로, 그중에서도 우리가 옛 갑옷 조각들을 가지고 장난치던 날 제네비브가 써보던 고대 스페인식 모리온 투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 시선은 스피넷(소형 하프시코드)으로 향했다. 노란색 건반 하나 하나가 그녀의 다정했던 손길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일어서서, 내 인생의 열정이 가진 힘에 이끌려 봉인된 대리석 방의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무거운 문이 떨리는 내 손 아래에서 안쪽으로 열렸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큐피드의 날개에 금빛을 입혔고, 마돈나의 이마 위에는 후광처럼 머물렀다.

그녀의 자비로운 얼굴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순수한 대리석 형상 위로 가엾이 굽어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제네비브는 마돈나 아래 그림자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하얀 팔 사이로, 나는 희미한 남빛 정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맞잡힌 그녀의 손 아래, 드레스의 주름에는 장미빛이 감돌았다. 마치 그녀의 가슴속에서부터 희미하고 따뜻한 빛이 새어 나오는 듯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나는 고개를 숙여 대리석 휘장에 입술을 댔다. 그러고는 다시 조용한 집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 여종이 찾아와 편지를 건넸다. 나는 작은 온실에 앉아 편지를 읽으려 앉았다. 그러나 봉인을 뜯으려던 찰나, 그 여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집에서 잡힌 하얀 토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 토끼를 집 뒤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에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편지를 열었다. 잭으로부터 온 편지였지만,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어 그가 미쳐버린 것 같았다. 편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 같은 문장들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 꿈들 때문이라고만 했다. 그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내가 뤼 생트세실 거리에 있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만은 가지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눈을 들어 보니, 같은 하녀가 출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유리 접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두 마리의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그것들을 다시 수조에 넣어라. 그리고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녀는 반쯤 억누른 흐느낌 소리를 내며, 온실 끝자락에 놓인 수족관에 물과 물고기들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며 사직을 허락해 줄 것을 청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분명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라고. 대리석 토끼가 사라지더니 살아 있는 토끼가 집안에 들어와 있었고, 예쁜 대리석 물고기 두 마리도 없어졌는데, 방금 식당 바닥에서 그 평범한 살아 있는 것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켜 돌려보내며,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작업실로 들어갔다. 안에는 내 캔버스들과 몇몇 석고상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부활절 백합의 대리석상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방 건너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나 내가 테이블에서 집어 든 그 꽃은 싱싱하고 연약했으며, 공기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대리석 방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쾅 하고 열렸고, 햇살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그 빛 속에서 마돈나가 천상의 영광을 머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제네비브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대리석 안락의자에서 들어 올리고, 졸린 눈을 떴다.

용의 궁정에서

"오, 지옥에서 타는 자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타오르는 자여, 그 불길에 그대 자신도 차례로 땔감이 되리라. 언제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

푸소서, 하느님!' 하고 부르짖으려는가?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가르치려 들고, 그분이 누구이기에 배워야 한단 말인가?"

생 바르나베 성당에서 저녁 기도(베스페르)가 끝났다. 성직자들이 제단에서 물러나고, 어린 복사들이 성가대석을 가로질러 몰려와 좌석에 자리잡았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수위(Suisse) 한 사람이 남쪽 측랑을 따라 행진하며, 네 걸음마다 돌바닥에 지팡이를 내려쳐 울림을 더했다. 그 뒤로는 설교의 달인이자 선한 사람으로 알려진 몬시뇰 C—가 따라왔다.

내 의자는 성가대 난간 근처에 있었다. 나는 이제 교회 서쪽 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제단과 설교단 사이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돌렸다. 신도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작은 긁는 소리와 옷깃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설교자가 설교단 계단을 올라섰고, 오르간 독주곡은 멈췄다.

나는 늘 생 바르나베 성당의 오르간 연주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 연주는 학식 있고 과학적이었다. 내 작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차갑더라도 생생한 지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은 프랑스 특유의 미감을 지니고 있었다. 미감이 군림하는 곳이었다. 자제된, 위엄 있는, 그리고 침묵하는 미감.

하지만 오늘은 처음 울린 화음에서부터, 나는 좋지 않은 변화, 불길한 변화를 느꼈다.

저녁 기도 시간 동안 아름다운 합창단을 지탱한 것은 주로 성가대석 쪽의 오르간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마치 제멋대로인 듯, 거대한 오르간이 서 있는 서쪽 갤러리에서 어떤 묵직한 손이 맑은 목소리들의 고요한 평화를 가로질러 후려치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거칠고 불협화음인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 소리가 거듭 반복되자, 나는 건축가의 책에서 읽었던 옛 관습이 떠올랐다. 옛날에는 성가대석이 지어지자마자 그곳을 축성하는 풍습이 있었고, 본당(회중석)은 때로 반세기 후에나 완성되어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생 바르나베 성당도 그런 경우였을까? 그리고 기독교 성당에는 평소 머물러 있을 법하지 않은 무언가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서쪽 갤러리에 침투해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건축학 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생 바르나베 성당이 지어진 지 백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중세의 미신과 밝고 경쾌한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작은 건물을 결부시킨 그 어울리지 않는 연상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베스퍼가 끝났다. 설교를 기다리는 동안 명상을 돕기에 알맞은 고요한 화음 몇 마디가 이어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직자들이 물러나자, 교회 하단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를 막을 수 없는 듯했다.

나는 예술 속에 심리적 미묘함을 찾으려 하지 않는, 좀 더 옛날이고 단순한 세대의 자손들 중 하나다. 나는 음악에서 선율과 화음 이상을 찾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그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미로 속에서 무언가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페달 위아래로 그가 쫓겼고, 매뉴얼은 그를 승인하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불쌍한 놈! 그가 누구든, 도망칠 희망은 없어 보였다.

내 신경질적인 짜증이 분노로 바뀌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신성한 예배 한복판에서 어찌 감히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한단 말인가?

나는 곁에 앉은 사람들을 힐끗 둘러보았다. 그중 단 한 사람도 조금도 동요한 기색이 없었다. 제단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수녀들의 평온한 이마는, 하얀 머리장식 아래 드리운 흐릿한 그림자 속에서도 경건한 몰입의 한 자락도 잃지 않았다.

내 곁의 세련된 부인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몬시뇰 C—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표정만 보아서는, 오르간이 아베 마리아를 연주하고 있는 줄로 여겼을 것이다.

드디어 설교자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침묵을 명령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오후에 생 바르나베 성당에 들어섰을 때 기대했던 평온함을, 지금까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사흘 밤에 걸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시달림에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중 마지막 밤이 가장 혹독했다. 그토록 지친 몸과, 마비된 듯하면서도 날카롭게 예민해진 마음을 안고, 나는 치유를 바라며 평소 애정 깊게 찾던 교회로 향했다. 나는 _노란 옷의 왕_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떠오르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굴속에 눕도다."

몬시뇰 C—는 차분한 어조로 성구를 봉독하며 조용히 회중을 둘러보았다.

나는 까닭도 모른 채 시선을 교회 아래쪽 끝으로 돌렸다.

오르가니스트가 자기 파이프 뒤에서 나와 갤러리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나는 그가 거리로 곧장 내려가는 계단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통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호리호리한 사내였고, 그의 옷이 검은 만큼이나 그의 얼굴은 하얬다.

'잘 가라!' 나는 생각했다. '네 그 사악한 음악과 함께! 마무리 자유 연주는 조수가 맡아 주기를 바라네.'

안도감이 밀려왔다. 깊고 고요한, 그런 안도감이었다. 나는 다시 강단 위의 온화한 얼굴을 향해 돌아서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드디어 내가 갈망하던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

"내 아들딸들이여," 설교자가 말했다. "인간의 영혼이 배워야 할 진리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영혼은 결코, 자신에게 진정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흥미로운 교리군!" 나는 생각했다. "가톨릭 신부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그가 이 말을 교부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보자."

"영혼에 진정한 해를 끼칠 수는 없소." 그는 가장 차분하고 또렷한 어조로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러나 나는 그 뒷말을 듣지 못했다. 까닭도 모른 채 내 시선은 그의 얼굴을 떠나 성당 아래쪽 끝으로 향했다.

그 남자가 오르간 뒤에서 다시 나타나, 똑같은 길을 따라 갤러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갈 시간은 없었고, 만약 돌아왔다면 나는 분명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희미한 오한이 스쳤고 심장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렇지만 그의 왕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형체와 하얀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가 정확히 내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려 성당 너머로 내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강렬하고 치명적인 증오의 눈빛을 던졌다. 나는 그와 같은 눈빛을 본 적이 없다. 다시는 그런 눈을 보지 않게 해 주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본 지 6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그 문으로 다시 사라졌다.

나는 앉아서 정신을 수습하려 애썼다. 첫 느낌은 아주 어린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울부짖기 전 숨을 고르는 그 순간과 같았다.

그토록 짙은 증오의 대상이 되리라니, 그 충격은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하물며 그 남자는 완전히 낯선 이였다. 도대체 왜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나를, 그토록 미워하는 것인가.

순간, 다른 모든 감각은 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 잠식당했다. 공포조차 슬픔 앞에서는 종속될 뿐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이성이 작동했다. 그리고 부조리함이 나를 구원하듯 찾아왔다.

말했듯이, 생 바르나베 성당은 근대식 건축이다. 크기도 작고 조명이 밝아, 한눈에 전체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오르간 발코니는 성소 상부의 긴 창들에서 쏟아지는 강한 백색 빛에 비춰졌다. 그 창에는 색유리조차 끼워지지 않았다.

강단이 교회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기에, 내가 그쪽을 향하고 있을 때 서쪽 끝에서 무엇이 움직이든 내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지나갈 때 내가 그를 본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단지 그의 첫 번째 지나감과 두 번째 지나감 사이의 간격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반대편 옆문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나를 그토

록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시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저 신경질적인 바보였을 뿐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초자연적인 공포가 숨을 만한 곳으로 이보다 더 알맞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몽세니외 C의 그 선명하고 이성적인 얼굴, 차분한 태도, 그리고 가볍고 우아한 제스처는 끔찍한 신비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은 위축시키지 않는가?

그의 머리 위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거의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설교대 천장의 한쪽 끝을 지탱하고 있는 그 날렵한 여인상 말이다. 강풍에 나부끼는 술장식이 달린 단마스크 식탁보처럼 보이는 그 상은, 만약 바실리스크가 오르간석에서 한 번이라도 포즈를 취하려 든다면, 금색 나팔을 들어 그를 향해 불어 존재 자체를 날려버릴 것이다.

이런 상상에 나는 혼자 웃었다. 당시에는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놀리고, 울타리 밖의 노파부터 몽세니외 C 자신까지 모든 것을 조롱했다. 그 노파는 의자를 놓아주지 않으면 열 상티를 내라고 했으니, 창백한 얼굴의 오르간 연주자보다 바실리스크에 더 가까운 존재였다. 그 음산한 노부인부터, 아, 안타깝게도 몽세니외 C 자신까지. 모든 경건함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조롱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설교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귀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소리 때문에.

"성파울의 치마에 도착했다. 사순절 강연 여섯 번을 설교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름진 설교를 했다."

가장 기이하고 불경한 생각들과 박자를 맞추면서.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끔찍한 기분에서 벗어나야 했다. 내가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일어나서 교회를 나섰다.

내가 성당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그때, 봄 햇살이 뤼 생토노레 거리에 쏟아지고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는 노란 수선화와 리비에라산 옅은 보라색 제비꽃, 짙은 러시아산 제비꽃, 그리고 황금빛 미모사 구름 속에 담긴 하얀 로마 히아신스로 가득 찬 손수레가 서 있었다. 거리는 일요일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웃었다. 누군가 나를 앞질러 지나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하얀 옆얼굴에는 일찍이 그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치명적인 악의가 어려 있었다.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유연한 그의 등은 똑같은 위협을 드러냈고, 나에게서 멀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나의 파멸과 관련된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듯 보였다.

나는 기어 다니듯 걸었다. 발이 거의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에 대한 책임감이 내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위협하는 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아주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정말 멀고 먼 과거로. 그것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분명 거기 있었고,

머지않아 일어나 나를 마주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려 했고, 최선을 다해 비틀거리며 리볼리 거리로 들어서서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질러 강변로(Quai)에 다다랐다. 나는 병든 눈으로 햇빛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분수의 하얀 거품 사이로 비치고, 어두운 청동 강의 신들의 등 위로, 자수정 안개로 빚은 듯한 먼 개선문 위로, 그리고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잿빛 줄기와 헐벗은 가지들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쿠르 라 렌의 밤나무 가로수길 하나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강변을 떠나, 정신없이 샹젤리제 거리를 가로질러 개선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는 해가 롱푸앙의 푸른 잔디밭 위로 햇살을 뿌리고 있었다. 그 환한 빛 속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과 젊은 어머니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그리고 나와 다를 바 없는, 그저 한가로운 일요일 산책객에 불과했다. 나는 그 말을 거의 입 밖에 내어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줄곧 그의 얼굴에 떠 있는 악의에 찬 증오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살금살금 지나쳐, 납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대로(Avenue)를 올라갔다. 내가 그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목적과 나의 운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구하려 애썼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거대한 개선문을 통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래를 지나가다 그와 정면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를 샹젤리제 거리 한참 아래에 두고 왔건만, 그는 부아 드 불로뉴 숲에서 돌아오는 인파에 섞여 다시 나타났다.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 내 옷깃을 스칠

정도였다. 헐렁한 검은 옷 속의 그 가느다란 몸은 마치 쇳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도, 지친 흔적도,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존재 전체가 오직 한 가지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바로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지와, 그것을 실행할 힘이었다.

고뇌에 잠긴 채 나는 그가 넓고 붐비는 대로를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대로는 마차 바퀴와 말들의 마구,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의 투구들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몸을 돌리고 달아났다. 부아 숲 속으로, 그리고 그 너머 멀리까지. 내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작은 카페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시 부아 숲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는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은 나를 생각하거나 느끼는 힘조차 빼앗아 갔다. 나는 너무 피곤했다. 정말로 지쳐 있었다. 나는 오직 나의 둥지 속으로 숨고 싶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용의 안뜰(Court of the Dragon)'에 산다. 뤼 드 렌에서 뤼 뒤 드라공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말이다.

이곳은 '막다른 길(impasse)'이다. 오직 보행자만 통과할 수 있는 곳. 뤼 드 렌 쪽 입구 위에는 철로 만든 용이 떠받치고 있는 발코니가

있다. 안뜰 양쪽으로는 키 큰 낡은 집들이 우뚝 솟아 있고, 두 거리로 면한 양쪽 끝을 가로막고 있다. 낮 동안에는 깊은 아치형 통로의 벽 안으로 젖혀져 있는 거대한 문들이, 자정이 지나면 이 안뜰을 봉쇄해 버린다. 그때는 측면에 난 작은 문 중 하나에서 초인종을 눌러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움푹 꺼진 보도에는 불쾌한 물웅덩이들이 고여 있다. 가파른 계단들이 안뜰로 통하는 문들로 곧장 내려간다. 지상층은 중고품 상점들과 철공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낮 동안 내내 이곳에는 망치 소리와 쇠막대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래는 불쾌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위쪽은 사정이 다르다. 거기에는 밝은 기운이 있고, 안식도 있으며, 거칠지만 정직한 노력이 가득하다.

다섯 층 위에는 건축가와 화가들의 작업실, 그리고 나 같은 중년 학생들의 은신처가 있었다. 우리는 혼자 살고 싶었다.

내가 처음 이 곳에 이사 왔을 때, 나는 아직 젊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걸어야 했지만, 마침내 개선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빈 삯마차 한 대가 다가왔고 나는 그것을 잡아탔다.

개선문에서 뤼 드 렌까지는 마차로 반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다. 특히 일요일 축제객들에게 시달려 지친 삯마차 말에 실려 갈 때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드래곤의 날개 아래로 들어서기까지는 적과 거듭 마주칠 만한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난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넓은 대문 앞에는 아이들이 한 무리 모여 놀고 있었다. 우리 건물의 문지기 부부는 검은 푸들을 데리고 그 사이를 거닐며 질서를 잡고 있었고, 몇 쌍의 커플은 인도에서 왈츠를 추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인사에 답한 뒤 서둘러 안으로 들어섰다.

안뜰의 주민들은 모두 거리로 몰려나가 있었다.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높이 매달린 등불 몇 개만이 희미한 가스 불빛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 아파트는 안뜰 중간쯤에 자리한 어느 집의 맨 위층에 있었다. 거기로 오르는 계단은 좁은 통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거의 거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열린 문턱에 발을 디뎠다. 휴식과 안식처로 이어지는, 친근하고 낡아 빠진 계단이 내 앞에 펼쳐졌다. 오른쪽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열 걸음쯤 떨어진 곳에 그가 있었다. 그가 나와 함께 안뜰로 들어선 것이 분명했다.

그가 곧장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더디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오직 나를 향해 곧장. 그리고 이제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시선이 교회당 너머 처음 마주했던 순간 이후, 그 시선이 다시금 교차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때가 왔음을.

나는 뒷걸음질로 안뜰을 따라 후퇴하면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뤼 뒤 드라공 쪽 입구로 빠져나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결코 도망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안뜰을 지나갈 때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후퇴했고, 그는 다가왔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나는 아치형 입구의 그림자 위에 섰고, 다음 발걸음으로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여기서 방향을 틀어 거리로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아치형 입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 납골당의 그림자였다.

르 드라곤 거리의 거대한 문들은 닫혀 있었다. 나를 둘러싼 어둠의 짙기로 나는 이를 직감했고, 동시에 그의 얼굴에서 그 사실을 읽어냈다.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나며, 빠르게 다가왔는지.

깊은 지하 납골당, 거대하게 닫힌 문들, 차가운 철제 고리들. 모든 것이 그의 편이었다.

그가 위협했던 것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것은 무한한 그림자 속에서 모여들며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것이 공격할 지점은 그의 지옥 같은 눈동자였다.

절망한 나는 철창이 달린 문에 등을 기댔고, 그에게 맞섰다.

* * * * *

의자가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신도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남쪽 통로에서 스위스 근위대의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몽세뇨르 C——를 성물고로 인도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수녀들은 경건한 몰입에서 깨어나, 제단을 향해 절을 한 뒤 자리를 떴다. 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세련된 부인도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태도로 일어났다. 그녀가 떠나면서 그 시선이 내 얼굴을 잠시 스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비난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나는 반쯤 죽어 있는 듯했다. 아니,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날카롭게 느끼며 살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는 군중 속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다.

설교 시간, 나는 잠들고 말았다. 정말로 설교 내내 잠들어 있었을까?

고개를 들어 보니, 그가 복도를 따라 제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의 옆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가늘고 굽은 팔은 중세 성채의 버려진 고문방에 놓인 악마적인 이름 없는 도구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피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말이다. 정말로 나는 그를 피한 걸까? 그가 나에게 힘을 발휘하게

했던 그 무언가가, 내가 잊어버리길 바랐던 망각의 저편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이제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죽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끔찍한 거처—오래전 나의 연약함이 그를 그곳으로 보냈었다—그곳은 다른 모든 이의 눈에는 그를 변화시켰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를 거의 알아차렸고, 그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다. 나의 몸이 밝고 작은 교회에 안전하게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용의 궁전에서 내 영혼을 사냥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문가까지 기어갔다. 그때 위쪽에서 오르간이 거친 소리로 터져 나왔다. 눈부신 빛이 성당을 가득 채우더니, 내 눈앞의 제단을 가려버렸다. 사람들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아치와 돔 천장도 자취를 감췄다. 나는 타들어 가는 눈으로 끝없이 번쩍이는 빛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걸린 검은 별들을 보았다. 할리의 호수에서 불어오는 젖은 바람이 내 얼굴을 식혔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거친 구름의 파도 너머로 나는 안개가 뚝뚝 떨어지는 달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 카르코사의 탑들이 달 뒤에서 솟아올랐다.

죽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끔찍한 거처가 그를 바꾸어 놓았다. 나의 연약함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내 눈길을 제외한 모든 시선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타오르는 빛을 가로질러 높아지고, 커지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 내가 쓰러지자,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 빛은 불꽃의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그리고 나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곳에서 노란 옷의 왕이 내 영혼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노란 표식

"붉은 새벽이 짐작하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 푸른 별빛이 꺼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왜 음악의 특정 화음은 가을 단풍의 갈색과 황금빛을 떠올리게 할까? 왜 성녀 세실리아의 미사는 내 생각을 동굴 속으로 떠돌게 만드는가—그 동굴의 벽에는 정련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은이 거친 덩어리들로 타오르고 있다. 저녁 여섯 시, 브로드웨이의 굉음과 소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내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했을까. 그것은 고요한 브르타뉴의 숲이었다. 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실비아는 반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쯤 다정한 눈으로 작은 초록 도마뱀을 굽어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이 작은 것도 하느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라니!"

처음 그 경비원을 봤을 때, 그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나는 무관심하게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 아침 워싱턴 스퀘어를 거닐던 다른 어떤 남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스튜디오로 돌아섰을 때, 나는 이미 그를 잊고 있었다.

오후 늦게, 날씨가 따뜻했기에 다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바람을 한 모금 들이마셨다. 교회 안뜰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나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별 관심 없이 그를 다시 보았다.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있는 광장 너머를 바라보고 나서, 나무들과 아스팔트 산책로, 움직이는 유모들과 휴가객 무리들에 대한 어렴풋한 인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찬 채, 다시 이젤로 돌아가려 했다.

돌아서는 순간, 내 무심한 시선이 교회 묘지 아래에 있는 그 남자를 다시 포착했다. 이제 그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었고, 나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몸을 숙였다. 동시에 그도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나는 관 속의 시체벌레를 떠올렸다. 그 남자에게서 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살찐 하얀 무덤 벌레라는 인상이 너무 강렬하고 역겨워서 내 표정에 그것이 드러났던 모양이다. 그는 마치 밤 속에서 누군가 건드린 애벌레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으로, 부어오른 얼굴을 돌렸다.

나는 다시 이젤로 돌아가 모델에게 제자리를 잡으라고 손짓했다. 잠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미 그린 것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팔레트 나이프를 들어 다시 물감을 긁어냈

다. 살결 색은 누렇게 질리고 병적인 기운이 돌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병적인 색을, 그전에는 건강한 빛으로 빛나던 연구 작품 속에 칠해 넣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테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찡그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목과 뺨에는 건강의 맑은 빛이 물들고 있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이 팔을 완전히 망쳤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진흙 같은 물감을 캔버스에 칠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잘 포즈를 취하지 않니?" 그녀는 고집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완벽해."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했다. 나는 캔버스의 썩어 문든 자리에 헝겊과 터펜타인을 바를 테니까.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_쿠리에 프랑세즈_지의 삽화를 훑어보기로 했다.

터핀의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캔버스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열심히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괴저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이 점점 더 퍼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비버처럼 열심이었다. 그런데도 그 '질병'은 내 눈앞의 그림에서 팔다리로 기어 다니는 듯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 확산을 막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가슴 부분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형상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감염을 온몸으로 흡수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팔레트 나이프, 터핀, 긁개들을 힘차게 휘둘렀다. 동시에 이 캔버스를 팔았던 뒤발과 함께 열렬한 세앙스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나는 깨달았다. 결함이 있는 것은 캔버스가 아니었고, 에드워드의 물감도 아니었다.

"반드시 터핀 때문이야." 나는 화가 나며 생각했다. "아니면, 오후의 빛 때문에 내 눈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모델 테시를 불렀다. 그녀가 다가와 내 의자 너머로 몸을 기댔다. 그리고 공중으로 연기의 고리를 불어냈다.

"정말 그걸 어떻게 손댄 거야?" 그녀가 외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테레빈유 때문이야!"

"이제 그 색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어."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내 살이 녹색 치즈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전에 그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터펜틴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 거야." 그녀가 인정하듯 말했다.

그녀는 일본식 가운을 걸치고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지칠 때까지 긁고 문지르다가, 마침내 붓들을 집어 들어 캔버스를 뚫고 내던지면서 격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 욕설의 어조만이 테시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녀는 곧바로 말을 시작했다.

"바로 그거야! 맹세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며 붓들을 망쳐버리다니! 그 그림을 삼 주째나 그렸는데, 이제 봐라! 캔버스를 찢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화가들이란 정말 괴상한 생물들이야!"

나는 그런 폭발 뒤에 늘 느끼던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고, 망가진 캔버스를 벽 쪽으로 돌려세웠다. 테시는 내 붓을 씻는 일을 도와주더니, 이내 옷을 입으러 춤추듯 가림막 뒤로 사라졌다. 가림막 너머에서 그녀는 화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잃는 일에 대한 짤막한 충고들을 나에게 늘어놓다가, 아마도 내가 충분히 시달렸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는, 어깨 부분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있는 블라우스 단추를 채워달라고 청했다.

"네가 창가에서 돌아와 교회당 묘지에서 본 그 흉측한 남자에 대해 말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

"맞아, 아마도 그 그림에 저주를 걸었겠지." 나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시계를 보니.

"여섯이 지났다는 건 나도 알아." 테시는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고쳐 썼다.

"네,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 미안해요." 나는 대답했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지만, 곧 역겨움에 몸을 빼냈다. 교회당 묘지 아래에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테시는 나의 불쾌한 제스처를 보고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저 사람이 싫어하는 그 남자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이 찌고 흐물흐물해 보이네요. 어쩐지,"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을 보니 꿈이 하나 떠올라요—제가 언젠가 꾸었던 끔찍한 꿈이요.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맵시 있는 구두를 내려다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게 정말 꿈이긴 했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테시는 미소로 답했다.

"당신도 그 안에 있었잖아. 아마 당신이라면 그 일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테시! 테시!" 내가 항의했다. "나를 꿈꾸는 척하며 아첨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 이야기 해 드릴까요?"

"그대로 하시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다.

테시는 열린 창틀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혔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지난 겨울 어느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별다른 생각도 없이 있었다. 당신을 위해 모델 포즈를 취하느라 지쳐 있었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시내에서 종소리가 열 시, 열한 시,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것이 들렸다. 자정 무렵에 잠이 든 것 같다. 그 이후의 종소리는 기억나지 않으니까. 눈을 거의 감자마자, 무언가가 나를 창가로 이끄는 꿈을 꾸었다. 나는 일어나 창틀을 들어 올리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25번가는 시야가 닿는 곳까지 텅 비어 있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바깥의 모든 것이 너무도—너무도 검고 불쾌하게 보였다. 그러자 멀리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소리인 것만 같았다. 바퀴 소리는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대의 마차가 거리 위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내 창문 아래를 지나갈 때 보니 영구마차였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마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깨어나 보니 나는

열린 창문 옆에 서서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검은 깃털을 단 영구마차와 마부는 사라지고 없었다. 작년 삼월에 또 이 꿈을 꾸었고, 다시 열린 창문 옆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에도 그 꿈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던 거 기억하지요? 깨어났을 때 나는 열린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잠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꿈에 들어간 거지?" 내가 물었다.

"너…… 너는 관 속에 있었지.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

"관 안에?"

"네."

"어떻게 알았소? 나를 볼 수 있었소?"

"아니,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야."

"웨일스 레빗을 드셨나요, 아니면 로브스터 샐러드라도?" 내가 웃으며 물었지만, 그 소녀는 놀란 비명을 지르며 내 말을 끊었다.

"이런! 무슨 일이야?" 그녀가 창가의 움푹 들어간 자리로 몸을 움츠리며 물러서자 내가 말했다.

"그…… 교회 묘지 아래에 있던 그 남자—그가 영구마차를 몰던 사람이에요."

“헛소리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테시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자, 테시야.” 내가 재촉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무 오래 포즈를 취했잖아. 신경이 예민해진 거야.”

“그 얼굴을 내가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세 번이나 내 창문 아래로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매번 운전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봤죠. 오, 그의 얼굴은 너무 하얗고—그리고 부드럽게 보였어요. 죽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나는 그 소녀를 앉혀 마살라 와인 한 잔을 들이키게 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앉아, 그녀에게 몇 가지 충고를 건넸다.

"이봐, 테시," 내가 말했다. "일주일이나 보름쯤 시골에 다녀와. 그러면 더는 영구마차 꿈은 꾸지 않을 거야. 너는 종일 포즈를 취하잖아. 밤이 되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지. 이대로는 못 버텨. 게다가 하루 일이 끝나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술저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엘도라도나 코니아일랜드 같은 데로 달려가지. 그러니 다음 날 아침 여기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는 거야. 진짜 영구마차 같은 건 없었어. 그저 연갑게나 먹고 꾼 꿈이었던 거지."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교회당 묘지에 있던 남자는요?”

“아, 그는 그저 평범하고 병들고, 일상의 그 어떤 존재일 뿐이야.”

"제 이름이 테시 리어던인 것이 분명한 만큼 분명하게 맹세해요, 스콧 씨—교회 묘지 아래에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이 영구마차를 몰던 그 남자의 얼굴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건 정당한 생계 수단일 뿐이야."

"그럼, 내가 그 마차를 정말로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나는 신중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랬다면, 아래에 있는 남자가 그것을 몰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테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향기로운 손수건을 펼치고, 치마 끝 매듭에서 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장갑을 끼자, 그녀는 나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솔직하게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스콧 씨." 그리고는 문을 나서 갔다.

II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카실다의 눈빛과 그녀의 목소리가 내게 남긴 깊은 충격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떨고 있었다. 아니,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 버린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동물처럼 넓게 벌어져 있었다.

"카실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너머의 존재들이 내려다보는 그 무한한 공허함이었다.

"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연극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안겨주었는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벨보이 토마스가 <헤럴드>지 한 부와 한 가지 소식을 가져왔다. 옆집 교회가 매각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에 하늘에 감사했다. 가톨릭 신자로서 옆 교회 신자들에게 무슨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끄럽게 외쳐대는 설교자 때문에 신경이 너덜너덜해진 탓이었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교회의 통로를 타고 마치 내 방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메아리쳤고, 그는 r 발음을 코맹맹이로 끈질기게 굴려 내 본능을 죄다 거슬렀다. 게다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 곧 오르간 연주자도 있었다. 그자는 위대한 옛 찬송가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연주했는데, 송영을 연주하면서 풋내기 학부생 사중주단에서나

들을 법한 단조 화음을 끼워 넣는 그자의 피를 보고 싶을 정도였다. 목사는 좋은 사람이었으리라 믿지만,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는 용사시니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내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리니,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라!"라고 포효할 때면, 나는 그런 죄를 속죄하려면 연옥에서 몇 세기를 보내야 할까 궁금해지곤 했다.

"누가 그 부동산을 샀나?" 내가 토머스에게 물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다만 이 해밀턴 아파트의 주인 양반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요. 어쩌면 스튜디오를 더 지으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병든 얼굴의 청년이 교회당 묘지 문곁에 서 있었다. 그를 본 순간, 이전과 다름없이 압도적인 혐오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토머스," 내가 물었다. "저 아래 저 남자는 누구야?"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다. "저 지렁이 같은 놈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교회 야간 경비원이지요, 선생님. 저놈이 밤새도록 저 계단에 앉아 선생님을 모욕하듯 쳐다보는 게 저를 지치게 합니다. 저였다면 그놈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렸을 텐데—실례합니다, 선생님—"

"계속해 봐, 토마스."

"어느 날 밤 다른 영국인 친구 해리와 같이 집에 오던 길에, 그놈이 저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우리한테는 몰리하고 젠도 있었는데,

선생님, 식당에서 쟁반 나르는 일을 하는 두 여자애지요. 그놈이 우리를 어찌나 모욕하듯 쳐다보는지, 제가 일어서서 말했지요. '뭘 보냐, 이 뚱뚱한 민달팽이야?'—실례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가 한 말이 그랬어요. 그놈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또 말했지요. '나와 봐, 그 푸딩 같은 대가리를 한 대 갈겨주마.' 그러고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놈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모욕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갈겼는데, 으, 그놈 머리가 어찌나 차갑고 물컹한지 만지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그가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나는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그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 토마스?"

젊은 남자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스콧 씨,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도망쳤는지는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5창기병 연대 소속으로, 텔엘케비르 전투에서 나팔수였고, 그곳 우물 옆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는 도망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네, 선생님. 도망쳤습니다."

"왜?"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몰리를 끌어안고 도망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만큼이나 놀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보고 놀랐단 말인가?”

토마스는 잠시 동안 대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래층에 있는 그 혐오스러운 젊은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자극되자, 나는 그를 재촉했다. 미국에서 3년을 지내며 토마스의 코니식 사투리는 어느 정도 바뀌었지만, 동시에 그는 미국인 특유의 조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저를 믿지 않으실 거요, 스콧 씨?”

“네, 그럴게요.”

"저를 비웃지 않으시겠죠, 선생님?"

“말도 안 돼!”

그는 망설였다. "글쎄요, 선생님,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코 사실인데, 제가 그놈을 쳤더니 그놈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놈의 부드럽고 물컹한 주먹을 비틀었더니, 손가락 하나가 그대로 제 손 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토머스의 얼굴에 서려 있던 혐오와 공포는 내 얼굴에도 그대로 비쳤을 것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기 때문이다.

"정말 끔찍해요. 이제 그놈을 보면 그냥 자리를 피해요. 그놈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서요."

토마스가 떠난 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 남자는 교회 울타리 옆에 양손으로 철문을 쥐고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메스꺼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황급히 이젤 앞으로 다시 물러섰다. 그의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홉 시가 되자 테시가 나타나, 명랑한 "안녕하세요, 스콧 씨" 인사와 함께 가림막 뒤로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나와 모델 스탠드 위에서 포즈를 잡자, 나는 새 캔버스를 시작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내가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캔버스 위를 긁는 목탄 소리가 멎고 내가 정착액을 집어 들자, 그녀는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어젯밤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토니 파스터의 공연장에 갔거든요.”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오, 매기, 알지? 화이트 씨의 모델과 핑키 맥커믹. 우리는 그녀를 핑키라고 불러. 화가들이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거든. 그리고 리지 버크도.”

고정제를 캔버스에 뿌려주며 말했다. “자, 계속해.”

"켈리하고 치마춤꾼 베이비 반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럼, 테시, 네가 날 배신한 거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리지 버크의 오빠, 에드야. 완전한 신사의 표상이지.”

나는 그녀에게 그런 식의 가벼운 만남에 대해 부모답게 한마디 일러둘 의무를 느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

"오, 낯선 남자가 작업 거는 것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녀가 자기 껌을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에드는 달라요. 리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그러더니 그녀는 에드가 매사추세츠주 로웰의 양말 공장에서 돌아와 자신과 리지가 어엿하게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일, 그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 되었는지, 그리고 메이시 백화점 모직물부의 점원으로 입사한 것을 자축한답시고 아이스크림과 굴에 반 달러를 흔쾌히 써 버린 일까지 늘어놓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자세를 잡은 채 참새처럼 미소 지으며 재잘거렸다. 정오가 되자 나는 습작의 밑작업을 어느 정도 마쳐 두었고, 테시가 와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기분 속에 점심을 먹었다. 테시는 맞은편 드로잉 테이블에 자기

점심을 펼쳐 놓았고, 우리는 같은 병의 클라레를 함께 따라 마시며 같은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테시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연약하고 서툴렀던 어린아이가 가냘프지만 더없이 곱게 자란 여인으로 쑥쑥 커 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던 것이다. 그녀는 지난 삼 년 동안 내 모델로 앉아 주었고, 내 모든 모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모델이었다. 만약 그녀가 흔히 말하듯 '거칠어'지거나 '약아빠진' 여자로 변해 버린다면 나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태도에서 어떤 퇴락의 기미도 발견하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여전히 더할 나위 없다고 느꼈다.

나와 그녀는 도덕 문제에 대해 전혀 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내 자신부터가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 하든 그녀는 제 좋을 대로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가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그녀가 잘되기를 바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최고의 모델을 곁에 두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의 표현대로 '집적거리기(mashing)'가 테시 같은 처녀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런 일은 파리에서의 그것과는 결코 닮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언젠가 누군가가 한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테시를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비록 스스로

에게는 결혼이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단언해 왔지만, 이 경우만큼은 그 길의 끝자락에 사제가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나는 가톨릭 신자다. 대미사를 들을 때, 성호를 그을 때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한층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나처럼 늘 혼자 지내는 남자는 누구에게든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다 실비아 또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한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테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정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테시 역시 가톨릭 신자였고, 나보다 훨씬 더 경건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녀가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내 어여쁜 모델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_그때_가 되면, 그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운명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운명이 그녀를 나 같은 사내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아 주기를, 그녀의 앞길에는 오로지 에드 버크나 지미 매코믹 같은 사내들만을 던져 주기를.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축복이 있기를!

테시는 천장을 향해 연기의 고리를 불어 올리고, 잔 속의 얼음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도 어젯밤 꿈꿨어.” 내가 말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가 웃었다.

"맞아. 너의 꿈과 비슷한 꿈이었어. 다만 훨씬 더 끔찍했지."

이 말을 꺼낸 건 어리석고 무심한 행동이었어. 하지만 화가라는 직업군에게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미미한지 너는 잘 알고 있지.

"나는 열 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 얼마 뒤, 나는 깨어난 꿈을 꾸었지.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자정 종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만에서 울려 퍼지는 증기선 사이렌까지 또렷하게 들렸어. 지금 생각해도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야."

"나는 유리 뚜껑이 달린 상자 속에 누워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 차가 지나갈 때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스쳐 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누운 상자가 돌멩이가 깔린 길을 거칠게 흔들리는 쿠션이 달린 마차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

"잠시 후, 나는 참다못해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상자는 너무 좁았어. 팔은 가슴 위에서 교차된 채로 묶인 듯해서, 몸을 일으킬 힘이 하나도 없었지. 나는 귀를 기울였고, 외쳐 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마차에 매달린 말들의 발굽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마부들의 숨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렸지."

"그때, 창문을 여는 소리와 비슷한 또 다른 소리가 내 귀에 꽂혔어. 나는 겨우 고개를 돌려 볼 수 있었고, 상자의 유리 뚜껑뿐만 아니라 마차 측면의 유리창 너머로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빈 집들을 보았어. 불빛도, 생명체도 없는 침묵만이 감도는 집들. 오직 한 곳만 예외였지. 그 집의 1층 창문은 열려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한 인물이 거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어.”

“그건 바로 너였어.”

테시는 내게서 얼굴을 돌린 채, 한쪽 팔꿈치를 탁자에 괴고 있었다.

"네 얼굴이 보였어."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무척 슬퍼 보였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 좁고 캄캄한 골목길로 꺾어들었어. 이내 말들이 멈춰 섰지. 나는 두려움과 조급함에 눈을 감은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모든 것이 무덤처럼 고요했어. 몇 시간은 흐른 듯 느껴졌을 무렵, 나는 슬슬 견디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누군가가 내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느낌에 눈을 떴지. 그러자 관 뚜껑 너머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영구차 마부의 하얀 얼굴이 보였어——"

테시의 흐느낌이 나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내가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나는 그 사태를 수습해 보려 애썼다.

“테스, 내가 그 말을 한 건 네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야. 내가 진짜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네 꿈과 내가 교회 무해한 경비원을 싫어하는 이유, 이 두 가지가 내게 잠들자마자 머리를 돌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녀는 팔 사이에 고개를 묻고, 마음이 터져나갈 듯 통곡했다.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세 마리의 당나귀를 자처했는지. 하지만 나는 곧 나의 기록을 경신할 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둘렀다.

"테시, 용서해 줘." 나는 말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로 너를 놀라게 할 이유는 내게 없었어. 너는 너무도 분별 있는 소녀고, 너무도 훌륭한 가톨릭 신자라서 꿈 같은 걸 믿을 리도 없잖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머리는 내 어깨에 기댔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어루만지며 달랬다.

"자, 테스. 눈을 뜨고 미소 지어봐."

그녀의 눈이 느리고 나른한 동작으로 떠졌다. 그리고 내 시선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기이해서, 나는 다시금 그녀를 안심시키려 재촉했다.

"모두 헛소리야, 테시. 설마 그 일 때문에 네게 무슨 해가 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붉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워?"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경쾌하게 물었다.

"당신을 위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돌로 변한 사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이는 내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행동의 정점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그녀의 답변과 나의 응답 사이, 그 짧은 침묵 동안 천 가지의 대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었으며, 그녀의 말을 오해하며 내 건강을 안심시켜 줄 수도 있었다. 혹은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적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워싱턴 공원을 거닐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곱씹었다. 나는 이미 완전히 발이 묶인 셈이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고, 나는 앞으로 닥칠 일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는 선한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이나 테시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

내 인생의 단 하나뿐인 열정은 브르타뉴의 햇살 가득한 숲속에 묻혀 있었다. 그것은 영원히 묻힌 걸까? 희망이 외쳤다. "아니!"

삼 년 동안 나는 희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삼 년 동안 내 문턱에 들려올 발걸음 소리를 기다려 왔다. 실비아가 나를 잊은 걸까? "아니!" 희망이 다시 외쳤다.

나는 자신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희극 오페라의 악당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 나는 방종하고 무모한 삶을 살았다. 손쉬운 쾌락을 쫓아다녔고, 그 결과들을 한탄하곤 했다. 때로는 그 후유증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뿐인 진지함이 있었다. 그림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것은 브르타뉴의 숲속에 숨겨져 있었다.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그날 벌어진 일들을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연민, 슬픔에 대한 갑작스런 측은함, 혹은 충족된 허영심에서 비롯된 더 잔혹한 본능이었든—이제는 다 마찬가지였다. 무고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갈 길은 이미 앞에 정해져 있었다. 세상물정을 안다고 자부했던 나조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사랑—그 불길과 힘, 정열의 깊이는 응답하거나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남겨 주지 않았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내가 유달리 비겁한 탓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음울한 청교도적 기질이 거의 없는 탓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그 무심한 입맞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를 망설였고, 사실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려 감정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부인할 시간조차 없었다. 습관적으로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모든 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서 음울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이를 견뎌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견뎌내지 못했다. 감히 그러지 못했다.

폭풍이 가라앉은 뒤, 나는 그녀에게 차라리 에드 버크를 사랑해 평범한 금반지를 끼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

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나는 어쨌든 그녀가 결혼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그게 나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녀를 분별 있는 애정으로 대할 수 있었고, 그녀가 그 도취에서 지칠 때면 별다른 상처 없이 떠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결심이 굳어 있었다—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플라토닉한 관계의 흔한 종말을 떠올렸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역겨워했는지 떠올렸다. 나처럼 양심이 없는 사내에게는 너무 큰 일을 떠맡는 셈임을 알았고,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도 보았다. 하지만 단 한 순간도 그녀가 나와 함께라면 안전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테시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더라면, 나는 양심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물정에 닳고 닳은 여자라면 희생시켰을지언정, 테시를 희생시킨다는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 일의 몇 가지 가능한 결말을 그려 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 지치거나, 너무 불행해져서 내가 결혼하든가 떠나든가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것이다.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다—나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아내를 얻고, 그녀는 어떤 여자에게도 어울리지 않을 남편을 얻게 될 테니까. 나의 지난 삶은 결혼할 자격을 내게 거의 부여해 주지 않으니 말이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그녀는 병이 들었다가 회복해 어떤 에디 버크 같은 사내와 결혼할 수도 있고, 무모하게 혹은 일부러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

반면에 그녀가 나에게 지친다면, 그녀의 앞에는 에디 버크들, 결혼반지, 쌍둥이, 할렘의 아파트,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무엇 무엇이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의 인생이 놓여 있을 것이다. 워싱턴 아치 근처의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나는 어쨌든 내가 그녀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리라 마음먹었고, 미래는 미래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집으로 들어가 야회복으로 갈아입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은은한 향기가 나는 작은 쪽지에 "11시에 무대 출입문 앞으로 마차를 한 대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고, 쪽지에는 '에디스 카마이클, 메트로폴리탄 극장'이라고 서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아니, 우리는—솔라리에서 저녁을 먹었다. 카마이클 양과 나였다. 에디스를 브런즈윅에 데려다 주고 워싱턴 스퀘어로 들어섰을 때, 새벽빛이 막 메모리얼 교회의 십자가를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나무들 사이를 지나 가리발디 동상에서 해밀턴 아파트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접어들 때까지, 공원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묘지 옆을 지나는 순간, 돌계단에 앉아 있는 한 인영(人影)이 눈에 들어왔다.

그 희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오한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서둘러 그곳을 지나쳤다.

그때 그가 무언가 말을 했는데, 내게 건넨 말일 수도 있고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자가 내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럽고 격렬한 분노가 내 안에서 불타올랐다.

순간 발길을 돌려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해밀턴에 들어가 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한동안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귓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마치 지방을 정제하는 큰 솥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기름투성이 연기 같았고, 혹은 역겨운 부패의 악취 같았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동안 귓속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가 중얼거렸던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마치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듯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마침내 나는 그 소리들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너는 노란 표식을 찾았나?"

"노란 표식을 발견했소?"

"너는 노란 표식을 찾아냈느냐?"

나는 분노에 치올랐다. 그가 그 말로 대체 무슨 뜻이었단 말인가.

그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저주하며 나는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잠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깨어났을 때, 나는 창백하고 초췌해져 있었다. 어젯밤의 꿈을 다시 꾸었기 때문이다. 그 꿈은 내가 직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옷을 입은 나는 아래층 작업실로 내려갔다. 테시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내 목에 감싸 안으며 순진한 키스를 건넸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달콤하고 가냘프게 느껴져, 나도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나서 이젤 앞의 의자에 앉았다.

"이런! 어제 시작했던 습작은 어디 있지?" 내가 물었다.

테시는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캔버스 더미를 뒤지기 시작하며 말했다. "서둘러, 테스, 어서 준비해. 아침 빛을 놓치면 안 돼."

마침내 다른 캔버스들 사이에서 찾기를 단념하고 사라진 습작을 찾아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가림막 옆에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서 있는 테시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네."

"그럼 서둘러."

"늘 해 오던—그렇게 포즈를 취해 드릴까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여기엔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나는 내가 본 어떤 누드 모델보다도 훌륭했던 모델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나는 테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선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 불행이여! 아, 불행이여! 우리는 지혜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다. 에덴과 순박한 무지는 이미 과거의 꿈이 되어 버렸다. 적어도 그녀에겐 그랬다.

그녀는 내 얼굴에 떠오른 실망을 알아챈 듯, 이렇게 말했다. "원하시면 포즈를 취할게요. 습작은 제가 놓아둔 여기 가림막 뒤에 있어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옷장 안으로 들어가, 은박지로 번쩍이는 모로코풍 의상을 하나 꺼냈다. 그것은 진품 의상이었고, 테시는 그것을 들고 커튼 뒤로 들어가 신이 난 듯했다.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이마 위에 터키석으로 된 고리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머리카락 끝은 빛나는 허리띠 주위로 곱슬감돌아 있었다.

그녀의 발은 자수가 놓인 뾰족한 슬리퍼에 감싸여 있었고, 은색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기묘하게 수놓인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앉았다. 은으로 자수가 놓인 짙은 금속빛 푸른 조끼와 터키석이 박히고 꿰매진 짧은 마우레스크 자켓은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와 미소 짓는 얼굴을 들어 보였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달린 금사슬을 꺼내 그녀의 머리 위로 걸어주었다.

"이건 네 거야, 테시."

"내 것?"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거야. 이제 가서 포즈를 취해 봐."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튼 뒤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내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군요."

상자를 열었다. 안쪽의 분홍빛 솜 위에 검은 오닉스로 만든 걸쇠 장식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기이한 상징인지 문자인지가 금으로 박혀 있었다. 그것은 아라비아 문자도 중국 문자도 아니었으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인간의 어떤 문자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기념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그녀에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항상 착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그것을 내 코트 라펠 아래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사 주다니, 테스, 정말 바보 같아."

"사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그러자 그녀는 어느 날 배터리 공원의 수족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우연히 주웠다는 이야기, 그것을 광고도 내고 신문도 꾸준히 살펴봤지만 결국 주인을 찾을 희망을 모두 접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영구차에 관한 그 끔찍한 첫 꿈을 꾼 바로 그 날이었어요."

전날 밤 꾸었던 꿈을 떠올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곧 내 숯이 새 캔버스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 테시는 모형대 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다.

III

다음 날은 나에게 재앙 같은 하루였다.

액자에 끼운 캔버스를 한 이젤에서 다른 이젤로 옮기던 중, 나는 광택 난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두 손목으로 무겁게 넘어지고 말았다. 손

목이 너무 심하게 삐어 붓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무의미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배회하며 미완성의 드로잉과 스케치들을 노려보았고, 그러다 결국 절망에 사로잡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분에 못 이겨 엄지손가락이나 만지작거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교회 지붕에서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빗소리는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테시는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순진한 동정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나는 자신의 초조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무언가 정신을 돌릴 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서재의 신문과 책은 이미 모두 읽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나는 책장 쪽으로 다가가 팔꿈치로 문을 밀어 열었다. 책의 색만 봐도 각 권을 모두 알아볼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서재를 한 바퀴 돌며 정신을 차리려고 휘파람을 불었다.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내 눈은 마지막 책장 맨 위 선반 구석에 서 있는 한 권의 책에 고정되었다. 그 책은 뱀가죽으로 제본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기억하지 못했고, 바닥에서는 등판의 옅은 글자를 읽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흡연실로 가서 테시를 불렀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들어와 책장에 올라 책에 손을 뻗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노란 옷의 왕.”

나는 경악했다. 누가 저 책을 내 방에 둔 것인가? 대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온 것일까? 나는 그 책을 결코 열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책을 사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호기심이 나를 유혹해 그 책을 열게 할까 봐, 서점에서조차 그 책을 바라보는 것조차 피했다. 만약 내가 그 책을 읽고 싶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내가 알고 있던 젊은 카스타뉴의 끔찍한 비극이 그 사악한 페이지들을 탐구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나는 그 책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기를 거부해 왔으며, 실제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논의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책의 독이 서린 얼룩진 표지를 뱀을 바라보듯 응시했다.

"만지지 마, 테시." 내가 말했다. "내려와."

물론 나의 경고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막아설 틈도 없이 그녀는 책을 집어 들고, 웃음을 터뜨리며 스튜디오 안으로 춤추듯 사라졌다. 내가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무력하게 손을 내저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미소를 띠며 슬쩍 빠져나갔다. 나는 다소 조급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테시!" 나는 서재로 들어가 소리쳤다. "들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을 치워요. 열지 않았으면 해요!"

서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드로잉룸 두 곳과 침실, 세탁실, 부엌을 모두 뒤졌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철저하게 수색을 시작했다.

테시는 숨기에도 너무 완벽했다. 반 시간쯤 지나서야, 위층 창고의 격자창 옆에서 하얗게 질려 고요히 웅크린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눈에 나는 그녀가 그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란 옷의 왕』이 그녀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책은 두 번째 부분에서 열려 있었다.

나는 테시를 바라보았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노란 옷의 왕』을 열어 버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스튜디오로 이끌었다. 그녀는 어정쩡한 표정이었고, 소파에 누우라고 하자 아무 말 없이 내 말에 따랐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감았고, 숨결은 규칙적이고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잠들었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꿈틀거리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일어나, 사용하지 않던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상처가 덜 난 손으로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은 납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스튜디오로 가져와, 소파 옆의 러그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었다.

감정의 파도 속에 지친 나는 그 책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다.

테시가 눈을 떴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 * * * *

우리는 한참 동안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란 옷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 그런 단어들을 쓴다는 죄악이여—수정처럼 맑고, 솟구치는 샘처럼 투명하며 음악적이고, 메디치 가문의 독이 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빛나는 단어들이여! 아, 그런 단어들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비시킬 수 있는 자의 사악함, 그 절망적인 파멸이여—무지한 자와 현명한 자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들, 보석보다 더 소중하고 음악보다 더 위안이 되며 죽음보다 더 끔찍한 그 단어들이여!

우리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 줄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에게 검은 오닉스로 된 그 걸쇠—이제야 우리가 '노란 표식'임을 알게 된 무늬가 기묘하게 새겨진 그 걸쇠를 던져버리라고 간청했다.

내가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방에서 이 고백을 적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노란 표식을 내 가슴에서 뜯어내어 불 속에 던져버리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나는 분명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테시의 간청은 헛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왕'과 '창백한 가면'에 대해 속삭였다. 안개에 싸인 도시의 자욱한 첨탑에서 자정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하스터와 카실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동안 밖에서는 안개가 텅 빈 창유리에 부딪혀, 마치 할리의 해안에 구름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듯했다.

집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안개 낀 거리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테시는 쿠션들 사이에 누워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회색 얼룩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내 손에 꼭 잡혀 있었고, 그녀가 내 생각을 읽듯이 나도 그녀의 생각을 읽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우리는 히아데스의 신비를 깨달았고, 진리의 유령은 잠재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빠르게, 소리 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응답할 때, 우리 주변 어둠 속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멀리 거리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바퀴가 둔탁하게 구르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다 문 앞에서 소리는 멈췄

다. 나는 몸을 끌듯이 창가로 가서, 검은 깃털을 단 영구 마차를 보았다.

아래쪽 대문이 열리고 닫혔다. 나는 떨며 문가로 기어가 빗장을 걸었다. 하지만 노란 표식을 찾아오는 그 존재를 막을 수 있는 빗장이나 자물쇠는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복도를 따라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앞에 섰다. 그의 손길이 닿자 빗장은 썩어 없어졌다. 그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내 눈은 튀어나올 듯했다. 나는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가 차갑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았을 때 비로소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죽을 듯한 분노로 저항했지만, 내 두 손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내 코트에서 오닉스 걸쇠를 뜯어내고, 내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내가 쓰러지던 순간, 테시의 부드러운 비명이 들렸고 그녀의 영혼은 떠나갔다. 쓰러지면서도 나는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다. 노란 옷의 왕이 자신의 찢어진 망토를 펼쳤기에, 이제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었기 때문이다.

더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나로 말하자면, 이미 인간의 도움이나 희망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누워 글을 쓰면서, 끝을 보기 전에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

다. 의사가 가루와 약병을 챙기며 곁에 선 선한 사제에게 어렴풋한 손짓을 하는 것이 보인다. 그 손짓의 의미를 나는 이해한다.

그들은 이 비극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책과 수백만 부의 신문을 찍어내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고해 신부가 그의 거룩한 직무를 마치면, 성스러운 인장으로 나의 마지막 말을 봉인할 것이다.

바깥 세상은 파손된 집과 죽음에 내몰린 가정을 향해 그들의 피조물들을 보내고, 그들의 신문은 피와 눈물을 먹으며 살찌겠지만, 나에게 보낸 그들의 첩자들은 고해소 앞에서 멈춰 서야 한다.

그들은 테시가 죽었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지옥 같은 비명을 듣고 깨어난 집 안 사람들이 내 방으로 들이닥쳐, 살아 있는 자 하나와 죽은 자 둘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내가 말할 내용을 알 리 없다. 의사가 바닥에 있는 끔찍하게 부패한 더미—교회 야경꾼의 검푸르게 변한 시체—를 가리키며 한 말도 그들은 모른다.

"나는 어떤 이론도, 설명도 없습니다. 저 남자는 수개월 전에 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 * * * *

나는 죽어가고 있다. 사제가 와서—

이스의 공주

"하지만 나는 내가 어둠의 우물로 내려갔다고 믿는다. 그곳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지."

세 가지 일은 내게 너무 경이롭고, 네 가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바라.

공중을 나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가는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의 길, 그리고 처녀와 함께하는 사내의 길.

그 광경의 황량함은 서서히 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 앉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형지물이라도 기억해 내려고 했다. 만약 내가 다시 바다를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왜냐하면 절벽에서 그루아 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총을 내려놓고 바위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시계를 확인했다. 네 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이래로 케르셀렉에서 멀리 헤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전날, 구를벤과 함께 커셀렉 아래 절벽에 서서, 지금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음울한 황야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 황무지 언덕들은 내게 초원처럼 평평하게,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듯이 보였다. 거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속이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커셀렉에서 보았을 때 그저 풀이 무성한 움푹한 땅으로만 여겨졌던 곳이 실은 가시금작화와 히스로 뒤덮인 거대한 계곡들이고, 흩어진 바윗덩이로 보이던 것이

사실은 거대한 화강암 절벽들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실감할 수가 없었다.

"낯선 이에게는 좋지 못한 곳이오. 안내인을 데려가는 편이 낫겠소." 늙은 구를벤은 그렇게 말했었고, 나는 "길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지금, 바닷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나는, 내가 정말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방으로는 꽃이 활짝 핀 가시금작화와 히스, 그리고 화강암 바윗덩이들로 뒤덮인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시야에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었고, 집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총을 집어 들고, 해를 등진 채 다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수시로 내 앞길을 가로지르는 거센 시냇물들을 따라가 봐야 별 소용이 없었다. 그것들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황야의 움푹한 곳에 자리한 갈대 우거진 연못들로 흘러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몇 줄기를 따라가 보았지만, 결국 모두 늪지나 고요한 작은 연못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도요새들이 삑삑 울며 날아올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듯 빙글빙글 돌다가 멀어져 갔다. 나는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중 패드를 댔음에도 총이 어깨를 짓눌러 쓰라렸다. 해는 점점 더 낮게 기울며, 노란 가시금작화와 황야의 연못들 위로 수평으로 비스듬히 빛을 드리웠다.

걸을 때마다 거대한 내 그림자가 앞장서 나를 이끌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 길어지는 듯했다. 가시금작화가 각반을 긁으며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갈색 흙 위로 꽃송이를 흩뿌렸다. 양치류 덤불은 내가

걷는 길을 따라 휘어졌다 물결치곤 했다. 히스 풀더미에서는 토끼들이 고사리 사이로 후다닥 달아났고, 늪의 풀숲에서는 야생오리의 졸린 듯한 꽥꽥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여우가 내 앞을 가로질러 갔고, 또 한 번은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 몸을 굽혀 물을 마시려던 순간 옆 갈대 사이에서 왜가리가 무겁게 푸드덕 날아올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평원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듯했다. 마침내 더 가봐야 소용없다는 것, 적어도 하룻밤은 이 황야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결심한 나는 완전히 지친 몸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저녁 햇살이 내 몸을 비스듬히 따스하게 비추었지만, 이내 바닷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젖은 사냥화로부터 한기가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갈매기들이 흰 종잇조각처럼 빙빙 돌며 흔들렸고, 멀리 어느 늪지에서는 외로운 마도요 한 마리가 울었다. 해는 조금씩 평원 속으로 가라앉았고, 천정은 저녁노을로 붉게 물들었다. 나는 하늘이 가장 옅은 금빛에서 분홍빛으로, 그리고 다시 이글거리는 불빛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깔따구 떼가 내 위에서 춤추듯 날았고, 고요한 공기 속 높은 곳에서는 박쥐가 낮게 내려갔다가 다시 높이 솟구쳤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졸음을 떨쳐내려는 순간, 고사리 사이에서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를 깨웠다.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내 얼굴 위 공중에서 떨며 정지해 있었다. 한 순간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무언가가 양치류 사이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갔고, 새는 솟아올랐다가 빙 돌더니 그대로 양치류 덤불 속으로 곤두박질쳐 들어갔다.

나는 순식간에 일어나 가시금작화 너머를 응시했다. 가까운 히스 덤불에서 무언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총을 겨눈 채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히스 덤불에 다다랐을 때 총이 다시 팔 아래로 떨어졌고, 나는 말없이 놀라움에 휩싸인 채 그대로 멈춰 섰다. 죽은 토끼 한 마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위풍당당한 매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한 발톱은 토끼의 목에 깊이 박혀 있었고, 다른 발톱은 축 늘어진 옆구리를 단단히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매가 먹이 위에 앉아 있는 광경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런 광경은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그 매의 두 발톱에 일종의 가죽끈이 매여 있고, 그 끈에 썰매 방울 같은 둥근 금속 조각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새가 사나운 노란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숙여 굽은 부리로 먹이를 찍었다. 바로 그 순간, 히스 사이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녀가 내 앞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나를 한 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매에게 다가가, 장갑 낀 손을 매의 가슴 아래로 넣어 먹이에서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능숙하게 작은 두건을 새의 머리에 씌우고, 가죽 장갑을 낀 손에 새를 받쳐 든 채 몸을 굽혀 토끼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그 짐승의 다리에 끈을 둘러 묶고, 가죽끈 끝을 자신의 허리띠에 매었다. 그러고는 다시 덤불을 가로질러 발걸음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곁을 지날 때, 나는 모자를 들어 인사했고, 그녀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살짝 고개를 숙여 내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은 나머지, 바로 이 사람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멀어져

가자, 나는 그날 밤을 바람 부는 황야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체 없이 말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첫 마디를 꺼내자 그녀는 머뭇거렸고, 내가 그녀 앞으로 나아서자 그 아름다운 눈에 두려움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본 듯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한 어조로 내 딱한 처지를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설마 커셀렉에서 오신 건 아니지요!" 그녀가 거듭 말했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는 브르타뉴 사투리의 흔적도, 내가 아는 그 어떤 사투리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낯설고도 정의하기 어려운, 오래된 노래의 선율 같은 무언가.

나는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피니스테르르라는 곳이 어딘지 몰랐다. 그냥 취미로 사냥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인이오.” 그녀는 같은 기묘하고 음악적인 어조로 되풀이했다. “나는 미국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소.”

그녀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내인이 있다 한들, 지금은 밤새도록 걸어도 커셀렉에 닿을 수 없을 거예요."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시작했다. “농부의 오두막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먹을 것과 쉴 곳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녀 손목에 앉은 매가 날개를 바스락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소녀는 윤기 나는 등줄기를 쓰다듬으며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주변을 둘러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황야의 끝이 보이는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너는 황야와 고사리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오.” 내가 말했다.

"이 황야는 거칠고 황량합니다.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선 자들 가운데에는 영영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곳에는 농민의 오두막 따위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 내가 말했다. “케르셀렉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만 알려준다면, 내일 돌아오는 데는 오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의 동정심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 오기는 쉬워요. 몇 시간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가는 것은 다릅니다.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뜻을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녀는 허리춤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불어댔다.

“앉아서 쉬어라.” 그녀가 내게 말했다. “너는 먼 길을 왔고 지쳤으니까.”

그녀는 주름진 치마를 살짝 추켜올리고는 따라오라고 손짓한 뒤, 가시금작화 사이로 사뿐사뿐 걸어 고사리들 사이에 놓인 평평한 바위로 향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바위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다른 쪽 가장자리에 앉으라고 내게 권했다. 하늘에 남아 있던 저녁노을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분홍빛 안개 너머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우리 머리 위로는 길게 흔들리는 물새 떼의 삼각편대가 남쪽으로 흘러갔고, 주위 늪지에서는 물떼새들이 울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이 황야는.”

“아름답지만, 낯선 이에게는 잔혹하죠.” 내가 대답했다.

“아름답고 잔혹하군요.” 그녀가 몽롱한 듯 중얼거렸다. “아름답고 잔혹하죠.”

“여자처럼요,” 나는 멍하니 말했다.

"오," 그녀가 숨을 멈추듯 외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가 나의 것과 마주쳤다. 그녀는 분노한 듯, 혹은 두려운 듯 보였다.

"여인처럼요," 그녀가 숨을 죽이며 되뇌었다. "그렇게 말하다니, 얼마나 잔인한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치 자신에게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듯 말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나는 그 무의미하지만 해롭지 않은 말에 대해 어떤 변명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모르고 있어도 아주 끔찍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외국인들을 위해 놓아둔 함정과 덫을 공포에 떨며 떠올렸다.

내가 내가 뭘 말했는지 상상해보려 하고 있을 때, 황야 너머로 목소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모시외. 하지만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하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수일 테니."

그녀가 말을 이었다. "보시오. 하스터와 라울이 오고 있소."

황혼 속에서 두 남자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어깨에 자루를 둘러메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웨이터가 쟁반을 받쳐 들 듯 자기 앞에 둥근 테를 받쳐 들고 있었다. 그 테는 가죽끈으로

그의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고, 둥근 가장자리에는 두건을 씌운 매 세 마리가 작은 방울을 단 채 앉아 있었다. 소녀가 매잡이에게 다가가 손목을 재빠르게 비틀자, 그녀의 매가 그 테 위로 옮겨졌다. 매는 곧 옆걸음으로 비켜가 동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동료 매들은 두건 쓴 머리를 흔들며 깃털을 부풀려댔다. 그 바람에 발목의 방울 달린 가죽끈이 다시 딸랑딸랑 울렸다. 다른 남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공손히 고개를 숙이더니, 토끼를 집어 들어 사냥감 자루 속에 떨어뜨렸다.

“이들이 제 사냥꾼들이에요.” 소녀가 다정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라울은 훌륭한 매사냥꾼이고, 언젠가 그를 최고의 사냥 책임자로 임명할 거예요. 하스터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죠.”

두 명의 무언가 침묵한 남자들이 나를 향해 공손하게 경례를 건넸다.

"제가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monsieur?" 그녀가 이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제 복수입니다. 제 집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받아들이시는 예의를 베풀어주시는 것이요."

내가 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매사냥꾼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즉시 황야를 가로질러 출발했다. 그녀는 나에게 우아한 손짓을 보이며 그 뒤를 따랐다. 내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잘 이해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슬에 젖은 히스밭 위를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즐거운 듯 보였다.

“너무 지치지 않았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지쳤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당신의 그 정중한 태도가 조금 구식이지 않나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황해하며 위축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 저는 그게 좋아요. 옛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그렇게 멋진 말을 듣는 건 정말 즐거워요."

우리를 둘러싼 황야는 이제 유령 같은 안개의 천 아래 매우 고요했다.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는 그쳤고, 우리가 지나갈 때 귀뚜라미를 비롯한 들판의 작은 생명들도 모두 침묵했다. 하지만 우리 뒤 멀리서 그것들이 다시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키 큰 두 매사냥꾼은 한참 앞서서 히스밭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갔고, 매들의 종이 어렴풋이 짤랑이는 소리가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처럼 우리 귀에 닿았다.

갑자기 안개 너머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사냥개가 튀어나왔다. 이어 또 다른 개, 또 다른 개가 뒤따랐다. 여섯 마리, 아니 그 이상의 개들이 내 곁의 소녀 주변을 뛰어다니며 허공을 점령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들을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그리고 그녀가 건네는 낯선 말들은, 내가 옛 프랑스어 사본에서 본 적이 있는 표현들이었다.

그때 앞서 가던 매사냥꾼이 들고 있는 둥근 횃대 위의 매들이 날개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사냥 나팔의 가락이 황야를 가로질러 흘러왔다. 사냥개들이 우리 앞으로 뛰쳐나가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고, 매들은 횃대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끽끽거렸다. 소녀는 나팔의 노래를 받아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 속에서 맑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사냥꾼이여, 사냥꾼이여, 다시 사냥을 하라. 로제트와 장네톤을 버리고, 통통, 통통, 통통타통 통통, 또는 새벽부터 쫓아내어 사랑의 신들이 대기하도록 하라. 통통, 통통타통, 통통."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사이, 앞쪽에 회색 덩어리가 서서히 뚜렷한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팔 소리가 개들과 매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를 뚫고 기쁨에 차 울려 퍼졌다.

한쪽 문에서는 횃불이 희미하게 빛났고, 열려 있는 문틈으로 빛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발 아래에서 떨리는 나무 다리를 밟았다. 우리가 해자를 건너 작은 석조 안뜰로 들어서는 뒤로는 다리가 삐걱거리며 울리며 일어서고 있었다. 안뜰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열려 있는 문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몸을 굽혀 인사를 하며, 내 곁에 서 있던 소녀에게 잔을 건넸다. 그녀는 잔을 받아 입술에 대었다. 그리고 잔을 내리자 나를 돌아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환영합니다.”

그때 매사냥꾼 한 명이 또 다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내게 건네기 전에 먼저 그 잔을 소녀에게 바쳤고, 소녀가 그것을 맛보았다. 매사냥꾼이 잔을 다시 받겠다는 손짓을 했지만, 소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게 잔을 건넸다. 나는 이 행위가 매우 특별한 친절이라고 느꼈지만, 나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곧장 잔을 입에 대지 않았다. 소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내가 빠르게 행동해야 함을 알았다.

“마드모아젤, 제가…” 나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구해 준 낯선 이가, 자신이 당했던 위험을 결코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잔을 프랑스에서 가장 온유하고 아름다운 여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잔을 비우는 동안 그녀가 성호를 그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문 안으로 들어서며 우아한 손짓으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손에 내 손을 쥐고 집 안으로 이끌면서, 거듭거듭 말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이스 성(Château d'Y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I

그때부터 나는 그 책의 내용을 잊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카르코사의 황량한 해안과, 검은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 서 있던, 노란 옷을 입은 왕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숨이 턱 막힐 듯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들 사이의 공백은 깊은 절망처럼 나를 삼키려 했다.

특히 두 번째 연극, <카르코사의 왕>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카실다와 카밀라의 대화는 단순한 연극의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경고였거나, 혹은 저주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알데바란의 붉은 빛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천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르코사의 하늘에서 보았던 별이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장치였으며, 읽는 자의 영혼을 카르코사로 끌어들이는 함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란 옷의 왕은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냥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오래된 침대에서 뛰쳐나와, 깊숙이 박힌 작은 유리창들 사이로 햇살이 새어드는 커

튼 쳐진 창가로 향했다. 내가 아래쪽 안뜰을 내려다본 순간, 나팔 소리는 그쳤다.

그는 전날 밤 두 명의 매사냥꾼과 형제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사냥개 무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등에는 굽은 뿔나팔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길고 채찍 끝이 달린 채찍을 쥐고 있었다. 개들은 짖으며 울부짖었고, 흥분한 듯 그의 주위를 돌며 춤을 추듯 움직였다. 벽으로 둘러싸인 마당에서는 말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말에 올라라!" 브르타뉴어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손목에 매를 얹은 두 매사냥꾼이 사냥개들 사이를 헤치고 안뜰로 들어섰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피리우 루이, 사냥개들을 잘 몰아라, 박차도 채찍도 아끼지 말라. 라울, 그리고 가스통, 너희는 그 epervier가 niais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살피고, 너희 판단에 그 편이 낫다면 그 새에게 정중히 대하라(faites courtoisie à l'oiseau). 하스터의 손목에 있는 저 mué처럼 새를 jardiner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라울이여, 너는 그 hagard를 다스리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그는 두 번이나 au vif에 거품을 물었고, leurre에 익숙함에도 beccade를 놓쳤다. 그 새는 어리석은 branchier처럼 행동한다. Paître un hagard n'est pas si facile."

내가 꿈을 꾸고 있었을까? 누렇게 빛바랜 원고에서 읽었던 매사냥의 옛 언어—중세의 잊혀진 옛 프랑스어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

고, 그동안 사냥개들은 짖어대고 매들의 종소리가 발을 구르는 말들에 반주를 더했다. 그녀가 다시 그 달콤하고 잊혀진 언어로 말을 건넸다.

"라울, 네가 롱주를 매고 '아가르 오 블로크'를 놓는 편이 낫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훈련되지 않은 '소르' 때문에 이렇게 멋진 사냥날을 망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니까. '에스미르 아베세'라니,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사 뤼 도네라 데 레인.' 나는 아마도 그 새에 대해 너무 성급했었다. '라 필리에르'를 통과하고 '데스카프' 훈련을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매사냥꾼 라울은 안장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만약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이 매를 모시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매사냥은 저도 알지만, 라울, 당신은 아직 저에게 아우투르리에르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리우 루이 시외어!"

사냥꾼이 아치형 입구 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되돌아왔다. 그는 힘센 검은 말에 올라탔다. 뒤이어 다른 사냥꾼도 말을 타고 따라 나왔다.

"아!" 그녀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글레마렉 르네여, 서둘러라! 모두 서둘러! 피리우 시외여, 나팔을 불어라!"

은빛 같은 사냥 나팔 소리가 안뜰을 가득 채웠고, 사냥개들이 대문을 통해 뛰쳐나갔다.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포석을 깐 안뜰을 박차고 밖으로 쏟아져 나가, 도개교 위에서는 요란했다가 갑자기 둔탁해지더니, 이내 황야의 히스와 고사리 속으로 사라졌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멀리서 들렸고, 마침내 너무 희미해져서 솟구쳐 오르는 종달새의 갑작스러운 노랫소리가 내 귀에서 그 소리를 덮어버렸다. 아래에서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부름에 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추적을 후회하지 않아. 다음 기회에 또 가겠지. 낯선 이에게 보여준 예의, 페라지, 기억해라!"

집 안에서 간신히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Courtoisie."

나는 옷을 벗고, 침대 발치 돌바닥 위에 놓인 거대한 토기 대야의 얼음장 같은 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비며 씻었다. 그러고는 옷을 찾아보았다. 옷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문 근처의 긴 의자 위에 옷가지 한 무더기가 놓여 있어 나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살펴보았다. 내 옷이 사라진 이상, 내 옷이 마르는 동안 입으라고 분명히 거기 두었던 그 의복을 입어야만 했다. 모자, 신발, 그리고 은빛 회색의 손으로 짠 사냥 더블릿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몸에 꼭 끼는 그 옷과 이음매 없는 신발은 다른 시대의 것이었고, 나는 안뜰에 있던 세 매사냥꾼의 기이한 복장이 떠올랐다. 이것이 프랑스나 브르타뉴 어느 지역의 현대 의상도 아님은 확실했다. 그러나 옷을 다 입고 두 창문 사이의 거울 앞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 시대의 브르타뉴인이라기보다는 중세

의 젊은 사냥꾼처럼 차려입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망설이며 모자를 집어 들었다. 이 낯선 차림으로 내려가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 옷은 사라졌고, 그 고풍스러운 방에는 하인을 부를 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자에서 짧은 매 깃털 하나만 떼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문을 열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버리기로 해요." 그녀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움에 겨워, 비록 그것이 그 지방의 환대 관습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에게서 옷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지금의 차림으로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웃으며 곱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래된 프랑스어로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그때 페라지가 쟁반을 들고 나섰다. 쟁반 위에는 우유 한 그릇, 흰 빵 한 덩어리, 과일, 꿀이 든 벌집 한 접시, 그리고 진한 붉은색 포도주 한 병이 올려져 있었다.

“보시죠.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먹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배가 많이 고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하신 말씀, 단 한 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얼굴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이제 그녀는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구나.’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monsieur는 기사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군요—"

그녀는 십자성을 긋고 빵을 부수었다. 나는 그녀의 하얀 손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먹지 않을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어지러운 표정인가요?"

아, 왜일까? 이제 알 것 같았다. 나는 그 여인의 장미빛 손바닥에 입맞추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젯밤 황야에서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를 들여다본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의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열정은 나를 말없이 사로잡았다.

"편찮으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때 나는, 마치 자신의 파멸을 선고하는 자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난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그녀는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던 힘이 내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말했다.

“너의 생각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가, 너의 환대를 저버리고 너의 온화한 정중함에 무례한 당당함으로 답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녀는 고개를 손에 기댄 채, 나직이 대답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말이 너무도 소중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대를 얻어 보이겠소."

"얻어 보세요." 그녀가 답했다.

나는 내내 침묵한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도 조용히, 달콤한 얼굴을 들어 올린 손바닥에 기댄 채 나를 마주 보고 앉았다. 그녀의 눈이 나의 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나는 그녀도 나도 결코 인간의 말로 대화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이 나의 영혼에 응답했음을 나는 확신했고, 젊음과 기쁜 사랑이 모든 정맥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몸을 곧추세웠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빛나는 홍조가 돌았으며, 꿈에서 깨어난 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물어보는 시선으로 나의 눈을 찾았고, 그 시선은 나를 기쁨으로 떨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녀도 자신의 이름이 데모젤 장느 디스(Demoiselle Jeanne d'Ys)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부모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열아홉 해의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요새 농장에서 유모 페라기, 사냥몰이꾼 글마레크 레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섬겼던 네 명의 매사냥꾼—라울, 가스통, 하스터, 그리고 시외르 피리우 루이—와 함께 단둘이 지내왔다고 했다.

그녀는 늪지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매사냥꾼들과 페라기를 제외하면 인간을 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케르셀렉에 대해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매사냥꾼들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늑대 인간과 불의 여인 장느 라 플라마의 전설은 유모 페라기로부터 배웠다. 그녀는 자수를 놓고 아마실을 잣았다. 그녀의 매와 개들이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그곳 황야에서 그녀가 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거의 쓰러질 뻔했다. 절벽 위에서 바다의 배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녀가 말을 달리던 늪지대는 눈이 닿는 끝까지 인간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늙은 페라기가 들려준 전설에 따르면, 한번이라도 그 미답의 늪지대에서 길을 잃은 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했다. 늪지대가 마법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알지 못했다.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매사냥꾼들이 밖에 나가 본 적이 있는지, 혹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유모 페라기가 읽는 법을 가르쳐 준 집 안의 책들은 수백 년이나 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이들 말고는 보기 드물 만큼 달콤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내게 털어놓았다. 내 이름은 그녀가 발음하기 쉬웠고, 내 이름이 필립인 만큼 프랑스 피가 섞였을 거라고 단정했다. 그녀는 바깥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유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덕분에, 바깥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고 여겼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들새들에게 포도를 던져 주었다. 새들은 두려움 없이 우리 발치까지 다가왔다.

나는 어딘가로 떠나야겠다고 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기도 전에, 나는 일주일 동안 머물며 그들의 곁에서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케르셀렉에서 다시 만나 그녀의 집을 방문해도 된다는 허락도 얻었다.

"왜요?" 그녀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깨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내 사랑의 고백이 그녀에게 가져올 갑작스러운 충격은 그녀에게 너무 크고도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숨을 쉬는 것도 주저할 정도로 조심하며.

"자주 올 거야?" 그녀가 물었다.

"자주 오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매일?"

"매일."

"응, 나는 정말 행복해. 내 매들을 보러 와."

그녀는 일어나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소유하려는 듯, 그러나 아이처럼 순진한 태도로였다. 우리는 정원과 과수원을 지나 개울가 초원까지 걸었다.

초원 위에는 열다섯에서 스무 그루쯤 되는 나무 그루터기가 흩어져 있었다. 대부분 풀밭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 그루터기들 위에 매들이 앉아 있었다. 단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랬다.

매들은 가죽 끈으로 그루터기에 묶여 있었다. 끈의 끝은 강철 리벳으로 매의 발톱 바로 위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매들이 앉아 있는 곳 근처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개울물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소녀가 나타나자 새들은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마리에서 다른 한 마리에게로 옮겨 다니며, 어떤 새는 어루만지고, 어떤 새는 잠시 손목에 태우기도 했으며, 또 어떤 새 앞에서는 몸을 굽혀 발에 묶인 끈(제스)을 매만져 주기도 했다.

"예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여기, 매 한 마리가 있네요. 우리는 이것을 '천하지(賤鷹)'라고 부릅니다. 먹이를 직접 쫓아잡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매는 '고귀한' 매입니다. 매사냥에서는 먹이 위로 올라가, 원을 그리며 위에서 내려다보듯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 하얀 새는 북쪽에서 온 제르팔콘입니다. 이것 역시 '고귀한' 매입니다. 여기 메를린도 있고, 이 작은 수컷 매는 매화론어입니다."

나는 그녀가 그 낯선 매사냥의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가 둥지 안에 있는 어린 매들을 보여 주었다.

"매사냥에서는 이를 '니아(niais)'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브랑시에(branchier)는 둥지를 벗어나 가지 사이로 점프할 수 있을 만큼 자란 새를 말합니다. 아직 깃갈이를 하지 않은 어린 새는 소르(sors)라 하고, 사육 중 깃갈이를 한 매는 뮈에(mué)라 합니다. 야생 매를 포획할 때 이미 깃갈이를 마쳤다면, 이를 하가르드(hagard)라고 부르죠."

"라울이 처음 매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까요?"

그녀는 매들 사이의 시냇가 둑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발치에 몸을 던지듯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데모아젤 디스가 장미빛 끝을 가진 한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먼저 매를 잡아야 해."

"저는 걸렸어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주 사랑스럽게 웃으며, 내가 '고귀한' 매에 속하니 나의 _드레사주(dressage)_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길들여졌소. 줄에 묶이고 방울까지 달았다고."

그녀는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오, 나의 용감한 매여. 그럼 네가 내 부름에 답해 돌아올 거지?"

"전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러자 그녀의 뺨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그녀는 다시 한 번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들어 봐. 매 사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듣겠습니다, 장 드 이스 백작부인."

그러자 그녀는 다시 사색에 잠겼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름 구름 너머의 어떤 것을 응시하는 듯 고정되어 있었다.

"필립,"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장느," 내가 속삭였다.

"그게 다야. 내가 바랐던 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필립과 장느."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입술로 만졌다.

"나를 이겨 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그 말을 내뱉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매사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매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장느 드 이스가 내 손을 자기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어린 매에게 어떻게 손목 위에 앉는 법을 가르치는지, 또 종이 달린 발끈(_jesses_)과 _뿔 달린 두건(chaperon à cornette)_에 어떻게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지 들려주었다.

"먼저 배가 고파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런 다음, 조금씩 먹이를 줄입니다. 매사냥에서는 이를 _패_라고 하지요. 새들이 지금처럼 _오블로_ 상태에서 많은 밤을 보낸 뒤, _하가르_가 팔에 조용히 머물러 있게 되면, 비로소 새는 먹이를 먹으러 오도록 가르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_패_를 가죽끈, 즉 _뢰르_ 끝에 고정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끈을 원을 그리며 돌리기 시작하자마자 새가 제게 오도록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매가 날아올 때 _패_를 떨어뜨려 주며, 새는 땅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잠시 후, 제가 끈을 돌리거나 땅을 끌 때 움직이는 _뢰르_를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매가 사냥감을 공격하도록 가르치기 쉽습니다. 다만 항상 '_파르 코르투아지 아 로와조_', 즉 사냥감을 잡은 새가 맛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들 가운데 한 마리가 끽 소리를 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일어나 _블록(bloc)_에 휘감겨 버린 _롱주(longe)_를 풀어 주려 했으나, 새는 여전히 날개를 퍼덕이며 비명을 질러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필립, 너 뭐 보이는 거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처음에는 그 소동을 일으킬 만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새들의 비명과 날갯짓 때문에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때 내 시선이 시냇가의 평평한 바위로 떨어졌다. 소녀가 방금 일어났던 바로 그 바위였다. 회색 뱀 한 마리가 그 바위 표면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고, 납작한 삼각형 머리에 박힌 두 눈은 흑옥처럼 반짝였다.

"쿠르부르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해롭지 않죠, 그렇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목에 있는 검은 V자 모양의 형체를 가리켰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독사입니다."

우리는 그 파충류가 매끄러운 바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햇빛이 넓고 따뜻한 빛줄기로 내려앉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 그녀가 내 팔을 꼭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필립. 무서워."

"나를 위한 것이야?"

"필립, 너를 위해—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자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장느, 장느, 장느"뿐이었다. 그녀가 내 가슴 위에서 떨고 있을 때, 발밑 풀숲에서 무언가가 내 발을 쳤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다시 무언가가 내 발목을 쳤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다. 나는 장느 드 이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입을 맞춘 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두 팔로 안아 올려 내게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몸을 굽혀 발목에 매달린 독사를 떼어내고 발뒤꿈치로 그 머리를 짓밟았다. 기운이 빠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가던 것을 기억한다 — 땅바닥으로 쓰러진 것도 기억한다. 점점 흐려져 가는 두 눈으로 나는 장느의 하얀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고, 내 눈의 빛이 꺼져 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의 팔이 내 목을 감싸고, 부드러운 뺨이 굳어진 내 입술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다.

* * * * *

눈을 떴을 때, 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느는 사라지고 없었다. 시냇물과 평평한 바위가 보였고, 내 곁 풀숲에는 짓이겨진 독사가 보였지만, 매들과 _블록(bloc)_들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정원도, 과실수들도, 도개교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마당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멍하니 무너져 내린 폐허 더미를 바라보았다. 회색빛으로 변한 폐허는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거대한 나무들이 비집고 솟아나 있었다. 나는 마비된 발을 끌며 앞으로 기어 나아갔다. 내가 움직이는 동안, 폐허 사이 나무 꼭대기에서 매 한 마리가 날아올라, 점점 좁아지는 원을 그리며 솟구쳐 오르더니, 머리 위 구름 속으로 희미해지며 사라져 갔다.

"장느, 장느!" 나는 부르짖었으나, 목소리는 입술 위에서 사그라들었고, 나는 잡초 사이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슬픔의 성모'를 위해 돌에 새겨진, 무너져 가는 사당 앞에 무릎 꿇은 채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돌에 새겨진 성모의 슬픈 얼굴이 보였다. 그분의 발치에는 십자가와 가시관이 보였고, 그 아래에서 나는 이런 글귀를 읽었다.

"장느 드 이스 아가씨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녀는 이방인 필립을 사랑한 까닭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노라. 서기 1573년."

그러나 그 차가운 석판 위에는 한 여인의 장갑이 놓여 있었다 — 여전히 따뜻하고 향기로운 채로.

예언자들의 낙원

"포도나무와 사랑을 버리는 무리가 예언자들의 낙원에 서 있다면, 슬프도다, 나는 예언자들의 낙원이 한 손의 빈 구멍처럼 텅 비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노라."

스튜디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세계를 뒤져 그녀를 찾아라.”

나는 말했다. “어찌하여 내게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시오? 내 세계는 바로 여기, 이 벽들과 머리 위의 유리판 사이에 있소. 도금된 술병들, 광택을 잃은 보석 박힌 무기들, 빛바랜 액자와 화폭들, 검은 궤짝과 등받이 높은 의자들 — 푸른색과 황금색으로 기묘하게 조각되고 칠해진 것들 — 그 가운데서 말이오.”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녀가 오면, 나는 그녀를 알 것이다.”

난로 위에서는 불꽃이 하얗게 변해가는 재들에게 속삭임처럼 속삭였다. 아래 거리에서는 발소리, 목소리, 그리고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소?”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래 거리에서 발소리, 목소리, 그리고 노래가 들려왔다. 노래는 알 수 있었으나, 그 발소리도 목소리도 낯설었다.

“미친놈!” 그가 외쳤다. “노래는 그대로다. 목소리와 발걸음은 세월이 흐르며 조금 달라졌을 뿐!”

벽난로 속 재가 희어지는 위로, 불꽃의 혀가 속삭였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그들, 곧 아래 거리에서 들리던 발걸음과 목소리가 지나갔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온 세상을 뒤져 그 여자를 찾아라!”

“제 세계는 여기 있습니다. 이 벽과 유리 천장 사이, 그리고 이 방 안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잔들과 빛 바랜 보석 장식이 달린 무기들, 녹슨 액자들과 캔버스들, 검은색 상자들과 등받이가 높은 의자들 사이에서요. 이 모든 것들은 파란색과 금색으로 기묘하게 조각되고 얼룩져 있습니다.”

유령

과거의 망령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게 사실이라면, 함께 돌아가자. 여기, 여름 하늘 아래서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애원하고 어루만졌다. 분노에 하얗게 질린 내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저항했다.

“네가 나에게서 친구를 찾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함께 돌아가자.”

과거의 유령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희생

나는 꽃밭으로 들어섰다. 그곳의 꽃잎은 눈보다 더 희고, 꽃심은 순금 같았다.

먼 곳에서 한 여인이 비명처럼 외쳤다. “내가 사랑한 그를 죽였다!” 그녀는 항아리에서 피를 퍼내, 눈보다 하얀 꽃잎과 순금 같은 꽃심을 가진 꽃들에 부었다.

나는 멀리까지 그 뒤를 쫓았다. 항아리 표면을 훑어보니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안에서 생혈이 거품처럼 끓어올라 가장자리까지 차올랐다.

“내가 사랑한 그를 죽였다!” 그녀가 외쳤다. “세상이 목이 말라 하네. 이제 마시게 하라!”

그녀는 지나갔고, 나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보다 하얀 꽃잎과 순금 같은 꽃심을 지닌 꽃들 위에, 그녀가 피를 부어붓는 것을.

운명

나는 몇몇만 건널 수 있는 다리에 도착했다.

“통과!” 간수가 외쳤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는 미소 짓고는 성문을 닫았다.

거의 누구도 건너지 못하는 그 다리로 젊은이와 노인들이 찾아왔다. 모두가 거절당했다. 나는 한가로이 서서 그들을 세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의 소란과 통곡에 지쳐, 다시금 거의 누구도 건너지 못하는 그 다리 앞으로 돌아왔다.

성문 주위에 몰려든 무리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그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간은 충분하오.”

“통과!”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간수꾼이 외쳤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철문을 닫았다.

군중

거리 한복판, 군중이 가장 빽빽이 모여 있던 그곳에서 나는 피에로를 곁에 두고 섰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저들은 무엇을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내 검은 망토에서 분필 가루를 털어내며 말했다.

“나에는 보이지 않네. 분명 재미있는 일이겠지. 아마도 정직한 도둑이라도 본 모양이야!”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그가 너의 지갑을 털어갔지!” 그들이 웃으며 말했다.

“지갑!” 내가 비명을 질렀다. “피에로—도와줘! 도둑이야!”

그들은 웃었다. “그가 너의 지갑을 훔쳤단 말이야!”

그때 진실이 거울을 들고 나섰다. “그가 정직한 도둑이라면, 피에로는 이 거울로 그를 찾아내리라!” 하지만 그는 그저 비웃으며, 내 검은 망토에서 분가루를 털어냈다.

“보시오,” 그가 말했다. “진실은 정직한 도둑이오. 거울을 당신에게 돌려주죠.”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진실을 체포하라!” 나는 외쳤다 — 내가 잃어버린 것이 거울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피에로와 나란히 선 그곳, 거리에서 군중이 가장 빽빽했던 그 자리에서.

광대

“그녀는 아름다웠나?”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모자에 달린 방울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릿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칼에 찔렸지.” 그가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겪은 긴 여정을 생각해보라. 위험이 도사리던 날들, 그리고 끔찍했던 밤들을. 그녀를 위해, 그는 해를 거듭하며 적대적인 땅을 헤매야 했다. 혈육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찌르렸다.” 그는 모자에 달린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느냐?”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모자에 달린 방울이 자잘하게 울리는 소리를 내며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그에게 입을 맞췄지." 그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형제의 환대가 그의 심장을 건드렸네."

“그녀는 아름다웠소?” 내가 물었다.

"찔려 죽었지." 그가 낄낄거렸다. "긴 여정을 생각해 보라. 위험이 도사리던 날들, 끔찍한 밤들을! 그녀를 위해 해마다 적대적인 땅을 떠돌며, 친척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던 그를 떠올려 보라!"

그녀는 대문에서 그에게 키스를 건넸다. 그러나 복도에서 형제의 환대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아름다웠소?”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모자 속 방울이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그린 룸

광대가 가루를 입힌 얼굴을 거울로 돌렸다.

"흰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가 말했다. "흰 가면을 쓴 나와 견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가 하얀 가면을 쓴 모습과 비교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곁에 선 죽음에게 물었다.

“나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나는 더욱 창백하니까.”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거울에서 분칠한 얼굴을 돌린 클라운이 한숨을 쉬었다.

사랑의 시험

“네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이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그녀에게 이 보석을 주라. 그녀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녀를 사랑하는 너 자신도 치욕스럽게 만들 그 보석을.”

“네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이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나는 보석을 집어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그녀는 보석들을 발로 짓밟으며 흐느꼈다. “나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려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이 말했다.

네 방바닥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네 방의 벽을 보았다. 그 벽은 네 방의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 방의 벽이 아니었다.

"반쯤 감고 눈을, 가슴 위에 팔을 꼬아라. 잠든 마음에서 모든 간절한 소망을 영원히 쫓아내라."

* * * *

"나는 자연을 노래하노라. 저녁의 별들, 아침의 눈물, 먼 지평선 너머의 석양, 장차 올 존재를 마음에 일깨워 주는 하늘을."

그 동물은 문턱에서 멈춰 섰다.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고, 필요하면 즉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번은 팔레트를 내려놓고 환영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 눈동자로 세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 puss,” 그는 낮고도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그녀의 가느다란 꼬리 끝이 불확실하게 떨렸다.

“들어오라” 그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그녀는 천천히 네 발로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꼬리는 마른 옆구리 아래로 말려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젤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자신 쪽으로 다가와 자기 위로 몸을 굽힐 때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손을 따라갔고, 그 손이 자신의 머리에 닿을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거친 야옹 소리를 한 번 냈다.

세번은 오랫동안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왜 그래, 고양이?"

그녀의 겁먹은 눈빛이 그의 시선을 찾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접시를 헹구고, 창턱에 놓인 병에서 남은 우유를 가득 따랐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동그랗게 구멍을 만든 뒤, 빵 부스러기를 부수어 넣었다.

그 생물체가 일어서서 접시 쪽으로 기어갔다.

그는 팔레트 나이프 손잡이로 부스러기와 우유를 저었다. 그녀가 그엉키고 섞인 음식물 속에 코를 파고들자, 그는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그가 바라보는 사이, 접시는 가끔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딸랑거렸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남은 한 조각을 먹으려 몸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빵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보라빛 혀가 아직 핥지 못한 자국을 모두 쓸어내렸다. 접시는 다듬어진 대리석처럼 윤이 났다.

그제야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청결을 위한 세수를 시작했다.

“계속해.” 세번이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너는 그게 필요해.”

그 고양이는 한쪽 귀를 납작하게 누르며 고개를 돌리지도, 손질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았다.

세번은 천천히 때를 씻어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연은 원래 이 고양이를 하얀 털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질병이나 전쟁의 운명 탓인지, 털은 부분적으로 빠져나갔다. 꼬리는 뼈만 앙상했고 등뼈도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세심한 핥질 아래, 그 고양이가 지닌 매력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번은 고양이가 손질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마침내 고양이가 눈을 감고 앞발을 가슴 아래로 접어 넣자,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냥이, 네 근심을 말해다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거친 쉭쉭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이 그르렁거리려는 시도임을 알아챘다.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뺨을 쓰다듬자 그녀는 다시 한 번 친근하고 의아한 듯한 작은 야옹 소리를 냈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이지. 너는 많이 좋아졌고, 깃털이

다시 자라면 너는 멋진 새가 될 거야." 한껏 우쭐해진 그녀는 일어서서 그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며 다리 주위를 빙빙 돌았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에 진지하고 정중하게 응답했다.

"그런데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그가 말했다. "이곳, 네 바람의 거리, 그것도 환영받을 만한 바로 그 문 앞까지 오 층을 올라오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캔버스에서 시선을 돌려 네 노란 눈과 마주쳤을 때, 너의 도망갈 계획을 막은 것은 또 무엇이었지? 내가 라틴 지구 사내이듯 너도 라틴 지구 고양이인 것이냐? 그리고 어쩌다 장미빛 꽃무늬 가터를 목에 둘러 채우고 있는 거지?" 고양이는 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있었고, 그가 그녀의 얇은 털을 쓸어주는 동안 그르렁거리며 앉아 있었다.

"실례지만," 그는 그녀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맞춰 나른하고 다독이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무례해 보인다면 미안하다만, 이 장미빛 가터, 이렇게 기묘하게 꽃무늬가 수놓이고 은 잠금쇠로 채워진 가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잠금쇠는 분명 은이지. 프랑스 공화국 법규에 따라 가장자리에 새겨진 조폐 표식이 보이니까. 그런데 왜 이 가터는 장미빛 비단으로 짜이고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을까,—왜 은 잠금쇠가 달린 이 비단 가터가 너의 야윈 목에 감겨 있는 걸까? 이것의 주인이 곧 너의 주인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경솔한 걸까? 그녀는 젊은 날의 허영을 추억하며 사는 늙은 부인일까, 너를 사랑하고 끔찍이 아껴 자신의 은밀한 속옷으로 너를 장식해주는 그런 분일까? 가터의 둘레를 보면 그렇게 추측할 만하지. 네 목은 가늘고, 가터가 네게 꼭 맞으니까. 그러나 다시 보니—나는 웬만한 건 다 본다네—이 가터는 훨씬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세어 보니 다섯 개나 되는 작은 은테 구멍이 그 증거다. 그리고 지금 보니 다섯 번째 구멍이 닳아 있구나, 마치 잠금쇠의 혀가 그곳에 자리잡는 일이 익숙했다는 듯이. 그것은 둥글고 풍만한 체형을 암시하는 것 같군."

고양이는 만족스러운 듯 발톱을 오므렸다. 밖의 거리는 매우 고요했다.

그가 계속 중얼거렸다. "왜 너의 여주인은 자신에게 늘—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꼭 필요한 물건으로 너를 장식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녀는 이 한 조각의 비단과 은붙이를 네 목에 둘러주게 되었을까? 한순간의 변덕이었을까,—네가 본래의 통통함을 잃기 전, 노래하듯 그녀의 침실로 행진해 들어가 아침 인사를 건넸을 때 말이야? 물론 그랬겠지. 그녀는 베개 사이에 일어나 앉아, 틀어 올린 머리채가 어깨 위로 흘러내린 채로 있었고, 너는 그르렁거리며 침대 위로 뛰어올라 '안녕하세요, 마님' 하고 인사했겠지. 아, 정말 이해하기 쉽구나." 그는 하품을 하며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르렁거리며 그의 무릎 위에서 솜털 같은 발톱을 폈다 오므렸다 했다.

"그녀에 대해 모두 말해줄까, 고양이? 너의 여주인님은 매우 아름다워."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듬은 금처럼 무겁고 빛났다. 나는 그녀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캔버스 위에서는 안 된다. 나는 무지개의 눈동자보다 더 찬란한 색조와 음영, 빛깔과 물감이 필요하니까. 나는 눈을 감고 그녀를 그려야만 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색들은 오직 꿈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녀의 눈을 위해서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남색이 필요했다. 꿈의 땅, 꿈속의 하늘 말이다. 그녀의 입술을 위해서는 잠의 궁전 장미가 필요했고, 그녀의 이마를 위해서는 기묘한 첨탑을 이루며 달들 위로 우뚝 솟은 산맥의 눈더미가 필요했다. 오, 우리 이곳의 달보다 훨씬 높은 곳, 꿈의 땅의 수정 달들 위로 말이야. 그녀는—아주—아름답다, 너의 여주인님은."

그의 입술에서 말은 죽어갔고, 눈꺼풀이 처졌다.

고양이도 잠들어 있었다. 마른 옆구리 위로 볼을 기대고, 발톱은 느슨하게 풀려 늘어져 있었다.

II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깊게 박혀 있었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그 노란 옷의 자태가 나를 쫓아다녔다.

"다행이다." 세번이 몸을 일으키며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넘겼으니 말이다. 저녁으로 내놓을 게 없거든. 은화 한 닢이면 살 수 있는 것뿐이니."

그의 무릎 위에 있던 고양이가 몸을 일으켰다. 등을 굽히고 하품을 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로 할까? 구운 닭고기와 샐러드? 아니? 소고기 쪽을 선호하는 건가? 물론이지. 나도 계란과 흰 빵을 좀 먹어야겠어. 이제 와인부터 보

자. 우유로 할까? 좋군. 나는 물 한 잔 마실게. 바로 나무에서 가져온 신선한 물이야." 그는 싱크대 속 양동이를 향해 손짓했다.

그는 모자를 쓰고 방을 나섰다. 고양이는 문까지 따라나와, 그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를 맡으며, 낡은 건물이 빡빡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아래쪽 문이 열렸다 닫혔다. 고양이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경질적인 기대감에 귀가 납작하게 젖혀졌다.

곧이어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소음 없이 스튜디오 안을 두르기 시작했다. 터펜틴 항아리 앞에서 재채기를 하더니, 급히 식탁 쪽으로 물러났다. 잠시 후 식탁 위로 올라가, 붉은 색 모델링 왁스 한 덩어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문으로 돌아와 문턱 위의 틈새를 응시하며 앉았다. 그러고는 얇고 애틋한 울음소리를 높였다.

세번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침울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기쁨에 차서 보란 듯이,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며 마른 몸을 그의 다리에 비비고, 열정적으로 그의 손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질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갈색 종이로 싼 고기 한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펜칼로 그 고기를 잘게 찢었다.

그는 약병으로 쓰던 병에서 우유를 따랐다. 그리고 벽난로 앞의 접시에 부었다.

고양이는 그 앞 웅크리고 앉아, 동시에 보르르 울음소리를 내며 혀를 놀렸다.

그는 계란을 부쳐 빵 한 조각과 함께 먹으면서, 잘게 찢은 고기에 정신없는 고양이를 지켜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의 양동이에서 컵 가득 물을 떠 단숨에 다 비운 뒤, 그는 자리에 앉아 고양이를 무릎 위에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곧 몸을 동그랗게 말고 단장을 시작했다. 그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때로는 강조하듯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고양아, 네 여주인이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 그리 멀지 않아. 바로 이 비 새는 지붕 아래, 내가 빈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북쪽 별관에 있더라. 우리 건물 관리인이 알려준 말이다. 마침 오늘 밤은 그가 거의 멀쩡한 상태였지. 네 고기를 산 센 가(街)의 정육점 주인도 너를 알고 있고, 늙은 빵집 주인 카바네는 굳이 비꼬는 말투까지 섞어 너를 알아봤다. 그들은 네 여주인에 대해 가혹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나는 믿지 않겠다. 그들 말로는 그녀가 게으르고 허영심 많으며 쾌락을 좋아한다더군. 또 경솔하고 무모하다고도 해. 1층에 사는 작은 조각가가 카바네에게서 빵을 사고 있었는데, 우리는 늘 서로 묵례만 하던 사이였음에도 오늘 밤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매우 착하고 매우 아름답다고 했다. 그녀를 단 한 번 보았을 뿐이고, 이름은 모른다더군.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왜 그렇게 뜨겁게 감사를 표했는지 나 자

신도 모르겠다. 카바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저주받은 사풍의 거리에는 사방에서 온갖 악한 것이 불어든다네.' 조각가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빵을 들고 나가며 나에게 말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슈. 그녀는 아름다운 만큼 착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단장을 마치고는 살며시 바닥으로 뛰어내려, 문 쪽으로 걸어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는 고양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가터를 끌러 잠시 손에 쥐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버클 아래의 은제 잠금쇠에 이름이 새겨져 있군. 아주 예쁜 이름이야. 실비아 엘븐. 실비아는 여자의 이름이고, 엘븐은 도시 이름이지. 파리, 특히 이 사풍의 거리에서는 계절 따라 유행이 바뀌듯 이름도 입혀졌다가 다시 벗겨지곤 해. 나는 엘븐이라는 작은 도시를 알아. 거기서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운명은 가혹했어. 하지만 엘븐에서 운명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바로 실비아였다는 걸 너는 아니?"

그는 가터를 도로 채우고 일어나, 닫힌 문 앞에 웅크린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엘븐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묘한 매력이 있다. 그 이름은 초원과 맑은 강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실비아라는 이름은 죽은 꽃에서 풍겨오는 향기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양이가 야옹, 하고 울었다.

"그래, 그래." 그가 다독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데려다주마. 너의 실비아는 내 실비아가 아니야. 세상은 넓고 엘벤도 낯선 곳이 아니지. 하지만 더럽고 어두운 파리 구석구석, 이 오래된 집의 슬픈 그림자 속에서 그 이름들은 나에게 아주 달콤하게 들린다."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고요한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으로 갔다. 다섯 층을 내려가 달빛이 내리쬐는 안뜰로 나선 뒤, 작은 조각가의 작업실 앞을 지나 다시 북쪽 별관의 문으로 들어가, 좀먹은 계단을 올라 마침내 닫힌 문 앞에 다다랐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서 있자, 문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다. 문턱을 넘는 순간 고양이가 그의 품에서 그림자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압도적으로 느껴져 그는 성냥을 하나 그었다. 팔꿈치 옆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금박 촛대에 꽂힌 양초가 있었다. 그는 그것에 불을 붙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드넓었고, 휘장은 자수로 묵직했다. 벽난로 위로는 죽은 불의 잿가루로 잿빛이 된, 조각된 벽난로 선반이 우뚝 솟아 있었다. 깊이 파인 창문 옆 오목한 자리에는 침대가 있었고, 레이스처럼 부드럽고 고운 침구가 광택 나는 바닥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촛불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발치에는 손수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희미한 향기가 났다.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앞에는 카나페(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비단 가운과, 거미줄처럼 희고 섬세한 레이스 같은 옷가지 한 무더기, 그리고 길고 구겨진 장갑들이 어지러이 던져져 있었다. 그 아래 바닥에는 스타킹과 작은 뾰족 구두, 그리고 기이한 꽃무늬에 은제 잠금쇠가 달린 분홍빛 비단 가터 한쪽이

놓여 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침대의 무거운 커튼을 걷어냈다. 잠시 그의 손에서 촛불이 확 타올랐다. 그러자 그의 두 눈은 활짝 열린 채 미소 짓는 다른 두 눈과 마주쳤고, 촛불의 불꽃이 황금처럼 묵직한 머리카락 위로 번뜩였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그처럼 하얗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아이처럼 맑고 평온했다. 그러나 그는 온몸이 떨리며 그녀를 응시했다. 손에 쥔 촛불이 흔들렸다.

마침내 그가 속삭였다. "실비아, 나야."

그는 또다시 말했다. "나야."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긴 밤이 새도록 고양이는 그의 무릎 위에서 가르랑거리며, 푹신한 발톱을 조였다 풀었다 하기를 거듭했다. 사풍의 거리 위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 올 때까지.

첫 포탄의 거리

"용기를 내라. 음울한 달이 죽어가네. 곧 젊은 달이 우리를 보답하리라. 보라, 늙고 굶주려 마른 빛을 잃은 낡은 달이 하늘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

1.

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맞은편의 높은 지붕들이 12월의 희미한 낮빛을 거의 다 가려버린 것이다. 소녀는 의자를 창가 쪽으로 더 당겨 앉았다. 그리고 바늘을 하나 고르며 실을 꿰었다. 실끝을 손가락으로 감아 매듭을 지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아기 옷감을 펴고 몸을 숙였다. 실을 물로 끊어내고,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바늘을 빼냈다. 헝클어진 실과 레이스 조각들을 털어낸 뒤, 그녀는 다시 아기 옷을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슴에 꽂았던 실을 꿴 바늘을 꺼내 단추 구멍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단추가 실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자, 그녀의 손이 흔들렸다. 실이 끊어졌고, 단추가 바닥을 굴러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굴뚝 너머로 지어가는 빛의 띠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는 멀리서 북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너머, 훨씬 너머에서는 흐릿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것은 점점 커져가고, 부풀어 오르며, 멀리서 바위가 치이는 파도소리와 같이 구르는 소리로 변했다. 그러다 다시 파도처럼 물러가며, 으르렁거리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추위는 극에 달했다. 뼈를 쪼갤 듯한 차가운 추위였다. 그 추위는 서까래와 들보에 균열을 내고, 어제까지의 진흙을 단단한 돌처럼 얼려버렸다.

아래 거리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날카롭고 금속성이었다.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혹은 드물게 들려오는 인간의 목소리까지.

공기는 무거웠다. 검은 추위가 덮개처럼 그 무게를 더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황량한 하늘에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잔뜩 드리운 구름 사이에는 슬픔을 자아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기운은 얼어붙은 강에 갈라진 이 얼어붙은 도시, 탑과 돔, 부두와 다리, 천 개의 첨탑을 지닌 화려한 도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광장으로 침투했고, 대로와 궁전을 장악했으며, 다리들을 가로질러 훔치듯 지나가, 12월 하늘의 회색빛 아래 잿빛으로 물든 라틴 지구의 좁은 골목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슬픔, 완전한 슬픔. 가늘고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미세한 결정질 가루처럼 보도에 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창유리에 부딪히고, 창턱에는 무더기로 쌓여 갔다. 창가의 빛은 거의 다 꺼져 있었고, 소녀는 작업물 위로 몸을 깊게 숙였다. 곧 그녀는 머리를 들고, 눈가에서 곱슬머리를 털어냈다.

"잭?"

"가장 사랑스러운 분?"

"팔레트도 깨끗이 닦는 걸 잊지 마."

"좋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팔레트를 들어 올렸다. 난로 앞 바닥에 앉았다. 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그림자에 잠겼지만, 불빛은 무릎 위

에 내려앉아 칼날 같은 팔레트 나이프에 붉은 빛을 비췄다. 그의 옆, 불빛이 고스란히 닿는 곳에는 색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에는 새겨져 있었다.

J. 트렌트 에콜 데 보자르 1870년

그 비문에는 미국기와 프랑스기가 장식되어 있었다.

우박 섞인 눈이 창유리를 강타했다. 유리창은 별과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런데 따뜻한 실내 공기에 맞자 녹아내렸다.

녹은 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다시 얼어붙었다. 고사리 잎사귀처럼 섬세한 무늬를 그리며.

개 한 마리가 낑낑거렸고, 난로 뒤 아연판 위에서 작은 발들이 종종거리는 소리가 났다.

"잭, 자기, 헤라클레스가 배고픈 것 같지 않아?"

난로 뒤에서 발바닥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저기, 저 울고 있어요.” 그녀가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기가 거대한 윙윙거림으로 가득 찼고, 창문이 심하게 떨렸다.

"오, 잭," 그녀가 외쳤다. "또 한 발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머리 위 구름을 찢고 지나가는 포탄의 비명 속에 묻혀 버렸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가까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요,” 그가 경쾌하게 대답했다. “아마 몽마르트르 저쪽 어딘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의도적으로 무심한 척하며 다시 말했다.

“라탱 지구에다 불을 쏠 만큼 귀찮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까지 날아갈 포대는 없으니까요.”

잠시 후,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잭, 사랑하는 사람아. 언제 나를 데리고 웨스트 씨의 조각품을 보러 갈 거야?”

“내가 내걸겠네.” 그가 팔레트를 내려놓고 그녀의 옆 창가로 걸어오며 말했다. “코레트가 오늘 이곳에 왔다는 걸.”

“왜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러고는 탄식했다. “아, 정말 안 되네요! 정말 남자들은 자기만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귀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웨스트 씨가 만약 자만심에 빠져 코레트—라고 상상한다면 말이에요.”

북쪽에서 또 다른 포탄이 날아왔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명을 지르듯 날아올랐다. 포탄은 그들 위를 스쳐 지나갔다. 길게 이어지는 비명 소리는 창문을 울렸다.

“그건…… 너무 가까워서 소름이 끼쳤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다시 가볍게 입을 열었다.

"계속해, 실비아. 가엾은 웨스트를 깎아내려 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오, 정말, 저는 도무지 포탄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옆 의자 팔걸이에 앉았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거렸다. 그녀는 미완성의 드레스를 내던지고,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내렸다.

“잭, 오늘 밤은 나가지 마.”

그는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린 얼굴에 키스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도 알잖아. 나를 힘들게 하지 마.”

“하지만 포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당신이 시내 어딘가에 계신다는 걸 알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몽마르트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보자르 학교에 죄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당신도 직접 말했잖아요. 두 발이 케 도르세에 명중했다고—"

“순수한 사고일 뿐—”

“잭,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저녁은 누가 차려 주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요. 당신이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녁 식사에 늦지 말아 주세요. 제 고통을 아신다면요. 나, 나… 어쩔 수 없어요. 제발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다 주세요, 사랑스러운 당신.”

그가 말했다. “거기는 우리 집만큼이나 안전하단 말이야.”

그녀는 그가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채워 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불을 붙이고 나가려고 모자를 챙겼을 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말없이 그에게 매달렸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자, 실비아, 잊지 마, 내 용기는 당신의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 가야 해!"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가야 해." 그러자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그녀가 말을 하려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조금 조급해진 그는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아."

그가 거리로 내려가는 마지막 층계에 이르렀을 때, 관리인실에서 한 여자가 절뚝거리며 나왔다. 그녀는 편지를 흔들며 소리쳤다.

"잭 씨! 잭 씨! 팔로비 씨가 두고 가신 거예요!"

그는 편지를 받아 들고, 초라한 문지기의 문설주에 기대어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잭에게,

“브레이스는 이미 파산했다고 봐. 팔로비도 마찬가질 거야. 브레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완강히 주장하지만, 팔로비는 자기가 파산했다고 단언하니까. 결론은 너희가 내리면 돼. 내가 저녁 식사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만약 잘 풀리면 너희도 함께 하게 해줄게.”

“귀하의 충실한 종, 웨스트.”

참고로, 팔로비가 하트먼과 그 무리를 뒤흔들었다. 주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곳엔 뭔가 썩은 것이 있다. 아니면 그가 단지 인색한 사람일 뿐일지도 모른다.

덧붙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좋아요.” 트랑이 문지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말해 주시겠어요, 코타르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관리인실 안의 커튼을 친 침대를 가리켰다.

"코타르 영감!" 그가 명랑하게 외쳤다. "오늘 상처는 어떠세요?"

그는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당겼다. 뒤섞인 시트 사이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좋아졌지?” 트렌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더 낫군.” 남자가 지친 목소리로 되뇌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다. “당신, 어떤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잭 씨?”

“오늘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소. 들리는 소문이 있으면 모두 가져오겠소. 비록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소문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기운 내요. 당신은 더 나아 보이는군요.”

“그 출격은?”

“아, 출정군이야. 이번 주에 있을 거야. 트로슈 장군이 어제 밤에 명령을 보냈지.”

“정말 끔찍할 거야.”

'역겨울 거야.' 트렌트는 거리로 나서서 뤼 드 센 쪽으로 모퉁이를 돌며 생각했다. '학살, 학살, 휴! 안 가도 되니 다행이야.'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몇 여성들이 헐벗은 군용 망토로 몸을 감싸고 얼어붙은 보도를 기어 다녔다. 구석진 대로변에서는 하수구 뚜껑 위에 비참하게 차림새를 한 꼬마 아이를 볼 수 있었다. 그의 허리

를 동여맨 밧줄이 헐벗은 옷들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 밧줄에는 아직 따뜻하고 피를 흘리는 쥐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저 안에 또 있습니다!" 그가 트렌트에게 외쳤다. "내가 때렸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트렌트는 거리를 건너며 물었다. "얼마야?"

"뚱뚱한 한 마리 사분의 일에는 이 프랑이 줍니다. 생 제르맹 시장이야기죠."

그는 격렬한 기침 발작에 막혀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트렌트를 교활하게 바라보았다.

"지난주에는 쥐 한 마리에 6프랑이면 살 수 있었지. 그런데," 그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말을 이었다. "쥐들이 뤼 드 센을 떠나 버려서, 이제는 새 병원 근처에서 잡는다고. 이걸 7프랑에 드리지요. 일 생루이에서는 10프랑에도 팔 수 있으니까요."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트렌트가 말했다. "내가 일러줄게. 이 동네에서 누구를 속이려 들면, 사람들이 너와 네 쥐들을 단숨에 처리할 거야."

그는 잠시 동안 그 아이를 노려보았다. 아이는 울상을 짓는 체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에게 프랑 동전 하나를 던졌다.

아이는 동전을 받아 입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곧장 하수구 구멍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잠시 동안 웅크린 채, 움직이지도 않고 경계하며 하수구 덮개의 철창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어가 돌멩이를 골목길에 던졌다.

트렌트는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하수구 입구에서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회색 쥐를 아이가 맹렬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브레이스가 그 지경이 되면 어쩌지?' 그는 생각했다. '불쌍한 녀석.'

그는 재촉하듯 걸음을 재촉했다. 더러운 보자르 거리(des Beaux-Arts)를 돌아 왼쪽에서 세 번째 집에 들어섰다.

"선생님이 집에 계십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라고? 그저 텅 빈 다락방이었다. 구석에 철제 침대 하나와 바닥에 철제 세숫대야와 물병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웨스트가 문턱에 나타났다. 신비로운 눈빛으로 눈짓하며 트렌트를 안으로 들이도록 손짓했다.

침대에 누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던 브레스는 고개를 들고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소식이라도?"

“별일 없습니다. 포탄만 날아올 뿐이죠.”

트렌트는 침대 위에 앉았다.

“도대체 그걸 어디서 구했어?” 그가 세면대 속에 반쯤 완성된 닭 한 마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웨스트는 비웃듯 웃었다.

“너희 둘, 백만장자냐? 솔직히 말해 봐.”

브라이트는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열었다. “아, 웨스트의 한바탕 소동인데.”

하지만 웨스트가 바로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보시오, 포위 공격이 있기 전, 저는 이 곳에 있는 한 ‘특이한’ 인물에게 소개장을 받았었죠. 뚱뚱한 은행가였는데, 독일계 미국인 종류요. 그 종을 아시는 것 같군요. 물론 저는 그 소개장을 건네는 것을 잊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악당은 호사스럽게 살더라고. 이 사람아, 난롯불이라니! 대기실에까지 난롯불이 피워져 있더라고! 마침내 그 시동(侍童)이 황송하게도 내 편지와 명함을 위로 가져갔지. 나를 복도에 세워둔 채로 말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보이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는데, 난롯가 식

탁에 차려진 연회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러자 시동이 내려오는데, 아주 무례하게 굴더군. 아니요, 오 아니죠, 자기 주인은 '집에 안 계시고, 사실 지금은 소개장을 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으십니다. 포위 공격에다 여러 사업상의 어려움이—'"

나는 버튼스에게 발차기를 날리고, 테이블 위의 이 닭을 집어 든다. 그리고 빈 접시 위에 내 카드를 던져 놓는다. 버튼스를 프로이센 돼지 같은 존재라 부르며, 전쟁의 영광을 안고 그곳을 떠난다.

트렌트는 고개를 저었다.

"하트만이 자주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지." 웨스트가 이어 말했다. "이 닭고기에 대해 말하자면, 절반은 브레스와 내 것이고, 절반은 코레트의 것이야. 물론 너는 내 몫을 함께 먹어줄 거야. 나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나도 마찬가진데." 브레이스가 말을 시작했지만, 트렌트는 그들의 찌그러진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배가 고프지 않아."

웨스트는 잠시 주저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브레트의 몫을 잘라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그는 인사를 나누고 곧장 서둘러 떠났다.

그는 세르팡트 거리 470번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코레트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세단 전투 이후 고아가 된 그녀는, 뺨의 장미빛을

어디서 얻었는지 하늘만 알고 있었다. 포위 공격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혹했으니까.

"그 닭은 그녀를 기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난 정말 그녀가 웨스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 트렌트가 말했다. 그러고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봐, 친구, 발뺌하지 말고 말해 봐. 지금 얼마나 남았어?"

다른 한은 잠시 주저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자, 친구." 트렌트가 재촉했다.

브라이트는 베개 밑에서 주머니를 꺼내 친구에게 건넸다. 그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친구는 마음이 움직였다.

"일곱 아들이라니. 네 말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 대체 왜 내게 오지 않는 거냐? 브레이스, 내가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나누어 써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네 의무이며 모든 미국인의 의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며 설명해야 하느냐? 너희는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하고, 도시는 봉쇄되어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는 독일의 하찮은 놈들과 알 수 없는 일들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대체 왜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냐?"

"저, 그러겠습니다, 트렌트. 하지만 그 은혜는 아마도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데—"

"당연히 내가 돈을 받을 거야! 내가 이자 사내였다면, 당신의 재능을 담보로 삼았을 거야. 네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말이야—"

"그만해, 트렌트—"

"좋아. 하지만 더 이상 장난치지 마."

그는 주머니에 금화 열두 개를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이불 밑으로 밀어 넣으며 브레이스에게 미소 지었다.

"너는 몇 살이냐?" 그가 쏘아붙였다.

"열여섯."

트렌트는 친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나는 스물두 살이야. 너로선 내가 할아버지나 다름없지.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는 내 말만 들어."

"공성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브레이스는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다.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그 기도에 답하듯, 12월 밤의 폭풍 구름 사이를 뚫고 포탄이 날아오르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II

웨스트는 뤼 세르팡틴가에 있는 한 집 문간에 서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하트만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은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하트만에게 논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너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부른다고?" 그가 비웃었다. "베를린과 지옥에는 그런 미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 너는 주머니에 흰 빵과 쇠고기를 잔뜩 채워 넣고 30프랑짜리 와인 한 병을 든 채 콜레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정작 미국 응급구호단과 공공부조에는 1달러도 내지 못하지. 브레이스는 반쯤 굶주리면서도 거기에 돈을 내는데 말이야!"

하트만은 보도 가장자리로 물러났지만, 웨스트는 천둥구름 같은 얼굴로 그를 쫓아갔다.

"감히 너 자신을 내 동포라 부르지 마라!"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화가라고도 부르지 마라! 진짜 화가가 공공방어부서 따위에 기어들어가서, 쥐처럼 사람들의 식량이나 뜯어먹는 짓을 하겠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트만이 벌에 쏘인 듯 움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말해 두마. 그 알자스 양조장과 거기 들끓는 능청맞은 도둑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들이 용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너도 알잖아."

"넌 거짓말쟁이야, 개새끼!" 하트만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쥔 병을 웨스트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웨스트는 순식간에 하트만의 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죽은 듯한 벽에 밀착시킨 채, 잔인하게 몸을 흔들었다.

"지금 내 말 잘 들어."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이미 용의자야. 그리고 내가 맹세하건대, 너는 돈 받고 일하는 간첩이라고 봐! 그런 해충 같은 놈을 색출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고발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건 명심해라! 콜레트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나도 너를 견딜 수가 없어. 이 거리에서 너를 다시 보게 되면, 좀 불쾌한 꼴을 보게 해주지. 꺼져라, 이 매끈한 프로이센 놈아!"

하트먼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웨스트는 그 칼을 빼앗아 그를 길가 배수구로 내동댕이쳤다. 이 장면을 목격한 거리 아이는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거리를 가르며 거칠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사방에서 창문이 열렸고, 허약한 얼굴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에 시달리는 도시에서 누가 웃을 수 있느냐며 그 이유를 묻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승리인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기 봐," 웨스트가 하트만이 보도에서 몸을 일으키자 소리쳤다. "보라고! 이 구두쇠야! 저 얼굴들을 봐!"

그러나 하트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한 눈빛으로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걸어서 사라졌다. 그때 트렌트가 갑자기 모퉁이에 나타나 웨스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웨스트는 자기 집 문 쪽으로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들어오게. 팔로비가 위에 있어."

"그 칼로 대체 뭐 하는 거야?" 팔로비가 물었다. 그가 트렌트와 함께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웨스트는 여전히 나이프를 꽉 쥐고 있는 부상당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실수로 베인 거야."라고 말하며 나이프를 구석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팔로비는 뚱뚱하고 게으른 몸으로,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트렌트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반쯤 간파한 듯, 미소를 띠며 팔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너와 꼭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그게 어디 있나? 배고파." 팔로비가 과장된 열의를 담아 되물었다. 하지만 트렌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에게 조용히 들으라고 일렀다.

"일주일 전에 너에게 얼마나 선급으로 줬지?"

"삼백 팔십 프랑입니다." 상대가 반성하는 듯 몸을 비비며 대답했다.

"그것은 어디에 있소?"

패로비는 복잡한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트렌트가 곧 그 말을 끊었다.

"알고 있어. 네가 다 탕진해버렸지—항상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잖아. 공성전 이전의 네 행적 따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아. 네가 부자고,

마음대로 돈을 쓸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는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

하지만 _지금_은 내 일이야. 네가 또 돈을 구할 때까지 내가 자금을 대줘야 하거든. 그리고 공성전이 어떻게든 끝날 때까지 너는 새 돈을 손에 넣지 못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게 창밖으로 던져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응, 물론 네가 나중에 갚을 거라는 건 알지.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친구야, 네 친구들의 의견은 이래—육체적 쾌락을 좀 자제한다고 해서 네게 나쁠 게 없다는 거지. 너는 이 기근에 시달리는 해골 같은 도시에서 그야말로 별종이야!"

"나는 제법 살이 좀 쪘소." 그가 시인했다.

"너 정말 돈이 다 떨어진 게 맞냐?" 트렌트가 쏘아붙였다.

"네, 맞아요." 다른 한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생토노레 거리의 구운 새끼 돼지—아직 거기 있나?" 트렌트가 이어 말했다.

"뭐……?" 그 약한 자가 더듬거렸다.

"아—그렇군! 그 유혹적인 돼지 앞에서도 적어도 열두 번은 넋을 잃었더군!"

그는 웃으며 팔로비에게 20프랑 동전 뭉치를 건넸다. “이걸 사치품으로 쓴다면, 너는 자신의 살을 베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세면대 옆에 앉아 손을 감고 있는 웨스트를 도와주러 갔다.

웨스트는 그에게 매듭을 묶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곤 말했다.

“어제 내가 당신과 브레이트를 떠나 코레트에게 닭을 가져다주러 갔을 때, 기억나죠?”

“닭이라니! 세상에나!” 폴로비가 신음했다.

“닭,” 웨스트가 반복했다. 폴로비의 비통함을 즐기는 듯했다. “나, 그건, 상황이 달라졌어. 코레트와 나는 결혼할 거야.”

“닭…… 닭이 어쨌다는 거야?” 팔로비가 신음했다.

“입 다물어!” 트렌트가 비명처럼 웃으며 웨스트의 팔을 끼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가엾은 것,” 웨스트가 말했다. “생각해 봐, 일주일 내내 땔감 한 조각도 없었는데, 내가 점토 인형에 써야 한다고 여겨서 나한테 말도 안 했대. 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비웃는 듯한 점토 님프를 산산조각 내 버렸어. 나머지는 얼어 죽든 말든 알 게 뭐야!”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내려가시는 길에 잠깐 들러 ‘봉수아(안녕히)’ 인사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17번이에요.”

“네.” 트렌트가 대답하고는, 문 뒤를 조용히 닫으며 나갔다.

그는 세 번째 계단에서 멈춰 섰다. 성냥을 하나 켜고, 칙칙한 문들이 늘어서 있는 쪽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17번 문 앞에서 손가락을 두드렸다.

"조르주, 너야?" 문이 열렸다.

"아, 죄송합니다, 잭 씨. 웨스트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 들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해요. 실비아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리고?" 트렌트가 비웃듯 물었다.

"나 정말 행복해."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순금 같은 놈이야." 트렌트가 대답하고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랑 조지가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었으면 해. 작은 모임 같은 거지. 내일은 실비아의 생일이거든. 열아홉이 되는 날이야. 손(Thorne)에게는 편지를 보냈고, 구르날렉 가문도 사촌 오딜과 함께 올 거야. 팔로비는 자기 혼자만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실비아에게 전할 사랑스러운 말들을 잔뜩 부탁했다. 그는 인사를 나누고 밤의 안녕을 빌었다.

그는 거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그는 루 드 라 뤼네를 가로질러 루 드 세인으로 들어섰다.

초겨울 밤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천문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포격은 더욱 격렬해졌다. 프로이센 대포의 일정하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몽발레리엔의 묵직한 충격음으로 끊어졌다.

포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쏟아졌다. 유성처럼 긴 자국을 남기며.

그가 돌아서 뒤를 바라보자, 이시 요새에서 푸르고 붉은 로켓들이 수평선 너머로 치솟았다. 북쪽 요새는 장작더미처럼 타올랐다.

"좋은 소식이다!" 성 게르맹 대로 쪽에서 한 남자가 외쳤다. 마법이라도 부린 듯 거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눈은 오그라들고, 몸은 떨며, 이빨은 떨리는 사람들.

"자크!" 누군가 외쳤다. "로아르 군!"

"이봐, 친구, 드디어 그 때가 왔군! 내가 말했지?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내일? 오늘 밤? 누가 알겠나?"

"정말이야? 출격이야?"

누군가 말했다. "세상에—출정이라니—내 아들은 어쩌고?" 또 다른 이가 외쳤다. "센 강으로? 퐁뇌프 다리에서 로아르 군의 신호를 볼 수 있다고들 하던데."

트렌트 근처에 한 아이가 서서 계속 반복했다. “엄마, 엄마, 내일 우리는 흰 빵을 먹을 수 있겠지?” 그 옆에는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위축된 손을 가슴에 꼭 쥐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사실일까? 누가 그 소식을 들었지? 뤼 드 뷔시 거리의 신발 가게 주인은 한 모빌(국민유격대원)에게서 들었는데, 그 모빌은 한 프랑티뢰르(의용 저격병)가 국민방위대 대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트렌트는 뤼 드 센을 가로질러 강 쪽으로 몰려가는 군중을 따라갔다.

로켓이 연이어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다. 이제 몽마르트르에서는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몽파르나스의 포대에서도 굉음과 함께 가세했다. 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트렌트가 물었다. “누가 루아르 군의 신호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포신의 번쩍임에 맞춰, 아크 드 트리옴프의 거대한 실루엣이 검은 형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포 소리가 부두를 따라 울려 퍼졌고, 오래된 다리가 진동했다.

또다시 푸앵 뒤 주르 쪽에서 섬광과 묵직한 폭발음이 다리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요새의 동쪽 보루 전체가 활활 타오르며 탁탁 소리를 냈고, 붉은 불꽃을 하늘로 뿜어 올렸다.

“아직 신호를 본 사람이 없나?” 그가 다시 물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한 남자가 속삭였다. “아프고, 굶주리고,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지. 출정인가? 그들은 기꺼이 나간다. 굶주림인가? 그들은 굶어 죽는다. 항복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 파리 시민들은 영웅인가? 대답해, 트렌트!”

미국 구급대 외과 의사가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리의 난간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소식이라도 있나요, 박사님?” 트렌트는 기계적으로 물었다.

“소식?” 의사가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시간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루아르 군이 몽발레리엔에 신호를 보냈다더군."

“가엾은 자들.”

의사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나는 너무 바쁘고 걱정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소. 마지막 출격 이후, 우리 작은 군단에는 구급차 오십 대 분량의 일감이 몰려왔소. 내일 또 출격이 있소. 당신들이 본부로 와서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소. 자원자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가 갑자기 물음을 바꿔 물었다.

"마담은 어떠시오?"

"음," 트렌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날이 갈수록 더 초조해 보인다. 지금쯤 내가 곁에 있어야 해."

"그녀를 잘 돌봐 주시오." 의사가 말했다. 그러더니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지금은 갈 수 없소—안녕히!"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불쌍한 자들아!" 그러고는 재촉하듯 사라졌다.

트렌트는 난간 너머로 몸을 굽혀, 아치형 교각 사이로 거세게 흐르는 검은 강물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물살의 표면을 타고 빠르게 떠내려오는 어두운 물체들이 돌 교각에 부딪히며 갈리고 찢기는 듯한 소리를 내고는, 잠시 빙글 돌더니 어둠 속으로 떠밀려 갔다. 마른 강에서 흘러온 얼음 조각들이었다.

그가 물속을 응시하며 서 있을 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안녕, 사우스워크!"

그가 돌아서며 외쳤다.

“너 같은 놈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트렌트, 내가 할 말이 있어. 여기 머물지 마라. 로아르 군대를 믿지 마.” 미국 대사관 부무관이 팔을 슬쩍 감아 트렌트의 팔을 끼고는 그를 루브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이군!” 트렌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더 나쁜 일이야. 우리 공사관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그건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야. 오늘 오후에 일이 있었어. 알자스 브라스리에 수색대가 들이닥쳤고, 하트만이라는 미국인이 체포됐어. 그자를 아나?"

“나 ‘미국인’을 자처하는 독일인을 하나 알고 있어. 하트만이라는 놈이지.”

“아, 그는 약 두 시간 전에 체포됐어. 그들은 그를 총살하려 해.”

“뭐라고!”

물론 우리 공관에서는 그를 즉결 처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지만, 증거는 명백해 보인다.

“그는 첩자야?”

“음, 그의 방에서 압수한 문서들이 꽤나 유력한 증거야. 게다가 그는 공중 식량 위원회를 속였다는 혐의도 뒤집어썼지. 오십 명분의 식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하는데, 그 수법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는 자신을 미국인 화가라고 주장해 왔고, 우리 영사관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정말 난감한 일이야.”

“그런 때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빈자의 상자를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야.” 트렌트가 분노에 차 외쳤다. “그들을 총으로 쏘게 해라!”

“그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래, 그래." 트렌트가 비통한 어조로 받았다. "미국 시민권이 귀중한 특권이라니, 눈깔 튀어나온 독일인 놈마다 죄다—" 분노가 그의 목을 막아 말을 잇지 못하게 했다.

사우스워크는 그를 따뜻하게 악수했다. “어쩔 수 없소. 우리는 그 썩은 시체를 받아들여야 하오. 아마 당신이 그를 미국 화가로 신원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을지도 모르겠소.” 깊은 주름이 진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쿠르 라 레인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등을 돌렸다.

트렌트는 잠시 묵묵히 욕설을 뱉은 뒤 시계를 꺼냈다. 일곱 시였다. '실비아가 걱정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한 그는 서둘러 강가로 되돌아갔다. 군중은 여전히 다리 위에서 추위에 떨며 옹기종기 모여, 어둡고 가엾은 회중처럼 루아르 군의 신호를 찾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포 소리의 박자에 맞춰 뛰었고, 보루에서 번쩍이는 섬광마다 그들의 눈도 빛났으며, 떠오르는 로켓과 함께 희망도 솟구쳤다.

검은 구름이 요새 위에 무겁게 드리워졌다.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대포 연기가 물결치는 띠처럼 뻗어 있어, 때로는 첨탑과 돔을 구름처럼 뒤덮고, 때로는 거리 위로 깃발과 누더기처럼 흩날렸으며, 때로는 지붕에서 내려와 부두와 다리, 강까지 유황 빛 안개로 감쌌다. 그 연기 장막 너머로 대포의 번개가 번쩍였고, 가끔 위쪽 틈새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천장이 별들을 박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뤼 드 센으로 들어섰다. 덧문이 닫힌 채 늘어서 있고, 불 켜진 가로등 하나 없는 황량하고 쓸쓸한 거리였다. 그는 조금 긴장되어 한두 번 권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옆을 슬그머니 스쳐 가는 형체들은 굶주림에 지쳐 위험할 것 같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고, 별 탈 없이 자기 집 현관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의 목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는 공격자와 뒤엉켜 얼음처럼 차가운 보도 위를 데굴데굴 굴렀고, 목에 걸린 올가미를 뜯어내려 안간힘을 쓰다가, 몸을 비틀어 떨쳐내고 벌떡 일어섰다.

"일어나라." 그가 다른 이에게 외쳤다.

작은 꼬마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길가 구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트렌트를 향해 혐오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참으로 깔끔한 수법일세." 트렌트가 말했다. "네 나이에 그런 짓이라니! 너는 곧 벽에 부딪혀 망하게 될 거야. 그 줄을 내게 줘!"

꼬마는 말없이 그에게 올가미를 건네주었다.

트렌트는 성냥을 하나 긁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의 습격자를 바라보았다. 어제 밤의 쥐잡이 사내였다.

"음, 그렇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 네가 있구나." 소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거지 같은 놈의 무례함과 압도적인 대담함에 트렌트는 숨이 막혔다.

"너 같은 어린 강도들이…"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너희 나이 먹은 도둑들은 총살당한다는 거, 알고 있나?"

아이의 얼굴에는 감정이 깃들지 않았다. 그는 트렌트를 향해 무표정하게 다가섰다.

"쏘세요, 그럼."

그건 너무했다. 그는 발을 돌리더니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불 꺼진 계단을 더듬어 올라가, 마침내 자기 층의 층계참에 닿은 그는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더듬어 찾았다. 자기 화실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웨스트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팔로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다. 마침내 손잡이를 잡은 그는 문을 밀어젖히고, 잠시 빛에 눈이 부셔 어쩔 줄 모른 채 섰다.

"이봐, 잭!" 웨스트가 외쳤다.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해 놓고 기다리게 하다니, 참 즐거운 인간이로군. 여기 팔로비는 배고파서 우는 중이라네—"

“입 다물어.” 후자가 말했다. “아마 칠면조 사러 나갔을 테니까.”

“저 녀석은 또 목 졸라 죽이러 나갔군. 그 매듭을 봐라!” 궈르날렉이 비웃듯 말했다.

“이제야 너 돈 어디서 번 거 알겠군!” 웨스트가 덧붙였다. “프랑수아 아저씨의 그 수법이라니!”

트렌트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실색한 실비아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늦으려고 한 건 아니야. 다리 위에서 포격을 잠깐 지켜보느라 멈췄거든. 걱정 많이 했어, 실비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손에 떨어지듯 스며들더니, 경련처럼 꽉 쥐었다.

“식탁으로!” 팔로비가 외치며 기쁜 비명을 지르듯 함성을 질렀다.

“진정하십시오.” 스론이 예의의 잔재라도 남긴 듯 말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콜레트와 수다를 떨고 있던 마리 게르날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론의 팔을 잡았고, 게르날렉 씨는 오딜의 팔을 자기 팔에 끼웠다.

트렌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콜레트에게 자기 팔을 내밀었고, 웨스트는 실비아를 데리고 들어갔으며, 팔로비는 그 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테이블을 세 바퀴 돌며 마르세유즈를 부르고," 실비아가 설명했다. "파울비 씨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지."

파울로비가 저녁 식사 후에 노래를 불러도 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주장은 울려 퍼지는 합창 속에 묻혀 버렸다.

"무기에 손을 대라! 대열을 갖추라!"

그들은 방 안을 행진하며 노래했다.

"가자! 가자!"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팔로비는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 운동이 식욕을 돋워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으며.

블랙 앤 테인 견종인 헤라클레스는 침대 밑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는 구르날렉이 끌어내어 오딜의 무릎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짖어대며 울부짖었다.

"이제," 트렌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 자리에 앉은 뒤였다. "들어라." 그리고 그는 메뉴를 읽기 시작했다.

파리 포위전풍 소고기 수프

물고기. 페르 라슈즈식 정어리(백포도주).

로티 (적포도주). 출하 직전의 신선한 소고기.

야채류. 샤스포(소총)식 통조림 콩, 그라벨로트식 통조림 완두콩, 아일랜드식 감자, 기타 잡다한 것들.

티에르식 차가운 콘비프(절인 쇠고기), 가리발디식 삶은 자두.

디저트. 말린 자두, 흰 빵, 건포도 잼, 차. 커피와 리큐어, 파이프와 담배.

팔로비는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실비아는 수프를 서빙했다.

"맛있지 않니?" 오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리 귀르날렉은 수프를 한 모금 마시며 환희에 젖었다.

"말고기는 소고기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뭐라든 말은 소고기 맛이 아니라는 걸요." 콜레트가 웨스트에게 속삭였다. 파로비는 식사를 마치고 턱을 쓰다듬으며 수프 냄비를 흘끗 바라보았다.

"더 드실까요, 친구?" 트렌트가 물었다.

"파울비 씨, 더 이상 드실 수 없어요." 실비아가 말했다. "이건 문지기에게 줄 거니까요." 파울비는 시선을 물고기 쪽으로 돌렸다.

그릴에서 막 건져낸 정어리 요리는 큰 호평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실비아는 늙은 여자 관리인과 그녀의 남편에게

줄 수프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돌아와 트렌트에게 행복한 미소를 보내며 의자에 앉자, 그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테이블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잠시 그는 실비아를 바라보며, 그녀가 이토록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이 제 아내의 열아홉 번째 생일입니다."

팔로비는 열정에 넘쳐 잔을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흔들었고, 옆자리의 오딜과 콜레트는 그 모습에 겁에 질렸다. 손, 웨스트, 게르날렉은 실비아를 위한 건배가 불러일으킨 박수갈채의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잔을 세 번이나 다시 채웠다.

잔은 세 번이나 실비아를 위해 채워지고 비워졌고, 다시 트렌트를 위해서도 채워졌다. 트렌트는 그러지 말라고 항의했다.

"이건 예사롭지 않군." 그가 외쳤다. "다음 건배는 쌍둥이 공화국, 프랑스와 미국을 위한 건가?"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국을 위하여!" 그들이 외쳤고, "프랑스 만세! 미국 만세! 국민 만세!"라는 함성 속에 축배의 잔이 비워졌다.

그때 트렌트가 웨스트 쪽으로 미소를 띠며 건배사를 올렸다. "행복한 두 사람에게!"

모두가 그 뜻을 알아챘다. 실비아가 몸을 기울여 코레트를 껴안고 입맞춤했다. 트렌트는 웨스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소고기는 비교적 고요한 가운데 먹혔다. 식사가 끝난 뒤, 일부는 아래층 노인들을 위해 남겨졌다. 트렌트가 외쳤다.

"파리를 위해 건배하자! 그녀가 폐허에서 일어나 침략자를 짓뭉개기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잠시 동안 그 소리는 프로이센 포병의 단조로운 굉음을 삼켰다.

파이프와 담배에 불이 붙었다. 트렌트는 잠시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활발한 수다를 들었다. 소녀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가르고 있었고, 팔로비는 은은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러자 그는 웨스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밤 출격이 있다." 그가 말했다. "방금 들어오기 전, 미국 구급대 외과 의사를 만났다. 그는 너희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영어로 말했다. "나는 내일 아침 구급차와 함께 나갈 거야. 물론 위험은 없지. 하지만 실비아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웨스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은 스론과 게르날렉이 끼어들어 도움을 제안했고, 팔로비는 신음하며 자원했다.

"좋아." 트렌트가 재촉하듯 말했다. "이쯤에서 끝내자. 내일 아침 여덟 시, 구급대 본부에서 만나자."

실비아와 코레트는 영어로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조각가는 대체 보통 뭐라고 수다를 떨까요?” 웨스트가 웃으며 물었다.

오딜은 약혼자인 손을 향하여 책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프랑스인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전쟁은 당신의 일도 아닌데.” 오딜이 위엄 있게 말했다.

손은 유순한 표정을 지었지만, 웨스트는 분개한 도덕가의 태도를 취했다.

"이거 참," 그가 팔로비에게 말했다. "모국어로 그리스 조각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연히 의심을 받는 모양이군."

콜레트가 그의 입을 손으로 막고서 실비아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저 남자들, 정말 거짓말이 심해.”

“응급차라는 말은 두 언어 모두에서 똑같을 거예요.” 마르이 그르날렉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실비아, 트랑 씨를 믿지 마요.”

“잭,” 실비아는 속삭였다. “나에게 약속해—”

스튜디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라!” 패로비가 외쳤지만, 트렌트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급한 변명을 던지며 복도로 나간 뒤, 문을 닫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투덜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잭?” 웨스트가 외쳤다.

"무슨 일이냐고?" 트렌트가 사납게 되물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나는 방금 미국 공사로부터 전보를 받았어. 당장 가서, 동포이자 동료 예술가로서, 어떤 악질 도둑이자 독일 간첩 한 놈을 신원 확인하고 인수해 오라는 거야!"

“가지 마세요.” 팔로비가 권했다.

“내가 막지 않으면, 그들은 곧장 그를 사살할 거야.”

“방치해.” 소른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하트먼!” 웨스트가 열정을 담아 외쳤다.

실비아는 죽은 듯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으나, 오딜이 팔로 그녀를 감싸 안고 의자까지 부축하면서 차분히 말했다. "실비아가 기절했어. 방이 더워서 그래. 물 좀 가져와."

트렌트가 즉시 그것을 가져왔다.

실비아는 눈을 떴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났다. 마리 귀르나렉과 트레트의 지지를 받으며 침실로 들어갔다.

이는 자리를 파할 신호였다. 모두가 와서 트렌트와 악수를 나누며, 실비아가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말했다.

마리 귀르날렉이 작별 인사를 건넬 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네며, 그녀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나요, 잭?" 웨스트가 물었다. 그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동료들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트렌트는 난간 위로 몸을 숙여 그들의 발소리와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리고 아래쪽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집안 전체가 고요해졌다. 그는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검은 안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불만스러운 듯 몸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미쳤어!" 그리고 촛불을 켜 침실로 들어갔다. 실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 위로 몸을 숙여 이마의 곱슬머리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실비아, 괜찮아졌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순간,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부딪혔다. 하지만 그 시선에서 그가 읽어낸 것은 그의 심장에 서늘한 한기를 안겨주었다. 그는 몸을 웅크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변해 있었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가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그 목소리였다. 그는 손을 놓았고, 의자에 빳빳이 앉아 경청했다.

"잭, 드디어 그 일이 생겼소. 나는 오랫동안 이를 두려워하며 떨었소. 아! 내가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이 무게를 가슴에 안고, 당신이 그것을 알기 전에 죽기를 빌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오, 잭. 당신이 떠나버린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저를 속였소. 그것은 당신이 나를 알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당신이 루크상부르 공원에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말을 건네던 그 첫날 이후로, 잭, 저는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로 당신에게 충실했소.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이 떠날까 봐 고백하지 못했소. 그 후로 제 사랑은 자라났고—자라났소. 그리고 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아직 모른 채요. 그를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신경 쓰겠소? 그는 잔혹했소. 오, 정말로 잔혹했소!"

그녀는 얼굴을 팔 안에 파묻었다.

"계속해야 하나? 내가 말해야 해? 너는 상상도 못 할 거야, 오! 잭—"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죽은 듯했다.

"저는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그는—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트렌트가 일어나 주먹으로 촛대를 쳤다. 방 안이 캄캄해졌다.

생술피스 성당의 종소리가 시각을 알렸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열에 들뜬 듯 다급하게 말했다. "끝까지 다 말해야 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조차 이미 너무 늦은 뒤였지. 그리고 나를 그에게 묶어 두는 그 '또 하나의 생명'이 영원히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거야! 그가 자기 자식이라 인정하고 다정히 보살펴 온 또 다른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는 죽어선 안 돼.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그를 총살하게 둘 수는 없어!"

트렌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끝없이 계속 돌고 있었다.

실비아였다. 작은 실비아. 그와 함께 학생 시절을 보냈던, 포위 공격의 지루하고 황량한 고난을 불평 없이 견뎌냈던 소녀. 그는 조용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가느다란 몸매에 푸른 눈동자를 지녔다. 그의 기분에 따라 그는 그녀를 장난스럽게 놀리거나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때로는 그녀의 열렬한 애정이 그를 조금은 조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실비아가, 과연 그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누워 있는 그 실비아가 맞을까?

그가 이를 꽉 깨물었다. "죽게 내버려 둬! 죽게 내버려 둬!"

하지만 그는 멈춰 섰다. 실비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른 이'를 위해서였다.

그는 가야 했다. 반드시 가야 했다. 그의 앞에는 분명한 의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실비아에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자신이 될 수 없었다. 모든 말이 끝난 지금,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켰다.

그녀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곱슬머리가 얼굴을 가린 채 흐트러져 있었고, 하얗고 작은 손은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동료 같았던, 그의 어린 아내였다. 아! 그는 이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늦었다고? 왜? 그때 그는 그 '다른' 존재를 떠올렸다—그녀를 얽매어 두고, 그녀를 영원토록 그 사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사내에게 묶어 두는 그 존재를.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아니면 그가 도리어 문을 밀어붙여 잠가버린 것이었을까. 그러고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그녀를, 목숨이 걸려 있다 해도 감히 떠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III

그가 미국 공사관 서기와 함께 사형수 감옥을 나온 시각은 새벽 네 시였다. 감옥 앞에는 군중이 모여들었고, 미국 공사 관용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얼어붙은 거리에서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마부도 모피 옷에 감싸고 마차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우스워크는 서기를 마차 안으로 모셨고, 트렌트와 악수를 나눴다. 트렌트가 찾아와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 도적 같은 놈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말했다. “네 증언은 발길질보다 더 끔찍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 그의 목숨은 구해졌지. 그리고 더 큰 complications(분규)도 막아냈어.”

서기관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우리 몫을 다 했소. 이제 저들이 그를 간첩이라고 증명해 보이라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서 손을 떼는 겁니다. 어서 타시오, 선장! 어서 갑시다, 트렌트!"

"사우스워크 선장에게 한마디 드릴 말이 있습니다. 오래 붙들지는 않겠습니다." 트렌트가 다급히 말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사우스워크, 이번에는 _저를_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악당에게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그—그 아이가 지금 그자의 방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아이를 데려다 제 아파트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자가 총살된다면, 제가 그 아이를 거두어 살 곳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선장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따뜻한 악수로 맞잡혔다. 그러자 사우스워크 선장은 마차에 올라타며 트렌트에게도 함께 타라는 손짓을 했지만, 트렌트는 고개를 저으며 "잘 가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차는 굴러 멀어져 갔다.

그는 마차가 거리의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구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한두 걸음 만에 주저했고, 멈춰 섰으며, 결국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무언가가—아마도 방금 전 마주했던 그 죄수의 모습이—그를 메스껍게 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고독과 고요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의 일들은 그를 끔찍하게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걸으며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묻어버린 뒤 다시 실비아에게 돌아가려 했다. 그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고, 한동안은 쓰라린 생각들도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마침내 숨이 차서 개선문 아래에서 발을 멈춰 섰을 때, 모든 것의 쓰라림과 비참함—그렇다, 헛되이 보낸 그의 인생 전체의 비참함이—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되살아났다. 그러자 죄수의 얼굴이, 끔찍한 공포의 일그러짐을 새긴 채 그의 눈앞 그림자 속에서 점점 커져 갔다.

마음이 병들고도 지친 채, 그는 거대한 아치 아래를 오갔다. 머릿속을 채우기 위해 애썼다. 조각된 코니스를 올려다보며, 거기에는 분명 각인되어 있을 영웅들과 전투의 이름을 읽어내려 했다.

하지만 하트먼의 재색진 얼굴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공포에 질린 듯이 비웃는 그 얼굴이.

아니, 정말로 공포였을까?

아니면 승리의 미소였을까?

그 생각에 그는 목덜미에 칼이 닿은 사람처럼 벌떡 뛰어올랐다. 광장을 맹렬히 한 바퀴 도는 사나운 행보를 남긴 뒤, 그는 다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뺨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타올랐다. 수치심이라니? 왜? 우연히 어머니가 된 소녀와 결혼했기 때문일까. 그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이 비참한 보헤미안적 삶이,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자 목표였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마음속 비밀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악한 이야기를 읽었다. 과거의 이야기였다. 그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렸다. 머리에 울리는 둔통의 박자에 맞춰, 그의 심장은 미래의 이야기를 박동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치욕.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각에 스며들던 쓴맛을 무디게 하던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작스러운 안개가 거리에 깔려, 개선문의 아치들은 그 안개로 막혀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혼자라는 끔찍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안개는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주위 안개 속에서 그들은 움직였고, 길게 늘어선 줄을 이루며 아치를 통과해 흘러

가서는 사라졌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유령들이 솟아올라 지나가서는 삼켜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까지 유령들이 몰려들어 그를 만지고, 앞과 옆과 뒤에서 떼지어 그를 뒤로 밀어붙이며, 붙잡아 안개 속으로 끌고 갔다. 희미한 대로를 따라, 안개로 하얗게 뒤덮인 골목과 좁은 길들을 그들은 지나갔다. 만약 그들이 말을 한다면 그 목소리는 그들을 감싼 수증기처럼 둔탁했을 것이다. 마침내 앞쪽에, 거대한 철창 문으로 가로질러진 벽돌과 흙의 토벽이 안개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허벅지를 부딪치며 천천히, 그리고 더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그러다가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안개를 흔들었다. 안개는 출렁이고 소용돌이쳤다. 사물들이 더 또렷해졌다. 창백한 빛이 지평선 위로 기어올라 물기 머금은 구름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수천 자루 총검에서 둔한 불꽃을 끌어냈다. 총검들—그것은 사방에 있었다. 안개를 가르거나, 강물처럼 그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벽돌과 흙으로 된 그 높은 토벽 위에는 거대한 대포 한 문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실루엣 같은 형체들이 움직였다. 아래쪽에서는 넓은 총검의 격류가 철창 문을 지나 흘러나와 어둑한 평원으로 쏟아져 나갔다. 점차 날이 밝아왔다. 행진하는 무리 속에서 얼굴들이 더 또렷해졌고, 그는 그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

"너, 필립!"

그 형체가 고개를 돌렸다.

트렌트가 외쳤다. "내 자리도 있는가?" 하지만 상대는 흐릿하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할 뿐, 다른 병사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기

병대가 지나가기 시작했다. 중대가 이어져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갔다. 이어 수많은 대포가, 그다음에는 구급마차가, 그리고 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총검의 행렬이 지나갔다. 그의 옆에는 흉갑기병 한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쪽 기마 장교들의 무리 사이로는 한 장군이 보였다. 도르만 외투의 아스트라칸 깃이 핏기 없는 그의 얼굴 주위로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 한 여자는 군인의 배낭에 검은 빵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군인은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배낭 끈은 이미 매듭 지워져 있었고, 소총이 거슬려 손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트렌트가 소총을 받아 들었다. 군인은 여자가 배낭 단추를 풀고 빵을 밀어 넣는 사이, 젖어 버린 빵을 지켜볼 뿐이었다. 눈물 때문에 빵은 이미 축축해져 있었다.

소총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트렌트는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다루기 좋다는 것을 느꼈다.

총검은 날카로웠을까? 그는 한 번 시험해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갈망이, 거세고도 명령하듯 강한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다.

"쥬엣!" 철문 창살에 매달린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또 왔군, 옛 친구여?"

트렌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쥐잡이가 그의 얼굴을 향해 비웃듯 웃었다. 하지만 병사가 다시 소총을 거머쥐고,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자대 복귀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자, 그는 다시 성문 주위의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너도 가는 거야?" 그는 발을 감고 있는 하수구에 앉아 있는 해병에게 외쳤다.

"네."

그때 한 소녀가—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소녀가—그의 손을 잡고 성문 맞은편 카페 안으로 그를 이끌었다. 방 안은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죽으로 덮인 긴 의자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공기는 시큼하고 숨이 막힐 듯했다.

"선택하세요!" 소녀가 약간의 연민 어린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다. "그들은 갈 수 없어요!"

그는 바닥에 쌓인 옷더미 속에서 코포와 케피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가 배낭과 탄약 상자, 그리고 허리띠를 채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고는 자기 무릎 위에 총을 올려놓고서, 샤스포 소총을 장전하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는 외국인이야!"

"미국인이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러나 아이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

"나는 브르타뉴 여인입니다. 제 아버지는 저기 해병대 대포 옆에 서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정탐꾼이라면, 쏘아 죽이실 겁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마주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몸을 굽혀 아이에게 키스했다.

"프랑스를 위해 기도해 줘, 작은이."

그가 속삭이자, 아이는 창백한 미소를 띠며 되뇌었다.

"프랑스와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선생님."

그는 거리를 가로질러 뛰어넘어 게이트를 통과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줄에 섞여 들어가며 어깨로 길을 밀고 나아갔다. 한 하사가 그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마침내 한 장교를 불렀다. 하사는 그의 케피에 붙은 숫자를 보며 으르렁거렸다. "너는 60연대 소속이지."

"우린 프랑티에르 따위 쓸 데가 없어." 그 장교가 그의 검은 바지를 보고는 덧붙였다.

"동료를 대신해 자원했습니다." 트렌트가 말했다. 장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지나쳤다.

그를 주목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한두 사람이 그의 바지를 슬쩍 훑어볼 뿐이었다. 길은 진창과 진흙으로 깊게 패었고, 바퀴와 발굽에 갈리고 찢겨 있었다. 그의 앞을 걷던 한 병사가 얼어붙은 바퀴 자국에 발을 비끗 꺾고는, 신음하며 제방 가장자리로 몸을 끌고 갔다. 그들 양옆의 평원은 녹아내리는 눈으로 회색빛이었다. 허물어진 울타리 너머 여기저기에 수레들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 깃발이 걸려 있었다. 때로는 마부가 낡은 모자와 가운을 걸친 사제였고, 때로는 다리를 저는 국민기동대원(Mobile)이었다. 한 번은 자선 수녀회의 수녀가 모는 수레도 지나쳤다. 길을 따라 벽에 커다란 균열이 나고 창문이 죄다 텅 빈, 고요하고 텅 빈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었다. 더 나아가 위험 지대 안에서는, 여기저기 얼어붙은 벽돌 더미나 눈으로 막힌 시커먼 지하실 외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라곤 남아 있지 않았다.

트렌트는 한참 전부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발뒤꿈치를 계속 밟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것이 고의임을 확신한 그는 항의하려 돌아섰고, 자신이 보자르(Beaux Arts) 학교의 동료 학생과 얼굴을 맞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트렌트는 그를 빤히 응시했다.

"당신은 병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붕대로 감긴 턱을 가리키며.

"알겠소. 당신은 말할 수 없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상처 입은 남자는 배낭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검은 빵 한 조각을 꺼냈다.

"그는 그걸 먹을 수 없어요. 턱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씹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병사가 말했다.

트렌트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 이를 갈아 한 입 한 입 씹어 주린 남자에게 건넸다.

때때로 말을 탄 전령들이 그들에게 진창을 흩뿌리며 전방으로 질주했다. 그것은 안개에 휘감긴 흠뻑 젖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춥고 고요한 행군이었다. 도랑 건너편 철도 제방을 따라 또 다른 행렬이 그들과 나란히 이동하고 있었다. 트렌트는 그것을 지켜보았다 — 어두컴컴한 덩어리가 때로는 또렷하게, 때로는 흐릿하게, 때로는 안개 한 자락에 완전히 지워졌다. 한 번은 반 시간쯤 그것을 시야에서 놓쳤지만, 다시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측면에서 가느다란 한 줄기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줄기는 가운데가 불룩해지더니 빠르게 서쪽으로 휘어졌다. 같은 순간, 앞쪽 안개 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총성이 터져 나왔다. 본대에서 또 다른 줄기들이 떨어져 나와 동서로 흩어졌고, 총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리가 되었다. 포대 하나가 전속력으로 지나갔고, 그는 동료들과 함께 길을 비켜주려 물러섰다. 그 포대는 그의 대대 오른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격을 개시했고, 첫 강선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안개를 뚫고 굉음을 울리자, 요새의 대포들도 거대한 포효로 응사했다. 한 장교가 무언가를 외치며 말을 달려 지나갔지만 트렌트는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앞쪽 대열이 갑자기 자신들의 대열과 갈라지더니 황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더 많은 장교들이 달려와 그의 곁에 서서 안개를 응시했다. 저 멀리 앞쪽에서 총성은 하나의 길게 이어지는 굉음이 되어 있었다. 기다림은 음울했다. 트렌트는 뒤에 있는 남자를

위해 빵을 씹어 주었고, 그 남자는 그것을 삼키려 애썼으나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나머지는 트렌트가 직접 먹으라는 시늉을 했다. 한 하사가 그에게 브랜디를 조금 권했고 그는 그것을 마셨지만, 플라스크를 돌려주려 돌아섰을 때 하사는 이미 땅에 쓰러져 있었다. 놀란 그가 옆에 있는 병사를 바라보니, 병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맞아 그대로 데굴데굴 굴러 아래 도랑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장교들 중 한 명의 말이 펄쩍 뛰어오르더니 뒷걸음질로 대대 속으로 파고들며 뒷발질을 했다. 한 명이 말에 깔렸고, 다른 한 명은 가슴을 차여 대열 사이로 날아갔다. 장교는 박차를 말에 박아 다시 앞으로 몰아세웠고, 말은 그 자리에 떨며 서 있었다.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한 참모 장교가 천천히 대대 앞을 오가다가 갑자기 안장 위에서 무너져 말갈기를 움켜잡았다. 그의 장화 한 짝이 진홍색으로 물든 채 피를 뚝뚝 흘리며 등자에서 매달려 있었다. 그러더니 앞쪽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달려 나왔다. 도로도, 들판도, 도랑도 그들로 가득했고, 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한순간 그는 저 너머 자욱한 안개 속에서 기병들이 유령처럼 떠도는 것을 본 듯한 착각에 빠졌고,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자신도 보았다며, 저들이 울란 기병이라고 끔찍한 욕설과 함께 단언했다. 그러나 대대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었고, 안개는 다시 초원 위로 내려앉았다.

대령은 말 위에 무겁게 앉아 있었다. 총알 모양의 머리는 돌만(dolman)의 아스트라칸 모피 깃 속에 파묻혀 있었고, 통통한 두 다리는 등자 안에 그대로 곧게 뻗어 있었다.

나팔수들이 나팔을 든 채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고, 그 뒤에서는 옅은 파란색 재킷을 입은 한 참모 장교가 담배를 피우며 후사르 대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앞쪽 도로에서 격렬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한 전령이 말을 멈춰 대령 곁에 섰다. 대령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손짓으로 그를 후방으로 물렸다. 그때 왼쪽에서 어수선한 웅성거림이 일더니 이내 함성으로 끝났다. 후사르 한 명이 바람처럼 지나갔고, 또 한 명, 또 한 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기병 중대들이 차례차례 그들 곁을 휩쓸고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대령이 안장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고, 나팔 소리가 쟁그랑 울렸으며, 대대 전체가 제방을 기어 내려가 도랑을 건너 흠뻑 젖은 초원을 가로질러 돌진했다. 거의 곧바로 트렌트는 모자를 잃었다. 무언가가 그의 머리에서 그것을 낚아챘는데, 그는 나뭇가지인 줄로만 알았다. 많은 동료들이 진창과 얼음 위로 굴러 넘어졌고, 그는 그들이 미끄러진 줄로만 알았다. 한 명이 그의 바로 앞을 가로질러 고꾸라졌고, 그는 멈춰 서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가 손대자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한 장교가 "전진! 전진!"이라고 외쳤기에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안개 속을 한 참이나 터덜터덜 뛰어야 했고, 그는 종종 소총을 고쳐 쥐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이 철도 제방 뒤에 헐떡이며 엎드렸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행동의, 절박한 육체적 사투의, 죽이고 짓밟는 일의 필요성을 느꼈었다.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 좌우로 찢어발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었다. 사격하고 싶었고, 자신의 샤스포(chassepot) 소총에 달린 가늘고 날카로운 총검을 쓰고 싶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지치고 싶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싸우고 베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던 것이

다. 그는 누군가 대대의 절반이 그 돌격에서 쓰러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이 제방 아래에서 시체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시체는 아직 따스했고 낯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뾰족한 못이 달린 헬멧(피켈하우베)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아보고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대령은 말 위에 앉아, 붉은색 képi(모자) 아래로 눈이 빛나며 몇 발자국 왼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트렌트는 그가 한 장교에게 답하는 말을 들었다.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돌격이 있다면, 나팔을 불만큼 남는 병사가 없을 겁니다."

"프로이센군이 여기 있었나?" 트렌트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앉아 있는 한 병사에게 물었다.

"그래. 후사르들이 그들을 쓸어냈다. 우리는 그들의 교차 사격에 휩싸였지."

"우리는 제방 위 포대를 지원하는 중이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더니 대대는 제방을 기어 넘어 뒤틀린 레일을 따라 이동했다. 트렌트는 바지를 걷어 양털 양말 속에 쑤셔 넣었지만, 그들은 다시 멈춰 섰고 몇몇 병사들은 철거된 철도 노반 위에 주저앉았다. 트렌트는 보자르 출신의 부상당한 동료를 찾아보았다. 그는 자기 자리에 매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포격은 가공할 만한 것이 되어 있었다. 잠시 안개가 걷혔다. 그는 앞쪽 철도 노반 위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첫 번째 대

대와 양옆의 연대들을 흘끗 보았고, 다시 안개가 내려앉자 북이 울리고 극좌측 멀리서 나팔 소리가 시작되었다. 부대 사이로 술렁임이 지나갔고, 대령이 팔을 치켜들었으며, 북이 둥둥 울리자 대대는 안개 속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전선에 가까웠으니, 대대가 진격하면서 사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급마차들이 제방 아래쪽을 따라 후방으로 질주했고, 후사르들이 유령처럼 오갔다. 마침내 그들은 최전선에 있었다. 사방이 움직임과 혼란이었고, 바로 가까운 안개 속에서 비명과 신음과 격렬한 일제 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포탄이 사방에 떨어져 제방을 따라 폭발했고, 얼어붙은 진창을 그들에게 튀겼다. 트렌트는 두려웠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탁탁거리며 타오르고 있는 그 미지의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대포 소리의 충격에 속이 메스꺼웠다. 천둥이 땅을 흔들 때 안개가 흐릿한 주황빛으로 물드는 것까지 그는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가까웠다, 그는 확신했다. 대령이 "전진!"이라고 외쳤고 첫 번째 대대가 그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숨결을 느꼈고, 몸을 떨면서도 서둘러 나아갔다. 앞쪽에서의 무시무시한 일제 사격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고, 대령의 말은 피를 줄줄 흘리며 연기 속에서 날뛰었다.

또 다른 폭발과 충격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지며 그를 거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휘청거렸다. 오른쪽의 병사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안개와 연기가 그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는 몸을 지탱하려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잡았다. 그것은 포가(砲架)의 바퀴였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꽂을대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목에 총검이 꽂힌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고, 트렌트는 자신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계적으로 그는 자신의 소총을 집어 들려 몸을 굽혔다. 하지만 총검은 아직도 그 남자의 몸에 박혀 있었고, 남자는 붉게 물든 두 손으로 잔디를 두드리며 누워 있었다. 그 광경에 속이 뒤집힌 그는 대포에 기대섰다.

이제 사방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공기는 연기와 땀 냄새로 역겨웠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앞에서 붙잡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다시 그자들을 붙잡거나 묵직한 일격을 가했다.

총검이 부딪히는 '쩌렁! 쩌렁! 쩌렁!' 소리에 그는 격분했다. 그는 꽂을대를 움켜쥐고, 그것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한 남자가 그의 목에 팔을 휘감아 그를 땅바닥으로 쓰러뜨렸지만, 그는 그 남자의 목을 조른 뒤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 동료가 대포를 붙잡았다가 머리가 박살 난 채 그 위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령이 안장에서 완전히 떨어져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의식이 끊겼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뒤틀린 레일들 사이, 제방 위에 누워 있었다. 사방에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며 안개 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그들을 따라갔다.

한 번은 그는 밴드로 턱을 감싼 동료를 도와주려 잠시 멈췄다. 그 동료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잠시 동안 그의 팔을 붙잡았다가 얼어붙은 진흙탕 속에서 죽고 말았다. 또 다른 한 번은, 그는 신음하는 또 다른 이를 도왔다. 그 병사는 "트렌트, 나야—필리프"라고 중얼거렸지만, 갑자기 쏟아진 총알 세례가 그에게서 그 병사의 짐을 빼앗아 갔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고지대에서 내려와 안개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잠시, 해가 사악한 곁눈질로 뱅센의 헐벗은 숲 너머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포대(砲臺)의 연기 속으로 핏덩어리처럼 가라앉았다. 더 낮게, 더 낮게, 피에 젖은 평야 속으로.

IV

성술프리스의 종탑에서 자정이 울려 퍼졌다. 파리의 성문은 여전히 한때 군대였던 것들의 파편들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밤과 함께 들어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끈적한 진흙투성이의 군중이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그들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소동이 거의 없었다. 군대 발소리가 얼어붙은 거리를 울릴 때, 성문 앞의 군중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혼란이 찾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잔여 병력들이 성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기병대와 포병대가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길 양쪽을 차지

하기 위해 서로 밀고 밀렸다. 기수들이 말들을 부리면서 몰아넣었고, 탄약 수레는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그들 뒤로는 보병들이 비틀거리며 따라왔다. 여기에서는 한 연대의 뼈대만 남은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기에서는 모빌의 폭도들이 거리를 향해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기마병, 대포, 지휘관 없는 병사들, 그리고 지휘관들.

그 뒤를 이어 구급차 행렬이 이어졌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차륜이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비참함에 말문이 막힌 군중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종일 구급차들이 도착했다. 낮까지도 헐벗은 군중은 울부짖으며 장벽 곁에서 떨었다. 정오가 되자 인파는 열 배나 불어났다. 성문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안쪽 성벽 너머로 기어올랐다.

오후 4시가 되자 독일 포대들이 갑자기 연기로 뒤덮였다. 포탄이 몽파르나스를 향해 쏟아졌다.

4시 20분, 두 발의 포탄이 바크 거리(rue de Bac)의 한 가옥을 강타했다. 그 순간, 라틴 지구에 첫 포탄이 떨어졌다.

브레이스는 침대에 누운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웨스트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아래로 내려와 주겠니? 우리 집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리고 오늘 밤 약탈자들이 우리를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게 걱정돼."

브레이스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때 외투였을 옷을 서둘러 입었다.

"다친 사람 없나?" 그는 너덜너덜한 안감이 잔뜩 밀려 있는 소매와 씨름하며 물었다.

"아니요. 콜레트는 지하실에 틀어박혀 있고, 관리인은 요새로 달아났습니다. 포격이 계속되면 거기에 사나운 무리가 모일 겁니다. 당신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물론이지." 브레이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뤼 세르팡트를 지나 웨스트의 지하로 이어지는 복도로 들어서서야, 웨스트가 물었다. "오늘 잭 트렌트 봤어?"

"아니," 브레이스가 답했다. 얼굴이 어둑해졌다. "그는 구급대 본부에 없었다."

"실비아를 돌보기 위해 남았겠지."

폭탄이 골목 끝 집 지붕을 뚫고 떨어졌다. 지하실에서 폭발하며, 슬레이트와 석고가 거리 위로 흩어졌다. 두 번째 폭탄이 굴뚝에 명중해 정원으로 떨어졌다. 벽돌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 다음 골목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터졌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급히 달려 cellar로 이어지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브레이스가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올라가서 잭과 실비아가 잘 버티고 있는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어둡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

"아니. 들어가서 콜레트를 찾아. 내가 갈게."

"아니야, 안 돼, 내가 가게 해 줘. 위험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브레이스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지하실 계단을 가리켰다. 철문은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콜레트! 콜레트!" 그가 불렀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며 소녀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그들을 맞았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본 브레이스가 놀란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을 지하실 안으로 떠밀어 넣고, 그들 뒤를 따라 뛰어내려 철문을 쾅 닫았다. 몇 초 뒤, 바깥에서 무거운 충격이 가해져 경첩이 흔들렸다.

“그들이 여기 있다.” 웨스트가 매우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저 문은," 콜레트가 차분히 말했다. "끄떡없을 거예요."

브레이스는 낮은 철제 구조물을 살폈다. 그것은 바깥에서 쏟아지는 타격에 떨고 있었다. 웨스트는 불안한 눈으로 콜레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요." 브레이스가 말했다. "그들은 술을 찾아 지하실만 뒤지는 것 같소."

"만약 그곳에 귀중한 물건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묻혀 있지 않을 텐데요?" 브레이스가 불안한 기색으로 외쳤다.

"불행히도 있소." 웨스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그 인색한 집주인이—"

바깥에서 들려온 굉음과 그에 뒤이은 외침이 그의 말을 끊었다. 곧이어 연이은 타격이 문을 흔들었고, 마침내 날카로운 파열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삼각형의 쇠조각이 안쪽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에 생긴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웨스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구멍을 통해 권총을 밀어넣어 남은 총알을 모두 쏘아댔다. 잠시 동안 골목은 권총 소리로 울려 퍼졌지만, 곧이어 절대적인 고요함이 찾아왔다.

잠시 후, 문에 단 한 번의 의문스러운 두드림이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두드림이 이어졌고 또 다른 것이 계속됐다. 그러자 갑자기 철제 판을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모양의 균열이 생겼다.

"이쪽이야, 콜레트." 웨스트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따라와요, 브레이스!" 그러고는 지하실 저쪽 끝에 있는 둥근 빛 자국을 향해 재빨리 달렸다. 그 빛은 위쪽의 철창이 달린 맨홀에서 비쳐 들어오

고 있었다. 웨스트는 브레이스에게 자신의 어깨에 올라타라고 손짓했다.

"밀어넘겨. 반드시 그래야 해!"

브레이스는 별 힘 들이지 않고 철창이 달린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는 배를 깔고 기어 나와, 웨스트의 어깨에 올라선 콜레트를 손쉽게 끌어 올렸다.

"빨리, 친구!" 그가 외쳤다.

브레이스는 다리로 울타리 사슬을 감고 다시 몸을 숙였다. 지하실은 노란빛에 잠겨 있었고, 석유 횃불의 악취가 공기를 찼다. 철문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금속 판 한 장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사이, 횃불을 든 한 인물이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빨리!" 브레이스가 속삭였다. "뛰어!" 웨스트는 매달린 채 흔들렸고, 콜레트가 그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 올린 뒤에야 위로 빠져나왔다. 그제야 그녀의 신경이 풀어져 발작적으로 흐느꼈지만, 웨스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정원을 가로질러 다음 거리로 데려갔다. 브레이스는 맨홀 뚜껑을 다시 덮고 담장에서 가져온 석판 몇 장을 그 위에 쌓아둔 뒤 그들에게 합류했다. 거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불타는 건물이나 포탄이 내뿜는 섬광만이 밝히는 거리를 서둘러 지나갔다. 불길은 멀찍이 피해 다녔지만, 잔해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약탈자들의 형체가 멀리서 보였다. 때로는 술에 취해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미친 여자를 지나치기도 했고, 때로는 검게 그을린

얼굴과 손이 파괴에 가담했음을 드러내는,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를 지나치기도 했다.

마침내 그들은 센 강에 이르러 다리를 건넜고, 그때 브레이스가 말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 잭과 실비아가 무사한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가 말하는 사이, 다리를 짓밟고 지나와 도르세 병영 옆의 강둑길을 따라가는 군중을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그 한가운데서 웨스트는 한 소대의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를 알아챘다. 등불 하나가 지나가고, 한 줄의 총검이, 이어 또 다른 등불이 그 뒤편의 죽은 듯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콜레트가 "하트만!" 하고 숨을 삼키며 외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두려운 눈길로 강둑 너머를 살폈다. 부두에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병영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쪽문에 등불이 잠시 빛났고, 군중이 철창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돌이 깔린 연병장 쪽에서 일제사격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석유 횃불이 둑을 따라 하나둘 불타올랐다. 이제 광장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부터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질러, 전투의 파편들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여기 한 소대, 저기 한 무리.

그들은 모든 거리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뒤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따랐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거대한 웅성거림이 개선문을 지나 어두운 대로까지 밀려왔다.

"패배했다! 패배했다!"

대열의 맨 끝이 흐트러진 병사들이 밀려 지나갔다. 소멸의 그림자였다. 웨스트가 신음을 터뜨렸다.

그때 그림자 같은 군중 사이에서 한 인물이 뛰어나와 웨스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트렌트임을 알아보고 웨스트는 비명을 질렀다. 트렌트가 그를 붙잡았다. 트렌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실비아?"

웨스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콜레트가 신음했다. "오, 실비아! 실비아! — 게다가 그들이 라탱 지구를 포격하고 있어!"

"트렌트!" 브레이스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트렌트가 생제르맹 대로를 건넜을 때 포격은 그쳤다. 하지만 센 거리(rue de Seine) 입구는 연기 자욱한 벽돌 더미로 막혀 있었다.

어디를 보나 포탄이 보도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카페는 파편과 유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고, 서점은 지붕에서 지하실까지 찢긴 채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작은 빵집은 슬레이트와 양철 더미 위로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증기가 피어오르는 벽돌들을 넘어서 서둘러 rue de Tournon으로 들어섰다. 모퉁이에서는 불이 타올라 그의 집 앞 거리까지 비췄

고, 벽돌 담장 아래 부서진 가스등 밑에서 한 아이가 석탄 조각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여기에 첫 포탄이 떨어졌다."

그 글자들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쥐잡이는 일을 마치고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트렌트의 총검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파편이 흩어진 거리를 트렌트가 비틀거리며 지나갈 때, 폐허 속 구멍과 틈새에서 약탈을 일삼던 사나운 여인들이 그를 저주하며 달아났다.

처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더듬더듬 나아갔고, 결국 문에 닿았다. 관리인의 사무실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옆에 노년의 남자가 죽어 누워 있었다.

공포에 질려 기절할 뻔한 그는 잠시 소총에 의지했다. 그러곤 등불을 낚아채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는 부르려 했지만 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층에서는 계단 벽에 석고가 벗겨져 있었고, 3층에서는 바닥이 찢겨져 있었다. 관리인의 시체는 피바다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음 층은 그의 집이었다. 그들의 집이었다.

문은 경첩에서 벗겨져 나부끼고 있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다. 그는 기어들어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두 팔이 그의 목을 감싸 쥐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그의 얼굴을 찾아왔다.

"실비아!"

"오, 잭! 잭! 잭!"

곁에 뒹구는 베개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들이 가져다 줬어요. 제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거야." 그는 그들을 둘 다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때 아래 계단에서 브레이스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트렌트! 모두 괜찮소?"

들판의 성모 거리

"슬픔 속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행복했던 날들로 세겨지리!"

이 거리는 유행을 타지도, 초라하지도 않다. 그저 거리들 사이에서 따돌림당한 존재일 뿐이다. 특정 구역에 속하지 않는, 고립된 거리. 대개는 귀족적인 관측소 대로(Avenue de l'Observatoire)의 영역 바깥에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다. 몽파르나스 구의 학생들은 이 거리를 '세련된 곳'으로 치부하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라탱 구는 룩셈부르크 공원

을 북쪽 경계로 삼고 이 거리의 정숙함을 비웃으며, 그곳을 배회하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외지인들은 이곳을 거의 찾지 않는다. 때때로 라탱 구의 학생들이 뤼 드 렌(rue de Rennes)과 불리에(Bullier) 사이를 오가는 통로로 이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매주 오후 부모와 보호자들이 뤼 바뱅(rue Vavin) 근처의 수녀원을 방문하는 시간 외에는, 들판의 성모 거리는 파시(Passy)의 대로처럼 고요하다.

아마도 가장 정숙한 부분은 그랑 쇼미에르 거리(rue de la Grande Chaumière)와 바뱅 거리 사이일 것이다. 적어도 헤이스팅스를 책임지고 데리고 거닐던 조엘 바이람 목사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헤이스팅스에게 이 거리는 화창한 6월 날씨에 꽤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이 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맞은편 수녀원의 십자가를 보고 바이람 목사가 갑자기 경련하듯 몸을 떨었다.

"예수회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군." 해스팅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할 거야. 당신도 파리에선 악이 승리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 앞을 지나는 거리마다 예수회 신자, 혹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

잠시 후, 그는 다시 말했다.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면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이람 박사는 입술을 오므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 공간이 풍기는 단정한 품위 앞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고는 수녀원을 향하며 찡그린 표정으로 해스팅스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거리를 건너 하얀 숫자 '201 bis'가 푸른 배경 위에 칠해진 철제 문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아래에는 영어로 된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포트어에게는 한 번 누르십시오. 종에게는 두 번 누르십시오. 거실에는 세 번 누르십시오.

헤이스팅스는 전기 버튼을 세 번 눌렀다. 단정하게 차린 하녀가 그들을 정원을 지나 응접실로 안내했다. 바로 그 너머의 식당 문은 열려 있었고, 훤히 보이는 식탁에서 통통한 여인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헤이스팅스는 큰 머리를 가진 젊은 남자와 코담배 냄새가 풍기는 노신사 몇몇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다.

문이 닫히고, 여인이 코끝을 자극하는 커피 향과 함께 검은 푸들 한 마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섰다.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가 외쳤다. "당신은 영국인이오? 아님? 미국인이오? 당연하지. 제 Pension은 주로 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오. 여기서는 모두 영어를 쓰죠, 즉, 직원들 말이에요. 하인들도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구사하죠. 당신이 Pensionnaire로 오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담,” 바이람 박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말을 끊겼다.

“아, 그렇군요. 알아요. 아! 신이여! 당신은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지만, 배우러 온 것이군요. 제 남편은 우리 집에 묵는 손님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미국인 가족도 제 남편에게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죠—”

이때 푸들이 바이람 박사를 향해 으르렁댔고, 여주인은 곧바로 그놈을 한 대 쳤다.

"안 돼!" 그녀는 한 대 치며 소리쳤다. "그만하지 못해! 오, 못된 놈, 오, 못된 놈!"

“하지만, 마담,” 헤이스팅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다지 사납지 않아 보이는데요.”

푸들이 달아났다. 그러자 여주인이 외쳤다.

"아, 그 억양이 정말 매혹적이에요! 이미 파리 청년처럼 프랑스어를 구사하시네요!"

드디어 바이람 박사가 끼어들어 한두 마디 건넸다. 그는 가격에 대해 어렴풋이 정보를 모았다.

"우리 집은 진지한 하숙집이오. 손님들도 최상급이지.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식 펜션(pension de famille)이거든."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해스팅스의 새 거실을 살펴보았다. 침대 스프링이 제법 단단한지 직접 눌러보고, 일주일에 몇 번 수건을 바꿔주는지까지 세세하게 확인했다. 바이럼 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로트 부인이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며 하녀를 불렀다. 해스팅스가 자갈길을 향해 한 발짝 밖으로 나섰을 때, 그의 안내자이자 스승이라 할 노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마로트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이해하시겠지만," 그가 말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키워진 청년입니다. 그의 성격과 도덕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해외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큰 도시를 본 적도 없죠. 그의 부모님은 파리에 사는 오래된 가족 친구인 저에게,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예술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라틴 지구에 만연한 부도덕함을 안다면, 그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잠금쇠가 딸깍 하는 소리가 그를 끊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 문 뒤에서 하녀가 큰 머리의 젊은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였다.

마담이 기침을 했다. 뒤를 향해 죽일 듯한 시선을 던진 후, 그녀는 바이람 박사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여기 오게 된 건 잘된 일이지요. 이보다 더 진지한 하숙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죠!" 그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했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자, 바이람 박사는 문 앞에서 헤이스팅스와 합류했다.

"부디," 수녀원 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예수회 신부들과는 친분을 맺지 않기를 바라네!"

헤이스팅스는 회색 외벽의 수녀원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아름다운 소녀가 그 앞을 지나갔다. 헤이스팅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때 캔버스와 물감 상자를 든 젊은이가 능청스럽게 걸어왔다. 그는 아름다운 소녀 앞에 멈춰 섰다. 짧지만 힘찬 악수를 나누며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젊은이는 길을 재촉하며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À demain, Valentine!”

소녀도 같은 순간, 숨을 고르며 외쳤다.

“À demain!”

'발렌타인.' 헤이스팅스는 생각했다. '참으로 기묘한 이름이군.'

그는 조엘 바이람 목사를 따라 나섰다. 목사는 가장 가까운 전차역 쪽으로 툭툭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II

그곳은 어둠이 짙게 깔린 곳이었다.

“파리에서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스탕 씨?”

다음 날 아침, 마담 마로트가 물었다.

아스탕은 방금 위층의 좁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하러 식탁으로 들어섰다.

"확실히 좋아할 거야." 그가 말했다. 자신의 우울한 기분에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며.

여종이 그에게 커피와 빵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큰 머리의 젊은이가 보낸 멍한 시선을 마주 돌려주었고, 코담배를 즐기는 노신사들의 인사도 수줍은 듯이 받았다. 그는 커피를 다 마시려고 하지도 않고, 빵을 부스러뜨리며 앉아 있었다. 그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눈치 있는 마로트 부인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조차 그는 의식하지 못했다.

곧이어 한 여종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는데, 쟁반 위에는 초콜릿 두 그릇이 균형을 잡고 놓여 있었다. 코담배를 즐기는 노신사들은 그녀의 발목을 음흉하게 곁눈질했다. 여종은 창가 옆 탁자에 초콜릿을 내려놓고는 해스팅스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때 마른 체격의 젊은 여인이, 나이를 제외하면 그녀와 똑 닮은 동행을 뒤에 거느린 채 방으로 성큼 들어와 창가 탁자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미국인이었지만, 해스팅스가 동포로 알아봐 주리라는 어떤 기색을 기대했다면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동포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은 그의 우울을 한 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는 나이프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리며 자기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그 마른 체격의 젊은 여인은 꽤 수다스러웠다. 그녀는 해스팅스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의식하고 있었고, 그가 자기를 바라보면 곧 우쭐해질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파리에서 삼 주를 지낸 데 비해, 그는 아직 여행용 트렁크조차 풀지 못한 것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대화는 자족적이었다. 그녀는 루브르 박물관과 봄마르셰 백화점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어머니와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주로 “세상에, 수지!”라는 탄식 정도로 그쳤다.

코담배를 즐기는 노신사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차서 한꺼번에 방을 나가 버렸다. 그들은 수다로 방을 가득 채우는 미국인들을 견딜 수 없었다.

머리가 유난히 큰 젊은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알쏭달쏭한 기침을 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참으로 즐거운 옛 친구들이군!”

“그들은 늙고 나쁜 노인들처럼 보입니다, 블래든 씨,” 소녀가 말했다.

이 말에 블레든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양반들은 이미 자기 때를 다 보냈지요." 그의 어조에는 이제부터는 자기 차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모두 눈이 처진 거예요.” 소녀가 외쳤다. “젊은 신사들이 그런 모습이라니, 정말 불쌍해요.”

“왜, 수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자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다.

잠시 후 블레든 씨는 《프티 주르날》을 내려놓았다. 그는 하숙집 비용으로 비치되는 그 신문을 날마다 꼼꼼히 읽고 있었다. 그러고는 해스팅스 쪽으로 몸을 돌려 그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했다. "보아하니 미국인이신 모양이군요."

이렇게 빛나고 독창적인 첫마디에, 사무치게 향수병에 빠져 있던 해스팅스는 고마운 마음으로 응답했다. 이어진 대화는 미스 수지 빙이 분명히 블레든 씨를 향해 던지는 관찰들로 능숙하게 이어졌다. 그러던 중 미스 수지가 블레든 씨에게만 말을 거는 것을 잊고, 그녀의 일반적인 질문에 해스팅스가 답하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 화기애애한 우호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수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분명히 중립 지대였던 곳까지 보호령을 넓혔다.

"해스팅스 씨, 블레든 씨처럼 매일 저녁마다 하숙집을 비우시면 안 돼요. 파리는 젊은 신사들에게 끔찍한 곳이고, 블레든 씨는 지독한 냉소주의자랍니다."

블레든 씨는 기색이 좋았다.

“나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을 거야. 그리고 밤에 돌아왔을 때면, 아마도 그 시간이 얼마나 반가울지 모른다고 생각해.”

블레든 씨는 주급 15달러를 받으며 뉴욕주 트로이에 있는 퓨리 제조 회사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마젠타 대로에서 만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러 자리를 떴다.

헤이스팅스는 바이영 부인과 수지와 함께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초대에 따라, 그는 철제 문 앞 그늘에 앉았다.

밤나무에는 분홍색과 흰색의 향기로운 꽃송이가 여전히 달려 있었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집에 격자 시렁을 타고 오른 장미들 사이에서 벌들이 윙윙거렸다.

공기 속에는 은은한 신선함이 감돌았다. 물 뿌리는 마차들이 거리를 오르내렸고, 그랑드 쇼미에르 거리의 티 없이 깨끗한 배수로 위로 맑은 물줄기가 거품을 내며 흘렀다. 참새들은 연석을 따라 즐겁게 놀았는데, 물에서 거듭 목욕을 하며 기쁨에 깃털을 한껏 부풀렸다. 거리 건너편 담장 두른 정원에서는 검은 지빠귀 한 쌍이 아몬드나무들 사이에서 휘파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헤이스팅스는 목에 걸린 것을 삼켰다. 파리 골목의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밀브룩의 햇살 가득한 초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저건 검은 지빠귀예요." 미스 빙이 말했다. "분홍 꽃이 핀 덤불 위에 앉아 있는 저 새를 보세요. 부리만 빼면 온통 검은데, 그 부리가 마치 오믈렛에 한 번 담갔다 꺼낸 것처럼 노래요. 어떤 프랑스 사람이 한 말이라죠."

"어머, 수지!" 빙 부인이 말했다.

"그 정원은 두 미국인이 사용하는 스튜디오 소유입니다." 소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들을 자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젊고 여성인 모델들이요."

"어, 수지!"

"아마 그런 모델을 그리길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째서 다섯 명이나 부르고, 거기에 또 젊은 신사 셋을 더해서, 모두 삯마차 두 대에 끼어 타고 노래를 부르며 떠나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 거리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이 정원과, 그랑드 쇼미에르 거리 너머로 살짝 보이는 몽파르나스 대로 말고는 볼 게 없어요. 경관 한 사람을 빼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모퉁이에는 수녀원이 하나 있고요."

"저는 예수회 대학인 줄 알았어요." 해스팅스가 말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바데커 안내서 같은 설명을 들으며 말을 잃고 말았다. 설명은 이런 식으로 끝났다. "한쪽에는 장폴 로랑과 기욤 부그로의 웅장한 호텔이 서 있고, 맞은편의 작은 Stanislas Passage에서는 카롤루스 뒤랑이 세상을 매혹시키는 걸작들을 그리고 있다."

검은 지빠귀가 황금빛의 굵직한 목청으로 잔물결치는 노래를 쏟아냈고, 도시 어딘가 푸른 한 구석에서 알 수 없는 들새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맑은 트릴로 화답했다. 그러자 참새들조차 목욕을 멈추고 안절부절못한 지저귐과 함께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헬리오트로프 꽃 무더기 위에 내려앉아, 뜨거운 햇살 아래 진홍빛 띠가 둘린 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해스팅스는 그 나비가 친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키 큰 우단담배풀과 향기로운 박주가리가 색색의 날개들로 살아 움직이는 광경이, 하얀 집과 인동덩굴이 뒤덮인 베란다가, 책을 읽는 한 남자와 팬지 화단 위로 몸을 기울인 한 여인이 잠시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가득 차올랐다. 잠시 후 그는 미스 빙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향수병에 걸리신 것 같네요!" 해스팅스는 얼굴을 붉혔다. 미스 빙은 동정 어린 한숨과 함께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저도 처음에 향수병에 시달릴 때면, 늘 어머니와 함께 뤽상부르 공원을 거닐곤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예스러운 공원들이 이 인공적인 도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고향 가까이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대리석 조각상으로 가득하잖니." 빙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도무지 어떤 비슷한 점도 모르겠구나."

침묵이 흐른 뒤 해스팅스가 물었다. "뤽상부르 공원은 어디에 있죠?"

"저와 함께 대문까지 가 보시죠." 미스 빙이 말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거리 끝자락에 있는 바뱅 거리를 가리켜 보였다.

“수녀원을 지나 우측으로 가면 돼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해스팅스는 그 말을 듣고 떠났다.

III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나는 카밀라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 없이 어딘가 먼 곳을 응고 있었다.

"카밀라, 그 책, 다 읽었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시늉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혹은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카밀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유독 깊고 어두웠다.

"읽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무엇이?"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하지만 그 책이…… 나를 부르고 있어."

뤽상부르 공원은 꽃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긴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었다. 이끼 낀 대리석 조각상들과 옛 기둥들을 지나, 청동 사자상이 있는 숲을 빠져나오자, 분수 위쪽에 나무로 둘러싸인 테라스가 나타났다. 그 아래에는 햇빛 속에 반짝이는 수반이 놓여 있었다. 꽃이 핀 아몬드나무들이 테라스를 둘러쌌고, 더 큰 나선을 그리며 밤나무 숲이 서쪽 궁전 별관 곁의 축축한 덤불 사이를 굽이굽이 돌아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가로수 길의 한쪽 끝에는 천문대가 솟아 있었고, 그 흰 돔들은 동방의 모스크처럼 쌓여 있었다. 다른 쪽 끝에는 묵직한 궁전이 서 있었고, 6월의 맹렬한 햇살 아래 모든 창유리가 불처럼 타올랐다.

분수 주변에서는 아이들과 흰 모자를 쓴 유모들이 대나무 막대를 무기처럼 들고서 장난감 배를 떠밀고 있었는데, 햇살 아래 배의 돛은 축 처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붉은 견장을 달고 예식용 검을 찬 거무스름한 경관 한 명이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개의 사슬을 풀어 놓은 한 젊은이를 나무라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그 개는 다리를 공중으로 휘저으며 등에 풀과 흙을 문질러 대는 데 즐거이 빠져 있었다.

경찰관은 개를 가리켰다. 그는 분노에 겨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고, 대장님." 젊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 학생 씨,” 순경이 으르렁거렸다.

“왜 내게 와서 불평하러 온 거야?”

“그를 묶지 않으면 내가 데려가겠다.” 경찰이 소리쳤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대장님?"

“뭐라고? 그 불독은 네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슬로 묶지 않겠어?”

장교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학생이니 악당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듯, 돌연 개를 향해 덤볐다. 개는 즉각 몸을 피했다.

그들은 꽃밭을 빙빙 돌며 달렸다. 장교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불독은 꽃밭을 가로질러 빠져나갔다. 아마도 이는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젊은 남자는 재미있어했다. 개도 그 운동이 마음에 드는 듯했다.

경찰관은 이 사실을 눈치챈 뒤,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생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이 공공의 폐해물 주인인 당신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반박했다. “저는 그 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군. 정원사 세 명이 힘을 보태기 전까진 그 개를 잡으려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서자 개는 도리어 달아나 루 드 메디시 거리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경찰관은 하얀 모자를 쓴 간호사들 사이로 위안을 찾느라 비틀거려 갔다. 학생은 시계를 보고는 일어나 하품을 했다. 그러다 해스팅스를 발견하자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해스팅스는 웃으며 대리석 쪽으로 걸어갔다.

“왜요, 클리퍼드,” 그가 말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 수염이오.” 다른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떤 친구의 기묘한 취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그 친구를 위해 바쳤소. 내 개는 어때?”

“그럼 그건 당신의 것이군요?” 해스팅스가 외쳤다.

"물론이지. 경찰들과 술래잡기를 하는 건 저 녀석에게 즐거운 기분 전환이거든. 하지만 이제 정체가 알려졌으니 이 짓도 그만둬야겠어. 저 녀석은 집에 갔어. 정원사들이 손을 보태면 늘 그래. 안타깝지, 잔디밭에서 뒹구는 걸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잠시 해스팅스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리퍼드는 정중하게 스튜디오에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있잖아, 늙은 태비, 그러니까 바이람 박사가 자네를 만나기 전에 자네 얘기를 미리 해 줬어." 클리퍼드가 설명했다. "엘리엇과 나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기꺼이 해 줄 거야." 그러고는 다시 시계를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베르사유행 열차를 타려면 딱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또 보자." 그는 떠나려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분수 쪽으로

다가오는 한 소녀의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었다.

“왜 당신은 베르사유에 없소?” 그녀가 물었다. 해스팅스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인정하는 듯했다.

“나… 나 가.” 클리퍼드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러자 클리퍼드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제 친구인 해스팅스 씨를 소개해 드리는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헤이스팅스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게 미소 지었지만, 작은 파리식 머리를 조용히 기울이는 그 자세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매력적인 미국인을 데리고 오실 때, 클리포르드 monsieur께서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셨으면 했어요.”

“제발, 발렌타인. 내가 가야만 하나요?” 클리퍼드가 입을 열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클리포드는 불쾌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세실에게 내 깊은 사랑을 전해 줘!”라고 덧붙이자, 그는 몸을 움츠렸다.

그가 아사 거리 어딘가로 사라지자, 소녀는 마치 떠나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러다 문득 해스틴스를 떠올린 듯, 그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클리포르 씨가 너무 완벽하게 미쳐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때때로 당황스러울 정도죠. 물론, 그분이 살롱에서 거둔 성공에 대해서는 모두 들으셨죠?”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눈치챘다.

“당신은 살롱에 다녀왔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흘 전 파리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해명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무도 그가 뭔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기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바니싱 데이에 살롱은 클리퍼드 씨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단춧구멍에 난초를 꽂고, 더없이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멋진 그림 한 점은 명예로운 '온 더 라인' 자리에 걸려 있었고요."

그녀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분수를 바라보았다.

“부게로 씨가 말하길, 줄리앙 씨가 너무 놀라서 클리퍼드 씨와 악수할 때도 멍하니 했을 뿐만 아니라, 등도 두드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

상상해 봐라.” 그녀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파파 줄리앙이 등까지 두드려 주지 않다니.”

헤이스팅스는 그녀가 위대한 부그로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사실에 놀라,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그가 주저하며 물었다. "당신은 부그로의 제자입니까?"

“나?” 그녀는 다소 놀란 기색으로 말했다. 그러곤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농담을 건네는 것을 허락하는 걸까?

그의 평온하면서도 진지한 얼굴이 그녀의 얼굴을 물었다.

‘참, 참으로 기이한 남자야.’

"당신은 분명히 미술을 공부하고 계시죠?" 그가 말했다.

그녀는 구부러진 우산 손잡이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혔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니까요."

“당신은 나를 장난으로 여기는군요. 그것은 품위 없는 일입니다.”

그가 머리카락 뿌리까지 새빨개지자,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멈추었다.

“파리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흘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하지만—설마 노보는 아니시죠!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정말 노보세요?"

“나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클리퍼드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던 대리석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작은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어.”

그는 그 칭찬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경멸받는 자들 중 하나라고 밝히기 싫어서였다.

그러자 그는 용기를 모아 그녀에게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인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정직함에 그녀의 파란 눈이 크게 뜨였고, 입술은 가장 달콤한 미소와 함께 살짝 벌어졌다.

“너는 작업실이라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인가?”

"한 번도요."

"모델도요?"

“아니.”

“정말 재미있군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자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당신도,” 그가 말했다. “스튜디오를 본 적이 있소?”

"수백 군데요."

“그리고 모델은요?”

“수백만.”

“당신은 부그로를 아시나요?”

"네, 그리고 엔네르, 콩스탕, 로랑스, 퓌비 드 샤반, 다냥, 쿠르투아, 그 외에도—다른 분들 다요!"

“그런데도 너는 화가가 아니라고 말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아니라고 말했나요?”

“말해 주지 않을래?” 그가 망설였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발밑의 자갈 위에 우산을 대고 무언가를 그렸다.

헤이스팅스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분수 위에서 흩날리는 물방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트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 한 명 서 있었다. 그는 요트를 만지며 울부짖었다.

“집에 안 갈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그의 유모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어린 미국 소년 같군.” 해스팅스는 생각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찔렀다.

곧 간호사가 배를 점령했다. 작은 소년은 쫓겨나듯 발을 동동 구르며 버티었다.

“르네 씨, 오기로 마음먹으시면 배를 드리죠.”

소년은 찡그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내 배 줘, 달라니까." 그가 외쳤다. "그리고 나를 르네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랜달이고, 너도 그걸 알고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해스팅스가 말했다. “랜달? 그건 영어 이름이군요.”

“나는 미국인입니다.” 소년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다. 그는 뒤돌아 해스팅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바보예요. 엄마가 저를 래니라고 부르다 보니, 그녀가 저를 르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성난 간호사의 시선을 피해 회피했다. 그리고 해스팅스 뒤로 자리를 잡았다. 해스팅스는 웃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그를 무릎 위로 올려 앉혔다.

“우리 동포 중 한 명이지.” 그는 옆에 있던 소녀에게 말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목구멍 안쪽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내 요트에 성조기 안 보여요?" 랜달이 따져 물었다. 과연 미국 국기가 유모의 팔 아래에 축 늘어져 있었다.

"오," 소녀가 외쳤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러고는 충동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에게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어린 랜달은 몸을 비틀어 해스팅스의 품에서 빠져나왔고, 유모는 소녀에게 화난 시선을 던지며 아이에게 달려들어 낚아챘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간호사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이를 끌어갔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가를 과시하듯 닦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해스팅스를 슬쩍 훔쳐보더니,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참 성미 고약한 여자군요!" 그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돌보는 아이에게 키스해 주면 대부분의 유모들은 오히려 흐뭇해하는데요."

순간, 그녀는 우산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곤 '탁' 하고 우산을 닫으며 그를 향해 당당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반대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왜 안 되지?" 그가 놀라며 물었다.

그녀는 다시 그를 향해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맑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웃으며 되물었다. "왜 안 되지?"

"참 재미있어." 그녀가 머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왜?"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한 채, 우산 끝으로 먼지 위에 곡선과 원을 그리는 일만 반복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젊은이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롭다니, 반갑군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와 사뭇 다르리라 생각했거든요. 미국, 정확히는 제가 사는 밀브룩에서는 소녀들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혼자 외출하기도 하고, 친구

를 혼자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 생각이 틀렸었군요. 다행입니다."

그녀가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기분 좋게 말을 이었다.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저 테라스를 혼자 거니는 예쁜 소녀들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당신도 역시 혼자다. 프랑스 풍습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묻는 건데, 당신은 감시자 없이도 극장에 가는 자유가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곤 떨리는 미소와 함께 물었다. "왜 나를 묻는 거야?"

"당연히 당신도 알고 있겠지." 그가 경쾌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말을 오해한 것 같았다.

"우리가 겨우 알게 된 사이인데, 제가 무례하게 굴 줄 알았으면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사실 이상한 일이지만, 저는 당신

의 이름을 모릅니다. 클리포드 씨가 저를 소개해 줄 때, 제 이름만 말했을 뿐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이 관례인가요?"

"라틴 지구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녀가 눈빛에 묘한 빛을 띠며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거의 열병에 걸린 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무슈 헤이스팅스, 라틴 지구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쯤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는 아주 보헤미안이라서, 예의나 의식 같은 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리포드 씨가 별다른 격식 없이 저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셨고, 더더욱 격식도 없이 우리 둘을 남겨 두고 가셨던 거예요. 단지 그뿐이에요. 저는 그분의 친구이고, 라틴 지구에 친구가 많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하지만—"

"무엇을?"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말해 주지 않을게. 비밀이니까."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분홍빛 반점이 타오르고 있었고, 눈은 매우 빛나고 있었다.

그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클리포르드 씨를 아주 깊이 알고 있나요?"

"그다지 그렇진 않군."

잠시 후, 그녀가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진지했고, 얼굴빛은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제 이름은 발랑탱, 발랑탱 티소입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나눴는데도, 혹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 저는 영광입니다.”

“그건 이뿐이에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별것 아니에요. 클리포르 씨에게 저에 대해 말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겠다고요.”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다. 깊은 혼란에 빠진 채.

그녀는 긴장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신비로 남고 싶다. 그냥 그런 기분이니까.”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무슈 클리포드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 댁에 소개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희망했어요."

“내—내 집!” 그녀가 되뇌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사는 곳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나를 소개하자는 거야.”

그 소녀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은 그를 경악하게 했다.

“죄송합니다. 다치게 했군요.”

그리고 그녀는 여자였기에,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마음을 알아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곧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매우 부드럽게.

"제가 댁으로 받아 주시기를 청한다면 언짢으시겠어요? 그게 관례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려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 나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도 저에게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친절하다고요?" 그가 놀라고 어리둥절해하며 외쳤다.

“너를 좋아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가끔씩 만나자.”

"친구들 집에서요?"

“아니, 친구네 집에서 그런 건 아니야.”

“어디?”

“여기요.” 그녀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런," 그가 외쳤다. "파리에서는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관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네, 우리는 정말 보헤미안이지.”

“매우 매력적이야.” 그가 단언했다.

"보세요, 우리는 최상의 사교계에 있는 셈이 될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테라스 위에 위엄 있게 늘어선 죽은 여왕들의 동상들을 향해 우아하게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녀의 무해한 농담이 통하자, 그녀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당연하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는 잘 보호받을 테니까요. 신들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요. 보시죠, 아폴로와 주노, 그리고 비너스가 받침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다. “세레스와 헤라클레스, 그리고—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가 없군요—”

헤이스팅스는 고개를 들어 자신들이 앉아 있는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날개 달린 신을 바라보았다.

"이런, 사랑의 신이군요." 그가 말했다.

IV

라파가 이젤 너머로 몸을 굽혀 친구 보울스에게 말했다.

“새로운 작가가 하나 있군. 그 친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푸르며, 너무 맛있어 보여. 만약 샐러드 그릇에 빠진다면 천국이 도와줘야 할 판이야.”

“하이스이드?” 보울스가 물었다. 그는 부서진 팔레트 나이프로 배경을 덧칠하며, 그 효과를 만족스러운 눈초리로 살피고 있었다.

“맞아요. 스퀴던크든 오슈코시든, 어찌 저런 데서 데이지를 밟으며 자라 소들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하느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보울스는 "분위기를 좀 살려야지"라며 자기 습작의 윤곽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을 문지른 뒤, 모델을 노려보고는 파이프를 빨다가 불이 꺼진 걸 알아채자 옆 사람의 등에 성냥을 그어 다시 불을 붙였다.

"그 친구 이름은," 라파트가 모자걸이에 빵 부스러기를 던지며 말을 이었다, "헤이스팅스라더군. 그자는 정말 풋내기야. 그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거라곤,"—이 대목에서 라파트 씨의 얼굴은 자기 자신이 그 행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자부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드러냈다—"첫 달빛 산책에 나선 처녀 고양이가 아는 정도밖에 안 돼."

이제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한 보울스는 자기 습작의 다른 쪽 가장자리에 엄지로 한 번 더 점을 찍어 보고는 말했다. "아!"

“맞아요,” 친구가 이어서 말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이 자기 집 뒤꼴의 시골 목장처럼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거리를 혼자 걷는 예쁜 여자들에 대해 말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현명한지, 그리고 프랑스 부모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오해받는지까지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 생각으로는 프랑스 소녀들이 미국 소녀들만큼이나 즐겁다고 했어요. 물론 그는 프랑스 소녀를 한 명밖에 알지 못한다고 시인했지만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려 노력했어요. 혼자 다니거나 학생들과 함께 걷는 여자들이 어떤 종류인지 알려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너무 멍청했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나는 직설적으로 일갈했죠. 그러자 그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진 바보라고 하며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발길질로 좀 거들어 줬나?" 보울스가 느릿느릿한 흥미로 물었다.

“글쎄, 아니야.”

“그는 너를 비열한 영혼의 바보라고 불렀다.”

“그가 옳았어요.” 클리포드가 앞쪽 이젤 곁에서 말했다.

“무슨…… 무슨 뜻이오?” 라파트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렇지," 클리퍼드가 대답했다.

"네게 말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네 할 일이냐?" 보울스는 비웃듯 말했다. 그러나 클리퍼드가 몸을 돌리며 그를 노려보는 순간, 그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래,"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 일이지."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클리포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해스팅스!"

헤이스팅스가 이젤에서 벗어나 다가오자, 클리포드는 놀란 표정의 라파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당신을 귀찮게 했군요. 그가 귀찮게 느껴질 때 차버리고 싶다면, 제가 다른 쪽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아니, 내가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말뿐이에요."

"당연하지."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는 해스팅스의 팔을 자신의 팔에 끼고 함께 거닐며, 자신의 친구들을 몇 명 소개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신참들은 부러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튜디오 사람들은 해스팅스가 비록 신참으로서 하찮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이미 오래된,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거장들의 마법 같은 서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 나머지를 다 끝낸 뒤, 모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작업은 이어졌다. 노래 소리와 비명, 그리고 미술 학생들이 아름다운 피사체를 그릴 때 내는 모든 귀를 찢어놓을 듯한 소음들이 한데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시계가 다섯 시를 알렸다. 모델은 하품을 하며 몸을 펴고 바지를 입었다. 그러자 여섯 개의 스튜디오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열 분 뒤, 해스팅스는 몽루주 전차의 지붕에 올라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리퍼드가 그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뤼 가이뤼삭 거리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항상 여기서 멈춘다.” 클리포드가 말했다. “루크상부르그 공원을 걷는 게 좋다.”

“그런데,” 헤이스팅스가 말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뵐 수 있겠는가?”

“왜, 저는 당신과 맞은편에 삽니다.”

"뭐라고—아몬드 나무와 검은새들이 있는, 그 정원의 스튜디오 말이야?—"

"맞아요," 클리포드가 말했다. "저는 친구 엘리엇과 같이 있죠."

해스팅스는 수지 빙 여사로부터 들었던 두 미국 화가의 묘사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클리포드가 말을 이었다. “오실 때쯤 되면, 꼭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제가… 제가 꼭 그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어색하게 말을 맺었다.

"거기서 당신의 모델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해스팅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생각은 좀 보수적이죠. 아마도 당신이라면 청교도적이라고 하겠네요. 그런 자리에 가면 즐길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알겠어요.” 클리퍼드가 말했다. 하지만 곧 다정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저와 제 친구들을 좋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번과 셀비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니까요, 친구.”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지난주 루크상부르에서 발렌틴을 소개해 드렸지.”

“말 한마디도 하지 마!” 해스팅스가 미소 지으며 외쳤다. “그녀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말해서는 안 돼!”

“왜—”

"아니,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가 경쾌하게 말했다. "내가 요구하네. 내 허락을 줄 때까지 그 여자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네 명예를 걸어 약속해라. 약속!"

"약속합니다." 클리퍼드가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매력적인 소녀야.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눴거든. 그 덕분에 고마워. 하지만 내가 허락할 때까지 그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 줘."

"응," 클리퍼드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가 자신의 대문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다.

"약속 잊지 마."

클리포드는 거리를 가로질러 산책했다.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골목을 지나 그의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튜디오 열쇠를 더듬어 꺼내며 중얼거렸다. '혹시나… 혹시나… 하지만, 물론 그는 아닐 거야!'

그가 복도에 들어섰다. 열쇠를 문에 꽂고, 패널 위에 못으로 고정된 두 장의 카드를 응시했다.

+--------------------------+ | 폭스홀 클리포드 |
+-------------------------+

리처드 오스본 엘리엇

“도대체 그는 왜 그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가 문을 열자, 두 마리의 줄무늬 불독이 달려들며 애정을 구걸했다.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엘리엇은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안녕,”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클리포드는 멍하니 엘리엇의 뒷머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걱정이야,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해서 정말 걱정이야. 이봐, 엘리엇,"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해스팅스 말이야—늙은 태비 바이럼이 일부러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그 친구 있잖아—자네가 콜레트를 옷장(아무아르)에 숨겨야 했던 그날 말이야—"

“응, 무슨 일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정말 든든한 친구야.”

“네,” 엘리엇이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열정이 없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클리퍼드가 물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의 환상이 하나둘 깨져 나갈 때면 그는 꽤나 고생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내는 자들이야말로 더 큰 수치다!”

"네, 그가 우리한테 들르길 기다리자. 물론, 예상치 못하게."

클리포드는 선량한 표정을 지으며 시가를 켰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당신이 계획한 그…… 술자리라도 미룰 수 있겠군요."

"아!" 엘리엇이 분한 듯 외쳤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겠지."

"정확히는 아니지." 클리퍼드가 비웃듯 웃었다. 그러곤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여기서 그에게 괴로움을 줄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처럼 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쉽군."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엇은 태연하게 말했다.

"들어 봐!" 다른 한 사람이 외쳤다. "나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래, 내가 그와 거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아니, 정확히는 룩상부르 공원에서였지—내가 그에게 발렌타인을 소개했어!"

"그가 반대했나?"

"믿어 봐," 클리포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시골뜨기 해스팅스는 발렌타인이 사실은—사실은—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도덕이 코끼리만큼이나 드문 이 동네(쿼터)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도덕적

품위의 아름다운 본보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말이지. 저 악당 같은 로팻과 작은 부도덕의 화신 보울스가 나누던 대화를 어쩌다 충분히 엿듣고서야 내 눈이 트였지. 정말이지, 해스팅스는 굉장한 친구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건강하고 마음씨 맑은 청년이고, 술집은 지옥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컸지—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그래, 어때?" 엘리엇이 재촉했다.

"글쎄,"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위험한 여자란 아마도 분칠한 이세벨 같은 여자일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친구야!"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가 이 세상이 자기 마음처럼 선하고 순수하다고 맹세한다면, 나도 그가 옳다고 맹세하겠어."

엘리엇은 목탄을 줄에 문질러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는, 스케치 쪽으로 돌아앉으며 말했다. "리처드 오스본 엘(엘리엇)한테서는 비관적인 소리 같은 건 결코 들을 일 없을 거야."

"그는 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장미빛 종이로 된 작은 향기 나는 쪽지를 펼쳤다.

그는 그것을 읽고는 미소 지었다. '미스 헤일렛'의 선율을 몇 마디나 휘파람으로 불어냈다. 그리고는 비단 같은 고급 편지지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편지를 쓰고 봉인하자, 그는 지팡이를 들어 들고 작업실 안을 두세 번 오갔다. 여전히 휘파람을 불며.

"나가는 거야?"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로.

"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동안 엘리엇의 어깨 너머로 머물러 있었다. 엘리엇이 빵 조각으로 스케치 위의 빛들을 골라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일은 일요일이야."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래?" 엘리엇이 물었다.

"코레트를 본 적 있어?"

"아니, 오늘 밤에 갈 거야. 콜레트와 로든, 자클린도 불랑에 온다더군. 너랑 세실도 그 자리에 있겠지?"

"음, 아니야," 클리포드가 대답했다. "세실은 오늘 저녁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고, 나는—나는 미뇽 식당에 가 볼까 생각하던 참이야."

엘리엇은 그를 불쾌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라 로크에 관한 모든 준비는 내가 빠져도 너가 알아서 해." 그는 엘리엇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클리퍼드가 애원하듯 말했다.

"말도 마라," 친구가 비웃듯 대꾸했다. "우리 패거리가 다 불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미뇽으로 달려가는 놈이 어디 있어. 이번엔 또 누구야? —아니, 묻지도 않으마, 물어 봤자 무슨 소용이람!" 그러더니 그는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쏟아내며 파이프로 탁자를 두드렸다. "너를 일일이 따라다니려고 애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세실은 뭐라고 할까,—오, 그래, 그 애가 뭐라고 할까? 두 달도 한결같지 못하다니 참 안 됐다, 정말이지, 맙소사! 이 동네(쿼터)는 관대한 곳이지만, 너는 그 관대함도, 내 인내심도 너무 남용하고 있어!"

그가 일어나자마자 모자를 머리에 툭 눌러쓰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늘이나 알겠지, 어째서 사람들이 너의 그런 변덕을 다 참아 주는지. 하지만 다들 참아 주고, 나도 마찬가지야. 만약 내가 세실이거나, 네가 그동안 졸졸 쫓아다녔고 또 사람으로서 거의 확실히 앞으로도 쫓아다닐 그 예쁜 바보들 중 하나였다면, 그래, 내가 세실이었다면 네 엉덩이를 흠씬 때려 줬을 거다! 자, 나는 이제 불랑으로 갈 거고, 평소처럼 너를 위해 변명을 해 주고 자리도 정리해 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나는 눈곱만큼도 상관 안 해. 하지만 작업실 해골의 두개골을 걸고 맹세컨대! 내일 한쪽 팔에 스케치 도구를, 다른 한쪽에 세실을 끼고 멀쩡한 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는 끝이다. 나머지는 알아서들 생각하라지. 잘 자라."

클리포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쾌활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문 쪽을 응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는 시계를 꺼내 Elliott에게 사라질 시간을 열 분 주었다. 그러고는 문지기의 호출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세상에. 대체 왜 나는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알프레드." 그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다. "손님 대접할 만큼은 단정히 차려입게. 알프레드, 너의 장화를 벗고 신발을 신어. 그리고 가장 좋은 모자를 쓰고 이 편지를 드래곤 거리, 큰 하얀 집까지 가져다주게. 답장은 필요 없어, 모니티 알프레드."

문지기는 심부름에 대한 마지못한 마음과 클리포드 씨에 대한 애정이 뒤섞인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다. 그러자 젊은이는 정성을 들여 자신과 엘리엇의 옷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멋진 차림으로 몸치장을 했다. 그는 천천히 시간을 들였고, 가끔씩 단장을 멈추고 밴조를 켜거나 네 발로 엎드려 뛰어다니며 불도그들에게 즐거운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곤 했다. '두 시간이나 남았는걸.'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엇의 실크 양말 한 켤레를 빌렸고, 신어 보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그것으로 개들과 공놀이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미복을 살펴보았다. 주머니에서 손수건 네 장, 부채, 그리고 팔만큼이나 긴 구겨진 장갑 한 쌍을 꺼낸 뒤, 그는 이 옷이 자신의 매력에 광채(에클라)를 더해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머릿속으로 대안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엘리엇은 너무 말랐고, 게다가 그의 외투들은 지금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로든도 자기만큼이나 형편이 곤란할 게 분명했

다. 해스팅스! 해스팅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스모킹 재킷을 걸치고 어슬렁어슬렁 해스팅스의 집까지 가 보니, 그는 한 시간도 더 전에 외출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클리포드가 거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베풀고는, 어슬렁어슬렁 작업실로 돌아왔다.

해스팅스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룩상부르 공원은 노트르담데샹 거리에서 도보로 오 분 거리였고, 그곳에 그는 날개 달린 신상의 그림자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먼지에 구멍을 뚫으면서 북쪽 테라스에서 분수로 이어지는 계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는 보라색 구체처럼 뫼동의 안개 낀 언덕 위에 걸려 있었다. 장미빛이 감도는 긴 구름 다발이 서쪽 하늘을 낮게 스쳤고, 멀리 보이는 앵발리드의 돔은 안개 너머 오팔처럼 타올랐다. 궁전 뒤로는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곧장 하늘로 올라갔다. 연기는 해를 가로지르기 전까지는 보라색이었고, 해를 넘어가면서는 타오르는 불길의 막대기로 변했다. 짙어지는 밤나무 잎사귀 위로 생술피스 성당의 두 탑이, 점점 더 짙은 실루엣을 그리며 솟아 있었다.

가까운 덤불 속에서 졸린 듯한 검은지빠귀 한 마리가 노래하고 있었고, 비둘기들은 날개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내며 오갔다. 궁전 창문에 비치던 빛은 이미 사그라져 있었고, 북쪽 테라스 위로는 판테온의 돔이 하늘의 불타는 발할라처럼 붉게 떠올라 빛났다. 그 아래, 테라

스를 따라 음울하게 늘어선 대리석 왕비들의 행렬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궁전 북쪽 외벽을 따라 난 긴 산책길 끝 쪽에서 옴니버스 소리와 거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해스팅스는 궁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여섯 시였고, 자기 시계와도 시간이 맞았으므로, 그는 다시 자갈에 구멍을 뚫는 일에 몰두했다. 오데옹과 분수 사이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갔다. 은색 버클이 달린 신발을 신은 검은 옷차림의 신부들; 흐트러진 자세에 멋부린 보병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모자상자를 든 단정한 처녀들; 검은 서류 가방과 높은 모자를 쓴 학생들; 베레모를 쓰고 큰 지팡이를 든 학생들; 그 자체로 터키석빛과 은빛의 교향곡 같은, 신경질적이고 빠른 걸음의 장교들; 먼지를 뒤집어쓴 채 둔중하게 절그럭거리며 가는 기병들; 장난기 어린 머리 위에 위태롭게 얹힌 바구니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제빵사 견습공 소년들; 그리고 비쩍 마른 떠돌이, 어슬렁어슬렁 걷는 파리의 부랑자—구부정한 어깨로, 작은 눈을 굴리며 흡연자들이 버린 꽁초를 찾으려 슬그머니 바닥을 훑는 자;—이 모든 이들이 분수 앞 원형을 가로질러 한결같은 흐름으로 오데옹 쪽으로 빠져나갔고, 그 긴 아케이드에는 이제 가스등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생술피스 성당의 우울한 종소리가 시간을 알렸고, 궁전의 시계탑에 불이 켜졌다. 그때 자갈 위로 황급한 발소리가 울리자, 해스팅스는 고개를 들었다.

"너무 늦었군."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붉게 달아오른 얼굴만이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말해 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발이 묶여 있었어—정말이지, 너무 짜증이 났어—그래서—그래서 잠깐밖에 못 있어."

그녀는 그 옆에 앉았다. 뒤를 돌아보며 신전 받침대 위의 신을 살폈다.

“그 참견꾼 큐피드가 아직도 거기 있군, 정말 귀찮은 일이다.”

“날개와 화살도 있군.” 해스팅스는 그녀가 앉으라고 손짓하는 것도 아랑곳없이 말했다.

“날개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날개. 그가 놀이에 지칠 때, 그걸 타고 도망치기 위한 거지. 물론 날개라는 아이디어는 남자가 생각해 낸 거야. 아니라면 큐피드는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 푸아,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은?”

“아,” 그녀가 작은 머리를 툭 치켜들며 말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었소.” 해스팅스가 말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걸." 소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대리석 신상을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이 신상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활을 제

대로 쏠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정말 저 신은 겁쟁이야. 황혼 속에서 암살자처럼 슬그머니 다가오잖아. 나는 비겁함을 용납하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선언하더니, 조각상에 등을 돌렸다.

"제 생각엔," 해스팅스가 고요하게 말했다. "그는 확실히 제대로 쏩니다. 네, 심지어 한 번의 경고까지도 주죠."

"당신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까, 무슈 해스팅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나를 경고하고 있네."

"그럼 경고를 잘 듣게." 그녀가 긴장한 웃음을 섞어 외쳤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장갑을 벗어 던졌다가, 다시 신중하게 하나씩 끼워 넣었다. 그 일을 마친 그녀는 궁전 시계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 우산을 접었다가 다시 펼친 뒤, 드디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의 경고를 듣지 않겠소."

"세상에," 그녀가 다시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그 지긋지긋한 조각상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고는 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말했다. "혹시—혹시 당신은 사랑에 빠진 거 같군요."

"모르겠군."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마도 그러하리라."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생각에 당신은 기뻐하는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닿자마자 입술을 깨물고 몸을 떨었다. 이어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짙어지는 그림자 속을 응시했다.

“추워?” 그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만 대답했다. “오, 정말, 오 정말, 시간이 늦었어—정말 늦었어! 나는 가야 해—안녕.”

그녀는 잠시 동안 장갑을 낀 자기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듯 손을 거두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재촉했다. “겁이 난 거야?”

그녀는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니, 아니…… 무서워한 게 아니야. 당신 내게 정말 친절하잖아요.”

“젠장!” 그가 폭발하듯 외쳤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번이 세 번째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궁궐의 초소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의 말을 끊었다.

“들어 봐.” 그녀가 속삭였다. “문을 닫으려 해. 이미 늦었어. 오, 정말 너무 늦었어!”

북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윽고 동쪽 테라스 위 하늘에 드럼 연주자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해질녘의 빛이 잠시 그의 허리띠와 총검 위에 머물렀다가, 그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북소리는 메아리를 깨우며 울려 퍼졌다. 북소리는 동쪽 테라스를 따라 점점 희미해졌다가, 그가 청동 사자 옆 대로를 지나 서쪽 테라스 길로 내려서자 다시 점점 커지며 더욱 날카롭게 울렸다. 북소리는 갈수록 우렁차졌고, 회색 궁전 벽에서 메아리가 그 음을 받아쳤다. 마침내 드럼 연주자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짙어가는 어스름 속에서 그의 붉은 바지는 흐릿한 얼룩처럼 보였고, 북과 총검의 놋쇠는 옅은 불꽃처럼 반짝였으며, 어깨 위 견장이 흔들렸다. 그는 북소리의 굉음을 그들의 귀에 남기고 지나갔다. 나무들이 늘어선 길 저편에서, 그들은 그의 배낭 위에서 반짝이는 작은 양철 컵을 보았다. 그때 파수병들이 단조로운 외침을 시작했다. "On ferme! on ferme!"("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투르농 거리의 병영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안녕." 그녀가 속삭였다. "나 오늘 밤 혼자 돌아가야 해."

그는 그녀가 북쪽 테라스에 닿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대리석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깨를 두드리는 손과 희미하게 빛나는 총검의 미광이 그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일러주자 자리를 떴다.

그녀는 숲을 지나 루 드 메디시(Rue de Medici)로 꺾어들어, 대로변까지 건넜다. 모퉁이에서 그녀는 제비꽃 한 다발을 사 들고, 불로바르를 따라 뤼 데스 에콜(Rue des Écoles) 방면으로 걸었다. 불랑

(Boulant) 앞에는 마차가 멈춰 서 있었고, 아담한 소녀가 엘리엇의 도움을 받아 내리고 있었다.

“발렌타인!” 소녀가 외쳤다. “우리랑 같이 와!”

“할 수 없어요.” 그녀가 잠시 멈춰 서며 말했다. “미뇽의에서 약속이 있어서요.”

"빅토르 아니야?" 소녀가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살짝 몸을 떨며 그곳을 지나쳤고, 고개를 끄덕여 밤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생제르맹 대로로 꺾어, 클뤼니 카페 앞에 앉아 함께하자며 자신을 부르는 유쾌한 무리를 피하려고 걸음을 조금 더 빨리했다. 미뇽 레스토랑 문 앞에는 단추 달린 제복을 입은 새카만 흑인이 서 있었다. 그녀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가자, 그는 뾰족한 모자를 벗어 들었다.

“유진을 불러.” 그녀는 사무실에서 말했다. 그리고 식탁방 오른쪽 복도를 지나 나무 판자로 된 문들이 늘어서 있는 곳 앞에 멈춰 섰다. 웨이터가 지나갔고, 그녀는 다시 유진을 부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진이 조용히 뛰어와, 머리를 숙이며 “마담”이라고 속삭였다.

“여기 있는 이는 누구인가?”

"별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담. 홀에는 마담 마들롱과 무슈 게이, 무슈 드 클라마르, 무슈 클리송, 마담 마리와 그 일행이 계십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무슈께서 마담을 반시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6번이 적힌 판자문 중 하나를 두드렸다.

클리포드가 문을 열자 소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가르송이 그녀를 안으로 들이면서 속삭였다. “모니외, 종을 누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재킷 벗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의 모자와 우산을 받아 들었다. 그녀가 작은 식탁에 클리퍼드와 마주 앉자, 미소 지으며 두 팔꿈치를 식탁에 기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경외의 어조로 답했다.

순간, 그녀가 돌아서서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넓고 푸른 눈, 곱슬거리는 머리, 곧은 코와 짧게 말린 입술이 거울 속에 번뜩였다. 그러나 그 순간만이었다. 곧 거울의 깊은 곳에는 그녀의 예쁜 목과 뒷모습이 비쳤다.

"이렇게 나는 허영에 등을 돌린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리퍼드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세실.”

“이제 그만해, 발렌타인—”

"알고 있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조금 당황했다. 그 혼란을 감추려 유진을 부르는 벨을 울렸다.

수프는 비스크였고, 와인은 포메리였다. 코스는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유진이 커피를 가져올 때까지. 식탁 위에는 작은 은빛 램프 하나만 남았다.

"발렌타인," 클리퍼드가 담배를 피우라는 허락을 받은 뒤에 말했다. "그곳은 보드빌인가, 엘도라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누보 시르크인가,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발렌타인이 말했다.

"글쎄, 내가 너를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는 크게 칭찬받은 듯 말했다.

"아, 그래. 넌 엘도라도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자, 여기 봐, 발렌타인. 날 속이지 마. 넌 늘 그래. 그리고, 그리고—사람들이 뭐라 하지, 잘 웃으면 죽는 법이니까—"

"뭐라고?"

"음—음—사랑 같은 거요."

그녀는 눈물이 맺힐 때까지 웃었다. "이런," 그녀가 외쳤다. "그럼 그는 죽은 거구나!"

클리포드가 그녀를 점점 더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왔는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가 불안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나는 모르겠어."

“너는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니?”

“음,” 그는 다소 놀란 기색으로 인정했다. “대략 1년 정도라고 해야겠군.”

“일 년이 지났나 보다. 지치지 않았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당신과 결코 사랑에 빠질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그러기엔 너무 좋은 동지이고, 너무 오래된 친구라는 걸 모르겠어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무슈 클리퍼드, 제가 당신의 과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꼬지 마. 그러지 마, 발렌타인.” 그가 재촉했다.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정말로. 당신과 세실에게만큼은."

"세실은 나 따위 지쳤대."

"그런 걸 바라요. 그녀가 더 나은 운명을 맞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소녀가 말했다.

"저기요, 당신이 퀘터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아세요? 변덕스러운 이들 중에서도 가장 변덕스럽다고.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여름밤 모기만큼이나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세실!"

클리포드가 너무 당황해 보이는 바람에, 그녀는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나는 너를 좋아해. 그거 알잖아. 모두 그러하니까. 너는 여기에서 방종된 아이야. 너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두 너를 배려하지. 하지만 모두의 기분에 희생될 필요는 없어."

"카프리스!" 그가 외쳤다. "젠장, 라틴 지구 소녀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른다니까—"

"그건 잊어라. 그건 잊어두어라! 너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라면 특히 더 그러하다. 대체 너는 오늘 밤 여기 왜 왔느냐? 아," 그녀가 외쳤다. "내가 알려주마. 이유가 무엇인지. 모슈르는 작은 쪽지를 받는다. 그는 작은 답장을 보낸다. 그리고는 승리의 의복을 갖춰 입지."

“난 몰라.” 클리퍼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입고 계시니 잘 어울리죠.”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되받았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당신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아귀가 친구의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여기서 그 사실을 인정하러 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한 가지 호소요.”

클리포드가 눈을 떴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므슈 해스팅스 때문입니다."

“그래?” 클리포드가 의아한 듯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낮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앞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실 경우, 저를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를…… 저를……”

“그에게 당신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고요하게 말했다.

“저, 다른 사람들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모든 여자를 어떻게 여기

는지도요. 그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남자를, 므슈 해스팅스 같은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담배가 꺼진 줄도 모른 채 있었다.

"저는 그가 거의 두려워요—그가 알게 될까 봐요. 이 쿼터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가 알게 될까 봐요. 오, 그가 그걸 알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길 원치 않아요. 지금처럼 나에게 말을 걸어 주는 걸 멈추길 원치 않아요. 당신은—당신과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선하고 고결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너무 일찍 알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는 알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 스스로 알아낼 거고, 그때 그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겠죠. 왜!" 그녀가 격정적으로 외쳤다. "왜 그가 나는 외면하면서 _당신은_ 외면하지 않는 거죠?"

몹시 당황한 클리포드는 자신의 담배를 응시했다.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에게 그를 경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내 친구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녀가 외쳤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맹세컨대, 그에게 경고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가 쾌활하게 말했다.

한 달은 해스팅스에게 빠르게 지나갔고, 뚜렷한 인상은 별로 남기지 않았다. 그래도 몇 가지 인상은 남겼다. 그중 하나는 카퓌신 대로에서 블라든 씨를 만난 고통스러운 인상이었다. 블라든 씨는 매우 노골적인 차림의 젊은 여자와 함께였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해스팅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블라든 씨가 그를 끌고 들어가 보크 맥주를 함께 마시게 한 카페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마치 대로 전체가 자신을 보며 그 동행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중에, 블라든 씨와 함께였던 그 젊은 여자에 대한 본능적인 확신이 그의 뺨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그는 너무도 비참한 심정으로 하숙집으로 돌아왔고, 빙 양은 놀라며 그에게 향수병을 즉시 이겨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인상도 똑같이 생생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외로움을 느끼며 시내를 배회하던 그는 생라자르 역에 이르렀다. 아침 식사를 하기엔 이른 시각이었지만, 그는 테르미누스 호텔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하려 몸을 돌리던 찰나,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의 머리에 부딪쳤고, 그가 기대했던 사과를 받으려 고개를 들었을 때 돌아온 것은 어깨를 툭 치는 손길과 활기찬 인사였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친구?" 로든이었다. 그가 해스팅스를 붙들고 따라오라고 했다. 약하게 항의하면서도 그는 어느 개인 식당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얼굴이 약간 붉어진 클리포드가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로든의 꾸밈없는 환호와 엘리엇의 극진한 예의가 그 어색함을 누그러뜨렸다. 엘리엇은 그를 세 명의 매혹적인 아가씨에게 소개했고, 그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그를 맞아 주며 해스팅스가 일행에 끼어야 한다는 로든의 요구에 가세하자, 그는 곧장 응했다. 엘리엇이 라 로슈로 가는 소풍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는 동안, 해스팅스는 즐겁게 오믈렛을 먹으며 세실, 콜레트, 자클린의 격려의 미소에 답례했다. 그사이 클리포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로든에게 네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일러 주고 있었다. 가엾은 로든은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엘리엇이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파하고 클리포드에게 눈살을 찌푸린 뒤, 잠시 짬을 내 다 같이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로든에게 알려 주었다.

"입 다물어," 그가 클리퍼드에게 말했다. "운명이라고. 그걸로 됐어."

"로든이군. 그걸로 결론이지." 클리포드가 씩 웃음을 감추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는 해스팅스의 유모는 아니었으니까. 그리하여 오전 9시 15분에 생라자르 역을 떠난 기차는 르아브르로 가는 도중 잠시 멈추어, 라 로슈의 붉은 지붕 역에 즐거운 일행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양산과 송어 낚싯대로 무장하고 있었고, 비전투원인 해스팅스가 지팡이 한 자루를 들고 있었다. 작은 에프트 강을 따라 늘어선 시카모어 숲 속에 자리를 잡자, 스포츠맨십에 관한 모든 것의 대가로 인정받던 클리포드가 지휘권을 잡았다.

"너, 로든." 그가 말했다. "플라이를 엘리엇과 나눠 갖고 그를 잘 감시해. 안 그러면 그가 찌와 추를 달려고 할 테니까. 지렁이 캐겠다고 헤집고 다니지 못하게 힘으로라도 막아."

엘리엇은 항의했지만, 일동의 웃음소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말 못 봐주겠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처음 낚는 송어인 줄 알아?"

“당신의 첫 송어를 보는 게 정말 기대되군요.” 클리포드가 말했다.

그는 정중하게 맞장구치며, 날아오는 낚시 바늘을 재빠르게 피했다. 그 바늘은 정확히 명중시키려는 의도로 던져진 것이었다.

그는 세 대의 가느다란 낚싯대를 고르고 장비를 챙겼다. 이 낚싯대는 세실, 코레트, 자클린에게 기쁨과 고기를 안겨줄 운명이었다.

그는 온전한 진지함으로 각 낚싯줄에 네 개의 쪼개진 추와 작은 바늘, 그리고 빛나는 깃털 미끼를 달아 장식을 더했다.

“나는 절대 그 지렁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세실은 오한을 떨며 선언했다.

자클린과 콜레트가 서둘러 그녀를 거들었고, 해스팅스는 쾌활하게 미끼를 끼우고 잡힌 물고기를 떼어내는 잡일을 모두 맡겠다고 자청했다. 하지만 세실은 클리포드의 플라이 책에 든 화려한 미끼들에 매료된

듯, 그에게 진짜 낚시 기술을 배워 보기로 했고, 곧 클리포드를 데리고 에프트 강 상류로 사라졌다.

엘리엇은 콜레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구지온을 좋아해요.” 그 아가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로우덴 씨는 원하시면 언제든 떠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클린?”

“물론이지.” 자크린이 대답했다.

엘리엇은 망설이며 낚싯대와 릴을 살펴보았다.

“릴을 거꾸로 끼웠네.” 로우든이 말했다.

엘리엇은 망설였다. 그리고 코레트를 향해 살짝 시선을 던졌다.

"나—나—방금 막—어—플라이를 휘두르지는 않기로 거의 결정했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세실이 두고 간 낚싯대가 있잖아—"

“그것을 폴이라고 부르지 마,” 로든이 바로잡았다.

"그럼 _낚싯대_지." 엘리엇이 말을 이으며 두 소녀의 뒤를 쫓아 걸음을 옮겼지만, 로든이 곧장 그의 멱살을 잡아 세웠다.

“아니, 절대 안 돼! 손에 낚싯대 하나 쥐고 있으면서 가짜 미끼와 추까지 달고 낚시하자는 게 말이 돼? 따라 와!”

고요한 작은 에프트 강이 덤불 사이로 흘러 센 강에 합류하는 곳에는, 풀이 우거진 둑이 모래무지의 은신처를 그늘로 덮고 있었다. 그 둑에 콜레트와 자클린이 앉아 수다를 떨고 웃으며, 진홍색 깃 찌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스팅스는 모자를 눈 위에 덮고 이끼 둑에 머리를 기댄 채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고, 낚싯대가 번쩍 휘어지며 반쯤 억눌린 비명이 한 마리의 잡힘을 알릴 때마다, 작고 분개한 모래무지를 점잖게 바늘에서 떼어 주었다. 햇살은 잎이 무성한 덤불 사이로 스며들어 숲새들을 노래로 깨웠다. 티 한 점 없는 검고 흰 깃의 까치들이 곁을 스쳐 날아가다가 깡충 뛰어 꼬리를 까딱이며 가까이 내려앉았다. 분홍빛 가슴을 한 푸르고 흰 어치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무들 사이를 가로질렀고, 낮게 활공하는 매 한 마리가 익어 가는 밀밭 위를 선회하며 지저귀는 산울타리 새 떼를 날아오르게 했다.

센 강 건너편에서는 갈매기 한 마리가 깃털처럼 물 위로 내려앉았다. 공기는 맑고 고요했다. 나뭇잎 하나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 농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희미했다—날카로운 닭 울음소리와 둔탁한 개 짖는 소리. 이따금 "Guêpe 27"이라는 이름을 단, 비스듬한 큰 굴뚝을 단 증기 예인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바지선 행렬을 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돛배 한 척이 졸린 루앙 쪽으로 물결을 따라 내려갔다.

공기 속에 흙과 물의 은은하고 신선한 냄새가 감돌았다. 햇살 속에서는 주황색 날개 끝을 가진 나비들이 습지의 풀들 위로 춤을 추었다. 부드러운 벨벳 같은 나비들이 이끼 낀 숲 속을 날아다녔다.

헤이스팅스는 발렌타인을 떠올리고 있었다.

엘리엇이 두 시쯤 되어 여유로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로우든을 따돌렸다고 정중하게 인정하며 코레트 옆에 앉아 만족스러운 듯 졸기 시작했다.

"송어는 어디 있소?" 코레트가 엄격하게 물었다.

"아직도 살아 있어." 엘리엇이 중얼거리더니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잠시 후 로든이 돌아왔다. 그는 잠들어 있는 이를 경멸하듯 한 번 흘끗 쳐다보고는, 진홍빛 점이 박힌 송어 세 마리를 내보였다.

"그게 바로," 헤이스팅스가 나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신실한 자들이 묵묵히 걸어가는 성스러운 끝자리지. 비단과 깃털로 작은 물고기들을 도살하는 일이야."

로든은 그에게 답하는 것조차 거절했다. 콜레트가 모래무지 한 마리를 더 낚고는 엘리엇을 깨우자, 엘리엇은 항의하며 점심 바구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마침 클리포드와 세실이 다가와 즉각 간식을 내놓으라고 했다. 세실의 치마는 흠뻑 젖었고 장갑은 찢어졌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클리포드는 두 파운드짜리 송어를 끌어내며 그대로 서서 일행의 박수를 받았다.

"도대체 그걸 어디서 구했어?" 엘리엇이 물었다.

세실은 젖은 몸과 열정으로 전투를 되새겼다. 클리퍼드는 그녀가 파리를 다루는 능력을 찬미했다. 그는 증거로 자신의 바구니에서 죽은 처브를 꺼내 보이며, 그것이 송어와 딱 한 치 차이였다고 말했다.

점심 시간은 모두에게 매우 행복했다. 해스팅스는 '매력적이다'는 평을 들으며 기분이 좋았다. 그는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겼다. 다만 가끔씩 그는 프랑스가 코네티컷주 밀브룩보다 연애 게임이 한층 더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세실은 클리퍼드에 대해 조금 덜 열정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자클린이 로든에게서 조금 더 떨어져 앉아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콜레트가 잠시라도 엘리엇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냈으면 했다.

그래도 그는 이 시간을 즐겼다. 단, 발렌타인을 생각할 때는 예외였다. 그때면 그는 그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 로슈는 파리에서 최소한 한 시간 반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 여덟 시, 그들을 라 로슈에서 태워 파리 생라자르 역으로 향하던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발렌타인의 도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들이 그를 둘러싸며 말했다. "다음에는 꼭 함께 와야 합니다!"

그는 약속을 하고서, 그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어둠이 내리는 도시 속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기에,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거대한 대로에는 가스등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가스등 사이로 전기등들이 마치 달처럼 응시하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카밀라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 그녀가 서 있던 그곳에 혼자 남았다.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 한 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발렌타인이었기 때문이다.

태양이 이미 노트르담 대성당의 탑에 금빛을 입히고 있었다. 아래 거리에서는 노동자들의 나막신 소리가 날카로운 메아리를 깨우고 있었다. 길 건너편, 분홍빛 꽃이 핀 아몬드 나무에서는 검은 지빠귀 한 마리가 황홀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는 클리포드를 깨워 시골을 거닐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그 신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미국 교회로 이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가 찾았을 때, 알프레드는 뾰족한 눈매를 빛내며 스튜디오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길을 닦고 있었다.

"엘리엇 씨?"

그는 대충 묻는 말에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포드 씨도," 해스팅스가 약간 놀란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클리퍼드 씨는," 문지기가 짙은 반어조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면 기뻐하실 겁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거든요. 실은 방금 막 들어오셨답니다."

해스팅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는 동안 문지기는, 밤새 외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헌병조차도 잠을 위해 신성하게 여기는 시간에 관리실 문을 두드려 대는 자들에 대해 길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절제의 미덕에 관해서도 웅변하듯 논했다. 그러고는 안뜰의 분수에서 과시하듯 한 모금을 들이켰다.

"들어갈 생각은 없소." 해스팅스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무슈," 문지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클리퍼드 씨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분께서 도움이 필요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머리빗과 부츠로 쫓아내시거든요. 촛불로 어디 불을 지르지 않으셨다면 그게 다행이지요."

헤이스팅스는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그런 임무에 대한 싫증을 삼키며, 그는 느린 걸음으로 담쟁이덩굴이 뒤덮인 골목을 지나 안뜰을 가로질러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완벽한 정적. 그러자 다시 두드리자, 이번에는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강타하며 굉음을 냈다.

"그건," 문지기가 말했다, "부츠였습니다." 그는 여분의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해스팅스를 안으로 들였다. 클리퍼드는 흐트러진 야회복 차림으로 방 한가운데 깔린 러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신 한 짝을 쥐고 있었고, 해스팅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피어스 비누를 쓰시나요?” 그는 흐릿하게 손을 흔들며, 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스팅스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제발, 클리포드. 자러 가.”

"저—저 알프레드가 덥수룩한 머리를 이 안으로 들이미는 한, 그리고 내게 신발이 한 짝이라도 남아 있는 한, 잘 수 없어."

헤이스팅스는 촛불을 끄고 클리포드의 모자와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감정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이건 끔찍해, 클리포드. 나는—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몰랐어.”

"글쎄, 난 한다네." 클리퍼드가 말했다.

“엘리엇은 어디 있나?”

"이봐 친구," 클리퍼드가 갑자기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먹이를—먹이를—어—참새나 그런 것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섭리께서는, 절제 없이 떠도는 방랑자도 굽어보신다네—"

“엘리엇은 어디 있나?”

클리포드는 고개만 흔들며 팔을 휘저을 뿐이었다. “저기 있겠지. 어딘가 근처에.” 그러다 문득 잃어버린 친구가 보고 싶어져, 그는 목청을 높여 그를 불렀다.

헤이스팅스는 깊은 충격을 받아 말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뜨거운 눈물을 몇 방울 흘린 클리퍼드는 얼굴에 기색이 돌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봐 친구," 그가 말했다, "어—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 시작하지. 이제부터야."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빈 곳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건 기적이야.” 그가 되뇌었다.

헤이스팅스는 그가 자신의 균형을 유지한 기적을 암시하는 것이라 추측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이제 자러 가마.” 그가 선언했다. “불쌍한 클리퍼드가 자러 간다, 그게 바로 기적이야!”

그는 거리와 균형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냈다. 만약 엘리엇이 그 옆에서 이 일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다면, 그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감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없었다. 그는 아직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hadn’t

비둘기들은 사방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무지갯빛으로 어른거리는 가슴 위로 물을 튀기며 물보라 사이로 번쩍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고, 광택 나는 분수대 가장자리에는 목까지 잠기듯 몸을 기대고 있었다.

참새들도 무리 지어 나와 있었다. 맑은 연못에 먼지빛 깃털을 적시며 힘차게 지저귀었다.

마리 드 메디치 분수 맞은편 오리 연못을 둘러싼 플라타너스들 아래에서는 물새들이 풀을 뜯거나, 엄숙하지만 정처 없는 항해라도 떠나려는 듯 둑을 따라 줄지어 뒤뚱뒤뚱 내려가곤 했다.

라일락 잎사귀 아래에서 쌀쌀한 밤을 보낸 나비들은 다소 굳은 몸으로 하얀 플록스 꽃잎 위를 거듭해서 기어 다녔고, 혹은 류머티즘에 걸린 듯 느릿느릿 햇볕에 데워진 덤불 쪽으로 날아갔다.

꿀벌들은 이미 헬리오트로프 꽃들 사이에서 분주했고, 벽돌색 눈을 가진 회색 파리 한두 마리는 대리석 의자 옆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로 쫓아다니다가도, 다시 그 햇살 자리로 돌아와 앞다리를 비비며 의기양양해했다.

병사들은 그림이 그려진 상자 앞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성였다. 때때로 교대 병력을 위해 감시초소 쪽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곤 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다. 발을 끄는 소리와 총검이 짤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호령이 전달되었으며, 교대 부대가 대열에서 흩어졌다. 그러고는 자갈을 자박자박 밟으며 멀어져 갔다.

궁전의 시계탑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 설피스 성당의 깊은 종소리도 그 여운에 맞춰 울렸다. 하스팅스는 신상의 그림자에 앉아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가 생각에 빠진 사이, 누군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건넸을 때야 비로소 그는 벌떡 일어섰다.

“너? 이 시간에?”

“나는 안절부절못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곤 낮은,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_너!_ 이 시간에?”

“나… 자고 있었어. 하지만 해가 나를 깨웠지.”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는 정의할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기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웃지 마, 나는 꿈을 믿어."

“정말 나여기가 있는 걸 꿈꿨어?”

“꿈을 꾸고 있었을 때 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시인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지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행복을 침묵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선명했다. 생각에서 우러난 미미한 미소와 눈빛이 오가고 겹쳤기 때문이다. 입술이 움직이고 말이 맺혔지만, 그 말은 거의 불필요해 보일 정도였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그리 깊지 않았다.

아마도 해스팅스의 입에서 떨어진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말은, 아침 식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었을 것이다.

“초콜릿을 아직 먹지 못했어요.” 그녀가 고백하듯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현실적인 분이시군요.”

“발렌타인,” 그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정말로 바란다고. 이번만큼은 좀 그래 주길. 온종일, 내 곁에 있어 주길.”

"어머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질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기까지 하네요!"

“이건 이기심 때문이 아니야. 굶주림 때문이지.”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식인종이기까지 하다니, 어머나!"

"그래 줄래, 발렌타인?"

“하지만 제 초콜릿이……”

“나와 함께 가져가.”

“하지만 _데제네_—”

"함께, 생클루에서."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함께, 종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너도 그러겠니, 발렌타인?”

그녀는 침묵했다.

"딱 이번 한 번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다시 그녀의 눈가에 스쳤다. 그리고 사라지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 함께요. 오직 이번 한 번만.”

“종일?” 그는 기쁨을 의심하며 물었다.

"종일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 정말 배가 고파요!"

그는 매혹되어 웃었다.

“참으로 실용적인 젊은 아가씨군요.”

불바르 생미셸에는 겉을 하양과 파랑으로 칠한 크레므리 한 곳이 있는데, 안은 호루라기처럼 말끔하고 단정하다. 머피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원어민처럼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적갈색 머리의 젊은 여인이, 두 사람이 들어서자 미소로 맞이했다. 그녀는 자그마한 아연 마

주앉이 식탁 위에 새 냅킨을 휙 펼치고는, 두 사람 앞에 초콜릿 두 잔과 바삭하고 신선한 크루아상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잽싸게 내려놓았다.

버터 덩어리는 민들레꽃빛이었다. 각기 입체적으로 삼엽초 문양이 새겨진 그 작은 덩어리들은, 마치 노르망디 초원의 향기로 가득 젖어 있는 듯했다.

“정말 맛있다!” 그들은 동시에 외쳤고, 그 우연에 웃음을 터뜨렸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정말 말이 안 돼!” 그녀는 볼을 붉히며 외쳤다. “크루아송 하나 먹고 싶어.”

"나도 그래." 그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게 바로 증거지."

그러더니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갓난아기에게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유치하다고 비난했고, 그는 이를 부인하며 맞받아쳤다. 결국 마드무아젤 머피가 공감의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옥신각신했고, 마지막 크루아상은 휴전 깃발 아래에서 먹어 치워졌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는 마드무아젤 머피에게 밝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팔을 잡았다. 머피는 두 사람에게 명랑하게 외쳤다. "봉주르, 마담! 봉주르, 무슈!" 그러고는 둘이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 세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맙소사, 어찌 저리 잘생겼누."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잠시 후 덧붙였다. "저 둘이 결혼한 사인지 어떤지 모르겠네—참말이지, 어쩜 저렇게 보기 좋게 어울리누."

마차는 뤼 드 메디시스를 빙 돌아 뤼 드 보지라르로 접어들었고, 뤼 드 렌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그 길을 따라간 다음, 그 시끄러운 대로로 접어들어 몽파르나스 역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기차 시각에 맞춰, 아치형 역사 안으로 출발 종소리의 마지막 울림이 퍼지는 가운데 계단을 뛰어올라 객차로 향했다. 차장이 두 사람이 탄 객실 문을 쾅 닫았고, 호각 소리가 울리자 기관차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응답해 왔다. 긴 열차는 역에서 미끄러져 나가 점점 빨라지더니, 아침 햇살 속으로 질주해 나갔다. 열린 창문 너머에서 여름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에 불어 들어와, 소녀의 이마에 늘어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춤추게 했다.

"우리는 이 구역을 혼자 쓰고 있소." 해스팅스가 말했다.

그녀는 쿠션이 깔린 창가 좌석에 기대어 앉았다. 눈은 빛나며 크게 뜨렸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모자를 들어 올렸고, 턱 아래 리본이 살랑거렸다. 그녀는 재빠른 동작으로 리본을 풀더니, 모자에서 긴 모자핀을 꺼내 옆 좌석에 내려놓았다. 기차는 날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핏기가 돌았고, 가쁘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덜미의 백합 송이 아래로 그녀의 숨결이 오르내렸다. 나무들과 집들과 연못들이 춤추듯 스쳐 지나갔고, 안개처럼 늘어선 전신주들이 그 풍경을 잘라 가르며 지나갔다.

"더 빨리! 더 빨리!" 그녀가 비명처럼 외쳤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여름 하늘처럼 푸르렀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들이 도망치듯 물러날 때, 그 무엇은 그들 앞에서 도망쳐 갔다.

그것은 지평선이었을까? 언덕 위의 험상궂은 요새가 때로는 그 선을 가리고, 때로는 시골 예배당의 십자가가 그 경계를 그었는가?

여름 달도 그랬을까? 희미한 푸른 하늘 너머로 유령처럼 스며드는 달빛은.

“더 빨리! 더 빨리!” 그녀가 비명처럼 외쳤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은 선홍빛으로 타올랐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떨렸다. 초록빛 들판이 마치 에메랄드 강물처럼 빽빽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흥분에 휩싸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오!” 그녀가 외치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옆 창가로 끌어당겼다. “봐요! 저와 함께 몸을 내밀어 보세요!”

그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철교 위를 지나는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는 창틀에 매달렸다. 바람이 두 사람의 귀에서 휘파람 소리를 냈다. "너무 멀리 내밀지 마, 발렌타인, 조심해!"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다리 아래로 넓은 강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기차가 터널을 질주하듯 통과하자, 다시 한 번 강물이 빛났다. 그리고 가장 푸른 초원 너머로 다시 달렸다. 바람이 그들을 향해 포효했다. 소녀는 창밖으로 몸을 많이 내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쥐며 외쳤다. “너무 멀리 나가지 마!” 하지만 그녀는 속삭일 뿐이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도시에서 벗어나, 땅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세상에서 벗어나!”

“무슨 말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고, 바람이 그 소리를 다시 목구멍 속으로 휘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창가에서 몸을 돌려 자신을 감싸 안은 그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객차가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두 사람은 이제 숲속을 질주하고 있었고, 햇살이 이슬 맺힌 가지들을 따라 불꽃처럼 번득이며 흘러갔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반쯤 벌어진 입술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비통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안 돼—그건 안 돼!"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단단히 가까이 안고서, 진실한 사랑과 열정의 말을 속삭였다. 그녀가 흐느꼈다—"그건 안 돼—그건 안 돼—나는 약속했어! 너는—너는 알아야 해—나는—자격이—없어—" 그의 순결한 마음에 그녀의 그 말들은 그 순간에도, 그 후로도 영원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쳤고, 머리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는 창가에 기대섰고, 거센 바람이 귀를 휩쓸었으며, 마음은 기쁨

으로 들끓었다. 숲은 지나갔고, 해가 나무 뒤에서 미끄러져 나와 다시 대지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창밖의 세상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희미해, 그는 그녀의 머리 가까이로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였다. "나는 너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약해.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주인이었어—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 나는 나를 믿어 준 이에게 한 말을 어겼지만, 너에게는 모든 것을 말했어—나머지가 무슨 상관이겠어?" 그는 그녀의 순진함에 미소 지었고, 그녀는 그의 순진함을 흠모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를 받아 주든 내쳐 버리든—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이제 너는 한 마디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나처럼 큰 행복을 바라보느니 죽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몰라."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쉿,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봐—저 햇살, 초원, 시내를 봐. 우리는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아주 행복할 거야."

그녀는 햇살이 비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세상은 그녀에게 아주 아름다워 보였다.

행복에 떨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바로 세상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군요."

“나도 마찬가집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가 속삭였다.

아마도 우리들의 온화한 들의 여인이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루 바레

필로소퍼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설교하든 상관없다. 그들은 모두 끊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으며, 넘을 수 없는 영원한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

붉은 장미도, 노란 장미도, 밀려오는 바다의 향기조차 내가 사랑하는 그 향기엔 미치지 못하네. 그대는 항상 그 향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나른한 머리를 드리운 백합들이 지치네. 변함없는 물결은 나를 피곤하게 하네. 당신과 당신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이 나를 아프게 하네.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 불꽃 같은 네 입술, 네 가슴, 네 손, 말려 올라간 네 머리결, 그리고 내 갈망.

어느 날 아침, 줄리안의 작업실에서 한 학생이 셀비에게 말했다.

“저기가 폭홀 클리포드야.”

그는 붓을 들어 화구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젊은이를 가리켰다.

셀비는 수줍고 긴장한 채 다가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셀비입니다. 방금 파리에 도착했고, 소개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어지는 이젤의 굉음 속에 묻혀 버렸다. 이젤을 쓰러뜨린 주인은 즉시 옆에 있던 이웃을 공격했고, 잠시 동안 격렬한 싸

움 소음이 불랑제와 르페브르 화가의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그 소음은 곧 밖의 계단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이어지며 잦아들었다.

자신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해하던 셀비는 클리포드를 바라보았다. 클리포드는 그 싸움을 차분히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여기 좀 시끄럽긴 하지만, 친구들을 알면 좋아질 거야." 클리퍼드가 말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는 셀비를 기쁘게 했다. 이어 그는 셀비의 마음을 사로잡는 솔직함으로 그를 여러 국적의 학생 대여섯 명에게 차례로 소개했다. 어떤 이들은 친근했고, 모두 예의 바랐다. '마씨에르'라는 직함을 가진 위엄 있는 인물조차도 마음을 누그러뜨려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여. 당신처럼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클리퍼드 씨의 친구라면 이 아틀리에에서 문제가 될 일이 없소. 다음 새 사람이 올 때까지 난로에 불을 지피는 건 당신의 역할이겠지?"

“물론이지.”

"그리고 놀림 받는 건 신경 안 쓰지?"

"괜찮소." 셀비가 대답했다. 사실 그는 놀림 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클리포드는 큰 재미를 느끼며 모자를 썼다.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야.”

셀비는 자신의 모자를 쓰고 그를 따라 문까지 갔다.

모델 옆을 지나던 순간, "모자! 모자!"라는 격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 학생이 이젤에서 벌떡 일어나 셀비를 위협하듯 다가섰다. 셀비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클리퍼드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위해 모자를 벗어라.”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향해 경례를 건넸다.

“그리고 저는요?” 모델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당신은 매력적이군요." 셀비가 대답했다. 자신의 그 대담함에 스스로 놀랐지만, 스튜디오 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일어서서 일제히 외쳤다. "잘했어! 괜찮아!" 모델은 웃으며 그에게 손등에 입맞춰 키스를 날렸고, "내일 봐요, 멋진 젊은이!"라고 외쳤다.

그 일주일 내내 셀비는 스튜디오에서 방해받지 않고 일했다. 프랑스 유학생들은 그를 ‘르앙팡 프로디그(방황하는 아들)’라고 부르며, 이를 ‘경이로운 아기’, ‘키드’, ‘키드 셀비’, ‘키드비’ 등으로 자유롭게 번역해 불렀다. 그러나 병처럼 그 별명은 ‘키드비’에서 ‘키드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티드비츠’로 옮겨 갔다. 클리퍼드의 권위 앞에 그 별명은 멈춰 섰고, 결국 다시 ‘키드’로 돌아갔다.

수요일이 찾아왔고, 부랑르 선생도 함께였다.

세 시간 동안 학생들은 선생의 날카로운 비웃음에 시달렸다. 클리퍼드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선생은 클리퍼드에게, 예술 작품에 대해 아는 것이 '일하는 기술'에 대해 아는 것보다도 더 적다고 핀잔을 주었다.

셀비는 운이 좋았다. 교수는 그의 그림을 묵묵히 살펴보더니,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고는 별다른 평가 없이 다음으로 넘어갔다. 곧이어 부랑르 선생은 부귀로와 팔짱을 끼고 자리를 떠났다.

클리퍼드는 안도하며 모자를 머리 깊숙이 눌러쓰고는 그제야 떠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셀비는 그를 스튜디오에서 만나리라 기대하고 있었지만—그런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헛된 일임을 셀비는 나중에야 알게 된다—결국 혼자 라틴 지구로 돌아갔다.

파리는 그에게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도시였다. 그 화려함은 그를 모호하게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샤테레 광장, 심지어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도 그의 미국인 가슴에는 따뜻한 추억이 스며들지 않았다. 시계와 첨탑, 그리고 남색과 주홍빛 제복을 입은 엄숙한 경비가 서 있는 법원, 온갖 마차와 못생긴 물뿜는 그리핀 조각상이 어지럽게 섞인 생미셸 광장, 생미셸 대로 언덕, 경적을 지르는 트램, 두 명씩 느릿느릿 거닐는 경찰관들, 그리고 카페 바쉐트의 테이블이 늘어선 테라스들. 그것들은 그에게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생미셸 광장의 돌바닥에서 대로변의 아스팔트로 발을 옮길 때, 이미 경계를 넘어 유명한 라탱 지구, 즉 학생들의 구역에 들어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마부 한 명이 그를 "부르주아 양반!"이라 부르며, 걸어서 가는 것보다 마차를 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재촉했다.

거리의 부랑아 하나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런던에서 온 최신 전신 소식을 물어왔다. 그러더니 물구나무를 선 채로 셀비에게도 힘 자랑을 해보라고 권했다.

예쁜 소녀가 보라색 눈으로 그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뺨에 타오르는 붉은 기색에 놀랐다.

길을 가려고 몸을 돌리던 그녀는 폭스홀 클리퍼드를 마주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클리퍼드는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그러고 나서 셀비가 생제르맹 대로에서 센 가(街)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했다.

“나는 미남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괴물도 아니다. 그녀가 셀비를 보고 붉은 얼굴을 만드는 게 무슨 뜻이지? 내 생애 처음 보는 일이다. 그

녀가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이 근처에서 그녀가 누군가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쨌든, 그녀는 나를 쳐다본 적이 없다. 나는 존경할 만한 모든 일을 다 해봤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불멸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클리퍼드가 늘 보여 왔던 그 우아하고 느긋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그는 모퉁이에서 셀비를 따라잡았고,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대로(Boulevard)를 건너 카페 뒤 세르클(Café du Cercle)의 차양 아래로 자리를 잡았다. 클리퍼드는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중에 모두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파리의 두 명물을 소개해 주마. 리처드 엘리엇 씨와 스탠리 로든 씨."

그 '명물들'은 친근해 보였다. 그리고 베르무트를 마셨다.

"오늘 스튜디오 빼먹었군." 엘리엇이 갑자기 클리퍼드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클리퍼드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자연과 교감하다니?" 로든이 말했다.

"이번엔 이름이 뭐지?" 엘리엇이 물었다. 로우든이 즉각 대답했다. "이름은 이브트요. 국적은 브르타뉴 출신입니다."

"틀렸소." 클리퍼드가 담담하게 말했다. "루 바레 거리요."

주제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셀비는 낯선 이름들과 최신 프릭스 드 로마 수상자에 대한 찬사를 들으며 놀랐다. 그는 거침없이 표현된 의견

과 솔직하게 논쟁되는 쟁점들을 듣게 되어 기뻤다. 비록 그 대화의 대부분이 영어와 프랑스어 슬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명성을 위한 격렬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길 고대했다.

성쉴피스 성당의 종소리가 시간을 알렸다. 뤽상부르 궁의 종소리도 그 소리에 맞춰 하나둘 화답했다.

그들은 팔레 부르봉 뒤쪽, 황금빛 먼지 속에 저물어 가는 해를 한 번 흘끔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돌아섰다. 생제르맹 대로를 건너 느릿느릿 의과 대학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그들을 지나갔다. 발걸음이 매우 급했다.

클리퍼드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엘리엇과 로든은 동요했지만,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소녀는 눈을 들지 않은 채 그들의 인사에 화답했다.

하지만 뒤늦게 따라오던 셀비는, 화려한 가게 진열대에 홀려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본 어떤 눈동자보다도 푸른 두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소녀의 시선은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고, 젊은이는 앞서간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젠장, 친구들, 방금 가장 예쁜 소녀를 봤어—"

그의 말에 세 사람으로부터 탄성이 터져 나왔다. 비명도, 감탄도 아닌, 그리스 비극의 합창단처럼 어둡고 불길한 탄성이었다.

“뤼 바레!”

“뭐?” 셀비가 당황하며 외쳤다.

클리포드에게서 나온 유일한 대답은 모호한 손짓 하나였다.

두 시간 후, 저녁 식사 자리였다. 클리퍼드가 셀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군. 너의 그 초조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

"네, 맞아요." 그는 천진하게 말했다. "그 여자 얘긴데. 그녀가 누구죠?"

로든의 미소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고, 엘리엇의 얼굴에는 쓴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클리퍼드가 진지하게 말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소." 그는 신중하게 덧붙였다.

라틴 지구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녀도 진지하게 그 인사에 화답하지만, 그녀에게서 그 이상을 얻어 낸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소.

그녀의 악보를 보면 직업은 피아니스트로 보이오. 그녀는 시 당국이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작고 허름한 거리에 살고 있소. 그

거리는 차량을 막는 장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그 장벽에 검은 글씨로 적힌 이름에서 우리가 그녀를 부르는 호칭—'뤼 바레(Rue Barrée)'—이 유래했소.

프랑스어가 서툴렀던 로우든 씨는 그것을 '루 바리(Roo Barry)'라고 잘못 발음하면서 처음 우리의 주의를 끌었지요—

“저는 안 했습니다.” 로우든이 격분하며 말했다.

"그리고 루 바리, 혹은 뤼 바레는 오늘날 라틴 지구의 모든 미술학도(라핀)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네."

"우리는 그런 미술학도(라핀)가 아니오." 엘리엇이 바로잡았다.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클리포드가 선을 그으며 말했다. “셀비 씨, 두 분의 신사께서 루 바레의 발치에 자신의 목숨과 몸을 바치겠다고 여러 차례, 그리고 불운한 타이밍으로 제안하셨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리마다 냉혹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리고 그는 어둡고도 위엄 있는 어조로 덧붙였다. “나는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다. 내 친구 엘리엇의 학식과 우아함도, 로우든의 풍만하고 아름다운 미모도,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는 것을.”

엘리엇과 로든은 분노에 끓어오르며 외쳤다. “당신도!”

"나는," 클리퍼드가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들이 뛰어드는 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렵다네."

II

스물네 시간 뒤, 셀비는 뤼 바레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주 내내 그는 화실에서 전력을 다해 작업했고, 토요일 밤에는 너무 지친 나머지 저녁도 거른 채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신이 빠져 죽고 있는 노란 황토색 강물의 악몽을 꾸었다. 일요일 아침, 아무런 계기도 없이 그는 뤼 바레를 떠올렸고, 그로부터 십 초 뒤 그녀를 보았다. 대리석 다리 위 꽃시장에서였다. 그녀는 팬지 화분 하나를 살피고 있었다. 화원 주인은 그 거래에 진심과 영혼을 쏟고 있는 듯했지만, 뤼 바레는 고개를 저었다.

클리퍼드가 지난 화요일의 이야기를 그에게 풀어놓아 주지 않았더라면, 셀비가 거기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양배추 장미를 들여다보았을지는 의문이다. 그의 호기심이 자극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암컷 칠면조를 제외하면, 열아홉 살 소년이야말로 살아 있는 두 발 짐승 중 가장 노골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무 살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 호기심을 감추려 애쓴다. 그러나 셀비를 위해 공정하게 말하자면,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기도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꽃들은 대리석 다리 위 난간까지 빽빽이 쌓여 있었다. 공기는 부드러웠고, 햇살은 야자수 사이로 그늘진 레이스를 짜내며 천 송이 장미의 꽃심에서 환히 빛났다. 봄이 왔다—한창 그 절정에 있었다. 살수차와 분무기가 큰길 위에 신선함을 뿌렸고, 참새들은 천박할 만큼 시끄러워졌으며, 잘 속는 센 강의 낚시꾼은 빨래터의 비누 거품 사이로 떠다니는

자신의 화려한 찌를 애타게 좇았다. 흰 꽃송이를 단 밤나무들은 연한 초록을 두른 채 벌들의 윙윙거림에 떨렸다. 초라한 나비들은 헬리오트로프 사이에서 겨울의 누더기를 자랑했다. 공기에서는 갓 파낸 흙냄새가 났고, 센 강의 잔물결에는 숲속 시냇물의 메아리가 깃들었으며, 제비들은 정박한 강의 배들 사이로 솟구치고 스쳐 날았다. 어디선가 창가의 새장에 갇힌 새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목 놓아 노래하고 있었다.

셀비는 양배추 장미를 바라본 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장에 갇힌 새의 노래에 그가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오월의 공기에 스민 그 위험한 달콤함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가 멈췄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다음에는 왜 멈췄는지조차 희미하게만 인지했다. 그러다가 그는 계속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생각은 바뀌었다. 가지 않기로 했다. 그제야 그는 뤼 바레를 바라보았다.

정원사가 말했다. "마들모아젤,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팬지 화분입니다."

뤼 바레가 고개를 저었다.

원예사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사실은 팬지를 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녀는 봄마다 그곳에서 두세 화분씩, 여러 화분의 팬지를 사 갔고 한 번도 값을 깎으려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팬지는 분명히 더 중요한 거래로 가기 위한 떠보기였다. 원예사는 두 손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튤립은 정말 장엄하군."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 히아신스도—"

그는 향기로운 덤불을 본 순간, 순식간에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저거요.」 뤼가 접은 양산으로 화려한 장미 덤불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셀비는 그 떨림을 알아챘다—듣고 있던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울 일이었다—원예사도 알아챘다. 그는 장미꽃에 코를 파묻고 흥정의 냄새를 맡았다. 그래도 그를 변호하자면, 그는 그 식물의 정직한 값에 단 한 푼도 더 얹지 않았다. 어쨌든 뤼는 가난할 것이 분명했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오십 프랑입니다, 마들모아젤."

원예사의 어조는 진지했다. 뤼는 말다툼이 헛수고일 것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원예사는 자기 보물을 찬미하지 않았다—장미나무는 그 자체로 화려했고,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팬지를 사겠어요.」 소녀가 그렇게 말하며 낡은 지갑에서 두 프랑을 꺼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한 방울이 빛을 다이아몬드처럼 굴절시키며 매달려 있었지만, 그것이 코 옆 작은 구석으로 흘러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셀비의 환영이 떠올랐고, 손수건이 놀란 푸른 두 눈을 훔쳐 내자 진짜 셀비 본인이 거기 서 있었다—몹시 당황한 채로.

그는 즉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천문학적 연구열에 잡아먹힌 사람처럼. 그가 꼬박 오 분 동안 관측을 계속하자 원예사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경찰관마저 따라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셀비가 자기 부츠 끝을 내려다보자, 원예사는 그를 쳐다보았고 경찰관은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겨 갔다. 뤼 바레는 이미 한참 전에 자리를 떠난 뒤였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monsieur?" 정원사가 물었다.

셀비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꽃을 사기 시작했다.

원예사는 전율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꽃을 판 적이 없었고, 이처럼 만족스러운 가격에 판 적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고객과 의견이 이렇게 완전히 일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흥정을 놓쳤다. 논쟁을 놓쳤다.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며 시위를 벌이는 그 열정을 놓쳤다. 거래에는 향신료가 부족했다.

"이 튤립들이 정말 장관이군!"

「정말 그렇소!」 셀비가 열을 올리며 외쳤다.

「하지만 아아, 비쌉니다.」

"내가 가져가겠소."

"디외!" 정원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놈은 대부분의 영국인들보다 더 미쳤군."

"이 선인장은—"

"정말 아름답군."

"아, 불행히도—"

"그것을 다른 것들과 함께 보내라."

원예사는 강가의 돌난간에 몸을 기대며 버텼다.

"그 화려한 장미 덩굴이요."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운 걸세. 오십 프랑은 될 거야—"

그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정원사는 그의 당황스러움을 음미하듯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순간의 혼란이 사라지고, 차가운 자기 통제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정원사를 시선으로 꿰뚫어 보았고, 그를 압박했다.

"나는 그 관목을 사겠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왜 사지 않으셨습니까?"

"미드모아젤은 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메, 저는 그녀에게 제비꽃을 많이 팝니다. 제비꽃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게 그녀가 산 제비꽃들이야?"

"이것들입니다, monsieur. 파란색과 금색으로 된 것들이요."

"그러면 그들을 그녀에게 보내기로 한 거야?"

"장사가 끝난 정오쯤."

「이 장미 덤불도 그것들과 함께 보내게, 그리고」—여기서 그는 원예사를 노려보았다—「누가 보냈는지는 절대 말하지 말게.」 원예사의 두 눈이 접시만큼 커졌지만, 셀비는 차분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머지는 오텔 뒤 세나, 뤼 드 투르농 7번지로 보내 주게. 관리인에게는 내가 일러두겠네.」

그러고는 위엄을 잔뜩 갖춰 장갑 단추를 채우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지만, 모퉁이를 잘 돌아 원예사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자신이 멍청이라는 확신이 거센 부끄러움으로 그를 덮쳤다. 십 분 뒤, 그는 오텔 뒤 세나의 자기 방에 앉아 얼빠진 미소를 지으며 되뇌고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지, 정말 바보야!」

한 시간 뒤, 그는 여전히 같은 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모자와 장갑은 그대로 벗지 않은 채,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은 자신의 부츠 끝을 응시하며 깊은 사색에 잠긴 듯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도 이전의 멍청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는 듯한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다.

III

그 후로 나는 그 연극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종종 밤마다 꿈에서 노란 옷을 입은 왕을 보았다.

그날 오후 다섯 시쯤, 오텔 뒤 세나의 관리인 일을 맡고 있는 슬픈 눈매의 작은 여인은, 꽃을 가득 실은 관목 수레가 문 앞에 멈춰 서는 광경에 놀라움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술 좋아하는 사환 조제프를 불렀고, 조제프는 그 꽃들의 값어치를 작은 술잔(_프티 베르_)으로 몇 잔쯤이 되는지 가늠하면서 그 꽃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시무룩하게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잡아뗐다.

"자, 보자," 작은 문지기장이 말했다. "여자를 찾아보자!"

"너?" 그가 물었다.

작은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조지프는 그의 코를 쓰다듬었다. 그 코는 화려함으로 꽃밭의 그 어떤 장식과도 견줄 만했다.

그때 원예사가 모자를 손에 든 채 들어왔고, 몇 분 뒤 셀비는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원래 그 방에는 가구를 빼면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이 두 평방피트쯤 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을 선인장 하나가 차지하고 있었다. 침대는 팬지, 백합, 헬리오트로프 상자들의 무게에 신음했고, 소파는 히아신스와 튤립으로 덮였으며, 세면대 위에는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 보증된 어린 나무 비슷한 것이 얹혀 있었다.

조금 뒤 클리퍼드가 들어왔다가 스위트피 상자에 걸려 넘어졌고, 가볍게 욕을 내뱉은 뒤 사과했다. 이어서 꽃잔치의 화려함 전체가 한꺼번에 그에게 덮쳐 오자, 그는 놀란 나머지 제라늄 위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제라늄은 엉망이 되어 버렸지만, 셀비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며 선인장을 노려보았다.

「무도회라도 열 생각이야?」 클리퍼드가 물었다.

"아니, 아니요.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해요." 셀비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열정이 빠져 있었다.

"그럴 것 같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 선인장은 참 아름답군."

셀비는 선인장을 응시했다. 그는 감식가라도 된 듯 조심스럽게 선인장을 만졌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을 찔렸다.

클리퍼드는 지팡이로 팬지를 콕 찔렀다. 그때 조제프가 청구서를 들고 들어와 큰 소리로 총액을 외쳤다. 한편으로는 클리퍼드에게 강한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고, 한편으로는 셀비를 위협해 _푸르부아르_를 토해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받아낸 그 팁은 그가 원하면 원예사와 나눠가질 작정이었다. 클리퍼드는 못 들은 척하려 애썼지만, 셀비는 군말 없이 청구서와 팁을 모두 치렀다. 그러고는 무심한 척하며 방 안으로 천천히 물러섰는데, 선인장에 바지가 걸려 찢어지는 바람에 그 짐짓 무관심한 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클리포드가 어떤 평범한 말을 던지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셀비에게 말을 걸 기회를 주었다. 셀비는 그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아, 드디어 봄이 왔군요" 정도까지 가서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클리포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이 말로 다 못 할 만큼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쫑긋 세워진 그 작은 귀는 억눌린 희열로 짜릿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는 상황을 다잡아 보려는 절박한 시도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러시아 담배 몇 개비를 집으려 벌떡 일어났지만, 또다시 선인장에게 발목이 잡혀 그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더해진 셈이었다.

"이놈의 빌어먹을 선인장!" 셀비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자기 보존 본능에 반해서까지 이 말을 토해 내고 말았다. 그러나 선인장의 가시는 길고 날카로웠고, 거듭 찔리는 통에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클리포드가 몸을 홱 돌렸다.

“자, 셀비, 대체 왜 그 꽃을 샀지?”

“저는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셀비가 말했다.

“그걸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돼.”

“당신이 이불 위의 팬지꽃을 치워주신다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두라는 거야?”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을 뱉자마자 그는 후회했다. 도대체 클리포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는 청구서 금액을 이미 들었다. 셀비가 관리인 여인에게 소심하게 사랑 고백이라도 하려고 이런 사치품을 사들였다고 클리포드가 믿어 버리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라틴 쿼터의 친구들은 그 일을 자기들 특유의 야만적인 방식으로 떠들어 대지 않을까? 그는 조롱이 두려웠고, 클리포드의 평판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셀비는 Clifford를 쫓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젊은 남자의 마음을 찌르듯 건드렸다. 그것은 자백이자, 동시에 간절한 호소였다.

Clifford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꽃무늬가 가득한 미로 같은 방을 헤치고 나섰다. 그는 문틈에다 눈을 대고 물었다.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야?"

이 우아한 접대 방식은 쿼터에 고유한 것이다.

"엘리엇이군."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로우든도 있고, 그들의 불독들도 함께야." 그러자 그는 틈새를 통해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계단에 앉아 있어. 셀비와 내가 곧 나올 테니까."

신중함은 미덕이다. 라틴 쿼터에는 그런 미덕이 드물고, 신중함은 그 목록에 거의 오르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곧 로든이 외쳤다. “꽃 냄새가 난다. 저들이 안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군!”

“그걸 알면 셀비를 더 잘 알아야지.” 문 뒤에서 클리퍼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다른 한 사람은 허둥지둥 찢어진 바지를 다른 것으로 갈아입었다.

“우리는 셀비를 안다고, 엘리엇은 강조하며 말했다.”

“그래,” 로우든이 말했다. “그는 꽃장식으로 치장한 연회를 열고 클리포드를 초대하잖아. 반면 우리는 계단에 앉아.”

“네, 그네들이 젊은이들과 미녀들의 향연에 빠져 있을 때 말이죠.” 로든이 제안했다. 그러다 갑자기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오데트도 거기 있나?”

"이봐," 엘리엇이 다그쳤다. "콜레트는 거기 있나?"

그가 애절한 하울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 타일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에, 당신은 어디에 있소, 코레트?”

"클리포드는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지." 로든이 말했다. "뤼 바레에게 한 번 면박을 당한 뒤로는 성격이 비뚤어졌으니까."

엘리엇이 목소리를 높였다. “얘들아, 정오에 루 바레의 집으로 꽃다발이 들어가는 걸 봤지?”

"꽃다발과 장미였지." 로든이 구체적으로 말했다.

“아마도 그녀를 위한 거겠죠.” 엘리엇이 불독을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클리포드는 갑작스러운 의심에 사로잡혀 셀비를 돌아보았다. 셀비는 짐짓 한 곡조를 흥얼거리며 장갑 한 켤레를 골랐고, 담배 열두 개비를 꺼내 케이스에 넣었다. 그러고는 선인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짐짓 일부러 꽃송이 하나를 떼어 단춧구멍에 꽂고,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 든 채 클리포드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 모습에 클리포드는 몹시 곤혹스러워했다.

IV

월요일 아침, 줄리앙 화실에서는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우선권을 가진 학생들은, 점호 때 자기 자리로 만들겠다는 희망에 문이 열린 순간부터 탐나는 스툴 위에 애타게 쪼그리고 앉아 있던 다른 학생들을 쫓아냈다. 학생들은 팔레트와 붓, 포트폴리오를 두고 옥신각신했고, 시세리와 빵을 달라고 외치며 허공을 갈랐다. 시세리는 더러운 전직 모델로, 더 잘나가던 시절에는 유다 역할까지 맡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한 수에 묵은 빵을 팔며 그것으로 자기 담뱃값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었다. 줄리앙 씨가 들어와 자상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나

갔다. 그가 사라지자 곧 사무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 같은 그 사내는 먹잇감을 찾아 싸움판 무리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회비를 내지 않은 세 명이 적발되어 소환되었다. 네 번째 자는 냄새를 맡긴 뒤 쫓겨났고, 우회 공격을 당해 문 쪽으로 도망치는 퇴로를 차단당한 끝에, 결국 난로 뒤에서 붙잡혔다. 그 무렵 혁명은 격렬한 양상을 띠었고, “줄스!”라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줄스가 와서, 큰 갈색 눈에 슬픈 체념을 띤 채 두 차례의 싸움을 중재하고는, 모두와 악수를 나눈 뒤 군중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그 뒤에는 평화와 호의의 분위기가 남았다. 사자들이 어린 양들과 함께 앉았고, 마시에들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표시한 뒤, 모델대 위에 올라 점호를 시작했다.

“이번 주 시작은 C로 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클리송!”

클리손은 번개처럼 튀어 오르며, 앞자리 앞에 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닥에 적었다.

“카론!”

카론은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쾅! 이젤이 쓰러졌다. 프랑스어로 "Nom de Dieu(제기랄)!", 영어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고함이 터졌다. 와장창! 물감통이 붓이며 잡동사니까지 한꺼번에 바닥에 쏟아졌다. "Dieu de Dieu de—" 그러고는 침 뱉는 소리. 한 차례의 타격, 짧게 달려드는 소리, 엉겨붙는 몸싸움이 이어진 뒤, 마시에의 엄하고 책망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돼지야!"

그리고 명단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클리퍼드!"

마시에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다. 장부 페이지 사이로 한 손가락을 끼운 채.

"클리퍼드!"

클리퍼드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직선 거리로 약 3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 거리는 매순간 더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 빨리 걷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의 느긋한 보폭으로 유유자적 걷고 있었다.

엘리엇이 그의 옆을 걷고 있었고, 두 마리의 불독이 뒤를 따랐다. 엘리엇은 『질 블라스』를 읽고 있었다. 그는 그 책에서 즐거움을 얻는 듯했지만, 클리퍼드의 우울한 심정에는 시끄러운 웃음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웃음을 참아, 신중한 미소들로 대체했다.

클리퍼드는 이 사실을 우울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걸어가 루크상부르 공원으로 들어갔고, 북쪽 테라스 근처 벤치에 앉아 불쾌한 눈빛으로 주변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엘리엇은 루크상부르 공원의 규정에 따라 두 마리의 개를 묶었다. 그러고는 친구를 향해 물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질 블라스』와 그 신중한 미소로 돌아갔다.

그날은 완벽했다. 태양이 노트르담 성당 위에 걸려 도시 전체를 눈부신 광채로 물들였다. 밤나무의 연한 잎사귀는 테라스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길 위에는 푸른빛이 도는 얇은 그물망 같은 무늬를 새겼다. 만약 클리포드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자신의 격렬한 '인상'에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경력 중 평소 그랬듯, 그의 생각은 직업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참새들이 싸우며 구애의 노래를 수다스럽게 지껄였고, 붉은빛이 도는 비둘기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우아하게 날아다녔다. 파리들은 햇살 속을 빙글빙글 돌았고, 꽃들은 천 가지 향기를 뿜어냈다. 그 향기는 클리포드를 나른하고 애틋한 그리움에 사로잡게 했다. 그 영향 아래 그는 입을 열었다.

"엘리엇, 너는 진정한 친구야—"

"너 듣고 있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엘리엇이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어떤 새 치맛자락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고는 그는 분노에 차서 말을 이어 갔다. "그래서 나를

줄리앙에서 끌어내 데려온 게 고작 이걸 하려고였다면 — 어떤 작은 멍청이의 완벽함이니 뭐니로 내 머리를 가득 채우려는 거라면 — "

"아니, 멍청한 건 아니야." 클리퍼드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이봐," 엘리엇이 외쳤다. "감히 또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내게 하려는 거야?"

"다시?"

"그래, 또 또 또 또 — 이런 맙소사, 정말로 그런 거야?"

"이건," 클리퍼드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심각한 문제야."

잠시 엘리엇은 그에게 손이라도 댈 듯했지만, 결국 어쩔 도리 없는 무력감에 그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계속해 봐, 계속해. 어디 보자, 클레망스가 있었고, 마리 텔렉, 코제트, 피핀, 콜레트, 마리 베르디에 — "

"그들 모두 매력적이죠.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난 결코 진지한 적이 없어요."

"내 모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엘리엇이 엄숙하게 말했다. "방금 그 이름이 오른 이들이 한 명 한 명 차례로 네 가슴을 갈가리 찢어 놓았고, 동시에 바로 이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줄리앙 화실에서 자리를 잃게 만들었어.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따로따로, 차례차례로 말이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

"네 말이 어찌 보면 사실에 근거한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은 한결같았다는 것만큼은 인정해 줘 — "

다음이 올 때까지.

“하지만 이건… 이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엘리엇, 저를 믿어 주세요. 저는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엘리엇은 이를 갈며 귀를 기울였다.

"그건 — 그건 뤼 바레야."

"흥," 엘리엇이 비웃듯 말했다. "땅이 입을 벌려 우리 둘을 한꺼번에 삼켜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너와 나 두 사람에게 망신을 안겨 준 그 여자 때문에 끙끙대며 신음하고 있는 거라면 — 그래, 어디 마음껏 해 봐!"

“나는 계속 간다. 두려움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소심함은 이미 도망갔으니까.”

“네, 네가 본래 지닌 그 비겁함이야.”

"저는 절망적이에요, 엘리엇. 제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렇게 빌어먹을 만큼 비참했던 적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솔직히 말해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요."

“코레트 사례에서도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다.”

“들어 봐, 그래?”

잠시만요. 그 뒤 내용은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루 바레가 순결한 소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클리퍼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녀를 사랑하느냐, — 자네가 예쁘기만 한 시시한 여자마다 매달리고 발끝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식 말고 — 내 말은, 자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느냐?"

"네," 클리퍼드가 고집스럽게 받았다. "저는—"

잠시만요. 당신, 그녀와 결혼할 생각인가요?

클리퍼드가 얼굴이 새빨개졌다. “네.” 그는 중얼거렸다.

"네 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군." 엘리엇이 억눌린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매력적인 그리제트와 막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그녀를 맞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없이 훌륭하고 청결한 세탁부인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갑니다.' 이런 맙소사! 이번 일은 다른 때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 모양이군. 젊은이여, 내 머리가 우리 두 사람 몫의 분별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나 감사하게. 그래도 이번 경우엔 나도 두려울 게 없네. 뤼 바레가 자네의 야망을 의심의 여지없이 단호하게 짓밟아 버렸으니까."

"뤼 바레는," 클리퍼드가 몸을 곧추세우며 입을 떼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햇빛이 금빛 반점을 이루며 어룽지는 길을 따라, 뤼 바레가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드레스는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하얀 이마에서 살짝 기울어진 큰 짚모자가 그녀의 눈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엘리엇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클리퍼드는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그 모습은 너무 간절했고, 너무 호소적이었으며, 완전히 겸손해서 루 바레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달콤했다. 클리포드는 놀람으로 인해 다리를 버티지 못해 살짝 균형을 잃고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그녀는 테라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악보통에서 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고, 원하는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는 책을 무릎 위에 엎어 둔 채, 가볍게 한숨을 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도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폭홀 클리포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책을 들었지만, 읽기는커녕 코르사주에 꽂힌 장미를 고쳐 꽂기 시작했다. 장미는 크고 붉었다. 그녀의 심장 위, 비단 꽃잎 아래에서 뛰놀고 있는 그녀의 심장을 불처럼 달구며 타올랐다.

류 바레는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매우 행복했다. 하늘은 짙푸르고, 공기는 부드럽고 향기롭고, 햇살은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다. 그 노래는 가슴 속의 장미에게 바쳐지는 것이었다.

노래의 가사는 이랬다.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어제의 세상에서, 수백만 명의 군중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길을 비켰다.”

그녀의 가슴 위, 그의 장미 꽃잎 아래서 마음이 노래처럼 뛰었다.

그때, 커다란 쥐색 비둘기 두 마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다가 테라스에 내려앉았다. 비둘기들은 고개를 숙이고, 으스대며, 고개를 푹 숙였다가 돌렸다. 그 모습을 본 뤼 바레는 기쁨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보니, 클리포드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손에 쥔 채, 마음까지 울릴 듯한 애절한 미소를 얼굴 가득 띠고 있었다. 그 미소라면 벵골 호랑이의 마음도 녹일 만큼이었다.

순간 뤼 바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클리퍼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인사하느라 굽실거리는 모습과 깡충거리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닮았음을 깨닫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벌려 더없이 매혹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정말 뤼 바레인가? 너무도 변해서, 너무도 변해서 그녀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잠재우던 그 노래, 입술 위에서 떨리며 새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 노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 거만하게 걷는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클리퍼드 씨 — 앞에서 잔물결처럼 웃음이 되어 흘러나왔다.

* * * * *

"그러니까 제가 카르티에의 학생들이 하는 인사를 받아준다고 해서, 당신만은 특별히 친구로 받아들여 주리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무슈. 그렇지만 허영이야말로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 만족하세요, 허영 씨. 저는 깍듯이 — 아, 더없이 깍듯이 당신의 인사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청합니다. 제발, 제가 그동안 기다려 온 그 존경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나, 저는 그런 경의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제가 가끔, 아니 아주 드물게라도 당신과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요."

"그리고 만약 네가 그렇다면, 다른 이는 왜 아니겠는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신중함이라니, 왜?"

그녀의 눈은 매우 맑았다. 클리퍼드는 순간 비틀거렸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그러자 무모한 악마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영혼과 육체, 재산과 소유물을 모두 바쳤다.

그는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알았다. 광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가 내뱉는 말마다 그를 명예의 사슬로 묶고, 그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엘리엇은 분수 광장을 내려다보며 잔인하게 두 불독을 제지했다. 그들이 클리퍼드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두 마리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엘리엇은 속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저주를 외쳤다.

클리포드가 말을 마치자, 그는 흥분에 불타는 듯했다. 하지만 뤼 바레의 대답은 오지 않았다. 상황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동안, 그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다. 그러자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다시 항변을 쏟아냈다. 뤼 바레는 그의 첫 마디에 그를 멈추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나에게 결혼을 제안한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제안하네요. 나는 혼자인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해맑은 햇살 아래 빛나는 파리를 응시했다. 그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오," 그녀가 속삭였다. "일하는 것이 어렵다. 항상, 항상 혼자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귈 수 있는 친구조차 없이. 그리고 사랑이 주는 것은 거리와 대로일 뿐이다. 열정이 죽은 뒤의 이야기다. 나는 안다. _우리_가 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아무도 없는 자들이다. 우리

가 사랑할 때, 의심 없이, 온 마음과 영혼을 바친다. 그 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녀는 가슴에 달린 장미를 만졌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를 잊은 듯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책을 열었다. 그리고 장미 꽃잎 하나를 떼어 책장 사이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클리퍼드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다. 권위자인 엘리엇이 첫 주가 끝날 무렵 그를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긴 했지만 말이다. 게다가 뤼 바레가 그의 엄숙한 인사에 다정하게 답해 준 덕분에 그의 회복은 한결 순조로웠다. 그는 하루에 마흔 번씩이나 자신의 청혼을 거절해 준 뤼 바레를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행운의 별에 감사했다. 그러면서도, 오, 참으로 기묘한 것이 우리네 마음이여! — 그는 좌절당한 자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다.

엘리엇은 짜증이 나 있었다. 한편으로는 클리퍼드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뤼 바레의 냉랭한 태도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누그러진 탓이었다. 그들이 자주 마주칠 때 — 그녀가 악보 두루마리와 큰 짚모자를 들고 뤼 드 센 거리를 사뿐히 지나가다가, 카페 바셰트로 향해 동쪽으로 걸어가던 클리퍼드와 그의 일행을 스쳐 지나갈 때, 일행이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 인사하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클리

퍼드에게 미소를 보내곤 했다 — 엘리엇의 잠자던 의심이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자기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포기하고는, 클리퍼드를 멍청이라 단정 짓는 데에 그치고 뤼 바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두었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셀비는 질투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화실을 빠지고 시골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숲과 들판은 오히려 그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시냇물조차 뤼 바레의 이름을 재잘대는 듯했고, 풀밭 너머에서 풀 베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도 끝에 가서는 떨리는 "뤼 바-레-에!"로 들렸다. 시골에서 보낸 그 하루는 그를 일주일 내내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쥘리앙 화실에서 시무룩하게 작업했지만, 클리퍼드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갈망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 갈망은 결국 일요일의 종잡을 수 없는 산책으로 절정에 달했다. 산책은 퐁 토 샹주의 꽃시장에서 한 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어, 우울하게도 시체 공시소까지 이어졌고, 다시 그 대리석 다리에서 끝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셀비는 느꼈다. 그래서 그는 정원에서 민트 줄렙을 마시며 회복 중이던 클리퍼드를 찾아갔다.

그들은 함께 자리에 앉아 도덕과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대화가 더없이 흥미진진하다고 느꼈다. 다만 셀비는 클리퍼드의 속을 떠보는 데에 실패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진심으로 재미있어 했다. 그러나 줄렙은 질투의 따끔한 아픔에 위안을 발라 주었고, 좌절당한 자의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을 흘려 넣었다. 셀비가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하자 클리퍼드도 함께 일어났다. 셀비가 지지 않으려고

클리퍼드를 문 앞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우기자, 클리퍼드도 셀비를 절반쯤 되돌아 바래다주기로 했다. 그러다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지자,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플릿'하기로 결정했다. '플릿'이란 클리퍼드의 야간 배회를 가리키는 동사로, 그날 밤 그들이 계획한 흥겨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잘 어울렸다. 저녁 식사는 미뇽에서 주문했다. 셀비가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클리퍼드는 술 담당 집사를 아버지 같은 눈길로 지켜보았다. 저녁은 성공이었다. 아니, 흔히 성공이라 일컫는 그런 종류의 저녁이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셀비는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키드 셀비, 영주처럼 떡이 됐군."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그는 악수를 나누고 크게 웃으며, 모두들 매우 재치 있는 말을 던지는 것 같았다. 반대편에는 클리퍼드가 있었다. 그는 절친 셀비에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맹세하고 있었다. 그들 옆에 앉거나, 광택 나는 바닥 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치마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보였다. 장미 향기, 부채 부스럭거리는 소리, 매끄러운 팔의 촉감, 그리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방은 안개에 싸인 듯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사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형태와 얼굴만이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곧장 몸을 가다듬었다. 차분하고 엄숙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었지만, 매우 취해 있었다. 자신이 취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는 도둑을 의심하듯, 자신에게도 똑같이 신중하고 경계심 강한, 날카로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자제심 덕분에 클리퍼드는 흐르는 물 아래에 머리를 안전하게 씻을 수 있었고, 꽤 상한 몸으로 거리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클리퍼드는 자기 동료가 취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는 자제심을 유지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하고, 조금 더 굳어 있었다. 말투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자정 무렵, 그가 클리퍼드를 떠날 때, 클리퍼드는 누군가의 안락의자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손에는 긴 스웨이드 장갑이 늘어져 있었고, 목에는 외풍을 막아주기 위해 깃털 보아가 감겨 있었다. 그는 현관을 지나 계단을 내려왔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구역의 보도에 서 있었다. 기계적으로 그는 거리의 이름을 올려다보았다. 그 이름은 낯설었다. 그는 돌아서서 거리 끝부분에 모여 있는 불빛들을 향해 길을 잡았다.

그것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다. 오랜 탐색 끝에, 그는 자신의 눈이 신비롭게도 제자리에서 빠져나와 새의 눈처럼 머리 양쪽에 다시 자리 잡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변화가 그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할지 생각하니 슬펐다. 그는 목의 가동성을 시험하려고, 닭처럼 고개를 갸웃거려 보았다.

그때 거대한 절망이 그를 덮쳤다. 눈물은 눈물관에 고였고,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는 나무에 부딪혔다. 이 충격이 그를 깨어나게 했다. 그는 가슴 속의 격렬한 다정함을 억눌렀다. 모자를 주워 들고, 더 경쾌하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당겨져 있었고, 이는 꽉 다물려 있었다.

그는 꽤 잘 방향을 유지했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없이 긴 시간이 흐른 끝에, 그는 늘어선 마차들을 지나고 있었다. 붉고, 노랗고, 초록빛의 화려한 등불들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는 지팡이로 그것들을 부숴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충동을 이겨내고 계속 걸었다.

나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마차를 타면 피로를 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의도로 되돌아섰다. 하지만 마차들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등불들은 너무 밝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포기했다. 자신을 추스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오른쪽으로 그림자 덩어리가 솟아올랐다. 거대하고 형체 없는 그 무언가였다. 그는 그것이 개선문임을 알아보고, 진지하게 지팡이를 흔들어 보였다. 그 크기가 그를 짜증나게 했다. 너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마도 자신의 지팡이일 테지만, 그것은 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반항 기색을 보였던 오른쪽 다리의 통제권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마들렌 성당까지 곧장 가닿을 듯한 속도로 콩코르드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래선 안 되었다. 그는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리를 건너 팔레 부르봉을 종종걸음으로 지나쳤고, 생제르맹 대로로 꺾어 들어갔다. 육군성 건물의 크기가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고, 지나가는 길에 철제 난간을 따라 끌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았을 지팡이가 아쉬웠

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자를 그 대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자를 찾았을 때, 자신이 그것을 왜 필요로 했는지 잊어버리고는 다시 진지하게 머리에 썼다.

그때 그는 앉아 울고 싶은 격렬한 충동과 싸워야 했다. 이 충동은 렌 거리에 이르러서야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쿠르 뒤 드라공(용의 안뜰) 위로 돌출된 발코니의 용 조각을 응시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흐릿한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그것은 더딘 일이었다. 앉아 울고 싶은 충동은 고독하고 깊은 사색을 원하는 욕망으로 바뀌었다. 이때 그의 오른쪽 다리가 순종을 잊고 왼쪽 다리를 공격해 옆으로 돌아, 그를 길을 막아선 듯한 나무 판자 앞에 갖다 세웠다.

그는 그것을 빙 둘러 가려 했지만, 거리가 막혀 있었다. 판자를 밀어 넘어뜨려 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장벽 안쪽에 쌓인 포장석 더미 위에 놓인 붉은 등불을 발견했다. 이는 기분 좋은 일이었다.

대로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갈 것인가? 하지만 그는 대로에 있지 않았다. 배신자 같은 오른쪽 다리가 그를 우회로로 이끌었던 것이다. 뒤에는 끝없는 등불의 줄을 늘어놓은 대로가 있었고, 여기 흙과 모르타르와 돌 더미가 쌓여 있는 이 좁고 낡은 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장벽에는 굵고 검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루 바레.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가 아는 경찰 두 명이 지나가며 일어나라고 권했지만, 그는 자신의 취향을 근거로 그 문제를 따지듯 맞섰다. 경찰들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루 바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철제 발코니가 달린 그 큰 집 어딘가에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그녀가 나올 때까지 소리쳐 부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이 생각은 똑같이 명료한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두 방법 모두 너무 불확실하다고 여겨, 그는 발코니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정중하게 루 바레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그가 볼 수 있는 집 안에는 불이 켜진 창문이 하나뿐이었다. 2층에 있었고, 그는 그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는 나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 돌 더미를 넘어, 인도로 내려서서 집 정면을 올려다보며 발판을 찾았다.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눈먼, 취한 자의 고집이 솟았고, 피가 머리로 치솟았다. 귀에서는 바다의 둔탁한 천둥소리처럼 피가 뛰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창틀을 향해 몸을 날려 몸을 끌어올렸고, 철제 난간에 매달렸다.

그때 이성은 사라졌다. 그의 뇌 안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북소리를 두드리며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처마와 받침대를 붙잡고 정면을 따라 몸을 움직였다. 파이프와 셔터에 매달리며, 불이 켜진 창문이 있는 발코니까지 기어올라갔다.

모자가 벗겨져 유리창에 부딪히며 굴러갔다.

잠시 동안 그는 숨을 죽인 채 난간에 기대어 섰다. 그때 창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그들은 잠시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곧 그 소녀는 불안정한 두 걸음을 뒤로 걸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등불이 비치는 책상 옆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큰 유리창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은 작고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커튼으로 가린 침대, 구석에 놓인 작은 세면대, 맨 벽, 도자기 램프까지 모두 하얗다. 그의 얼굴도 하얗게 물들었다.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루의 얼굴과 목이 벽난로 옆에서 피어오르는 장미나무의 색으로 물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을 건넬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도 그것을 기대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방의 인상들로 가득 찼다. 하얗고, 모든 것이 극도로 순수했다. 그 순수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눈이 빛에 익숙해지자, 주변에서 다른 사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램프 빛의 원 안에 자리를 잡았다. 피아노, 석탄통, 작은 철제 트렁크, 욕조가 있었다. 문에는 나무 옷걸이가 줄지어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하얀 친츠 커튼이 옷들을 가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우산과 큰 짚모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펼쳐진 악보 두루마리, 잉크병, 줄이 그어진 종이들이 있었다.

그 뒤에는 거울이 달린 옷장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정신이 들고 있었다.

그 소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입술은 가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햇빛 아래에서 그토록 놀랍도록 푸르던 그녀의 눈은, 지금은 벨벳처럼 어둡고 부드러워 보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의 색조는 깊어졌다가 다시 희어졌다. 그가 거리에서 그녀를 봤을 때보다 그녀는 더 작고 가냘프게 보였고, 그녀의 뺨 곡선에는 이제 거의 어린아이 같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서 뒤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부끄러운 것을 본 것처럼 충격이 그를 관통했고, 흐려졌던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선명해졌다. 한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러자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투쟁은 그의 머리를 숙이게 했으며 모든 신경을 끊어질 듯 긴장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끝이 났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멍하니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었다—사실 그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끝은 늘 그에게 동일할 것이었다—그는 이제 이해했다—언제나 그에게 동일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멍하니 흥미를 느끼며 자기 안에서 점점 커져 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가 일어섰고, 그녀도 곧바로 일어섰다. 작은 손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윽고 그는 창문을 열었다가, 모자를 집어 든 다음 다시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장미 덤불로 가서 그 꽃들에 얼굴을 대었다. 한 송이가 테이블 위의 물컵에 꽂혀 있었는데, 소녀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뽑아 입술로 지그시 누른 뒤, 그의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었다. 층계참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소녀는 램프를 들어 올리고 그를 지나쳐 미끄러지듯 윤이 나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 홀에 이르렀다. 그리고 빗장을 풀고 철제 쪽문을 열어 주었다.

그는 장미를 든 채 그 사이를 지나쳤다.